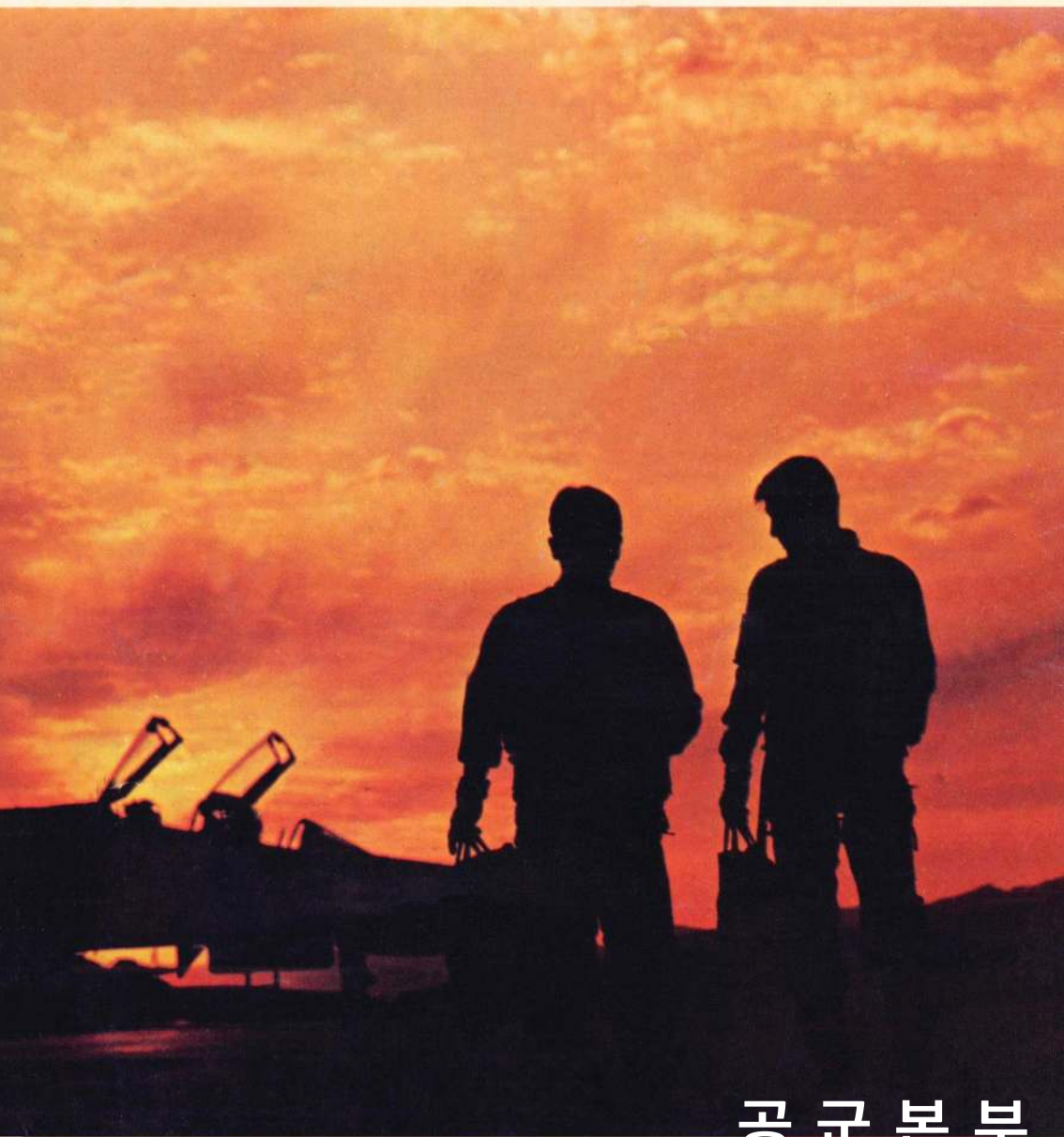


AIR FORCE

공군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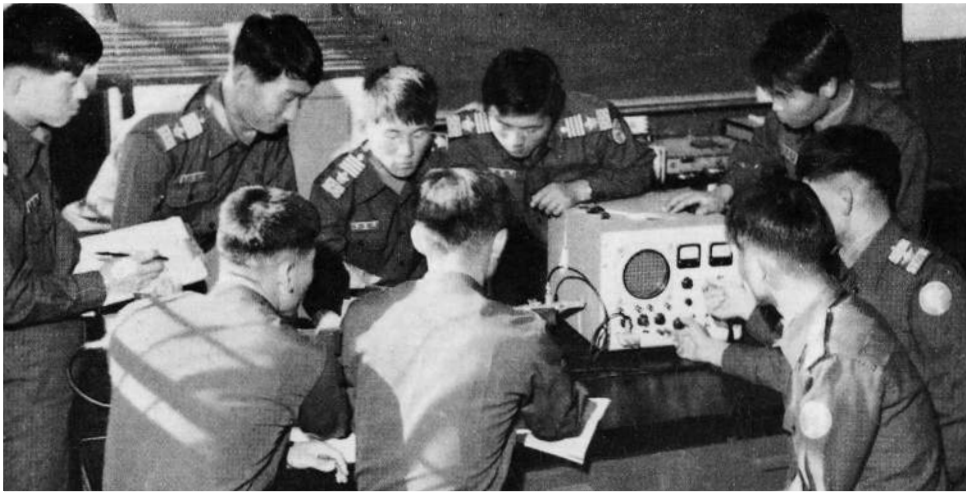
공군본부

— 사관생도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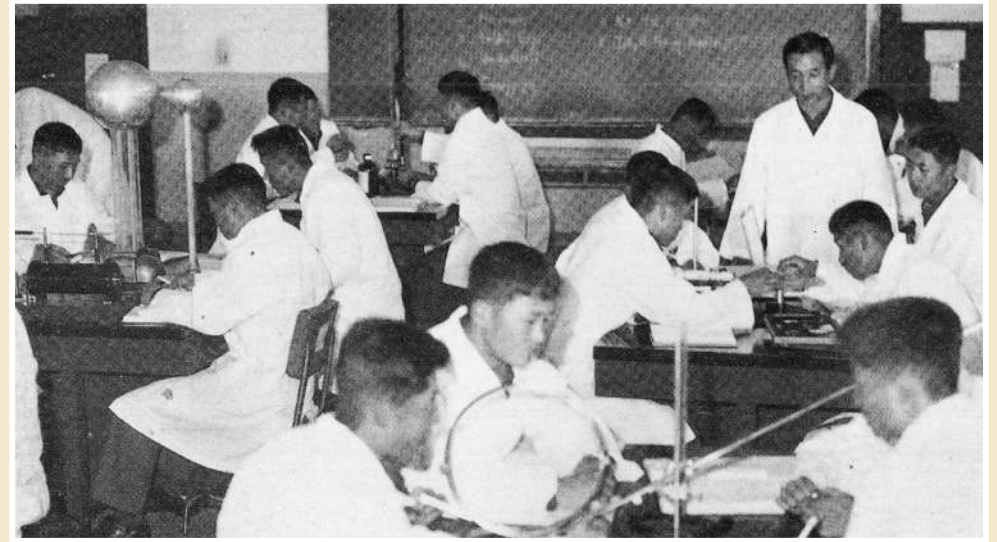
보라매의 요람, 공군사관학교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겨레와 하늘에

바치려는 내일의 보라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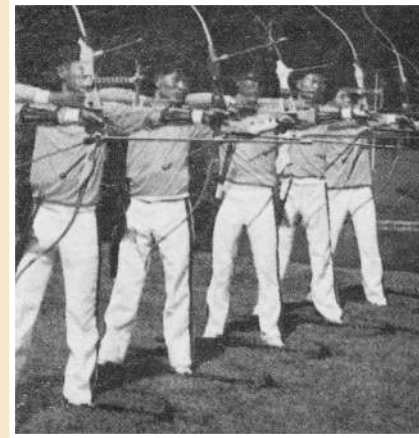
전자공학실험



물리실험



명예위원회의



궁도반 활동



서예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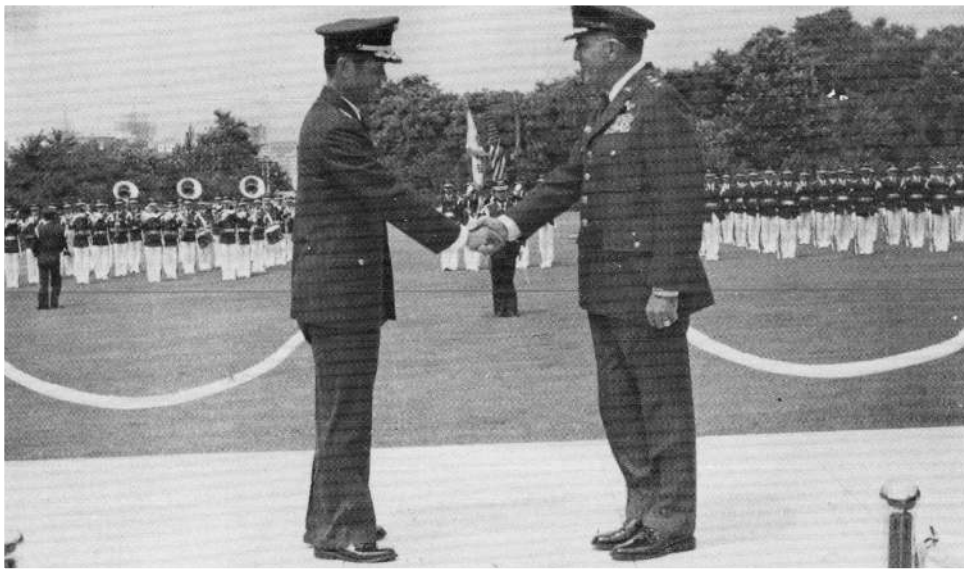
— 임관 및 수료식 —

사관후보생 81기 임관식
(8.1 교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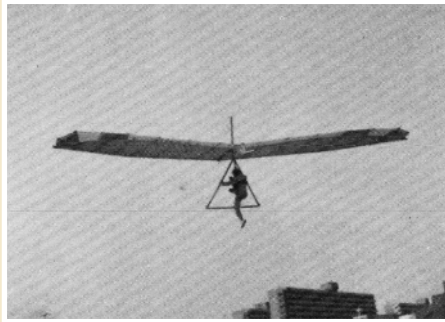


고등비행 수료식(9.5. 5718부대)

신임 미 314사단장을 접견하고 있는
김인기(金仁基) 참모총장(參謀總長)



국방부 7927부대장을 접견하고 있는 김인기(金仁基) 참모총장(參謀總長)



— 행글라이딩대회 —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空軍參謀總長盃) 행글라이딩 대회가 지난 9.30일 경주 토함산에서 열렸다.

항공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많은 선수가 참가, 기량을 겨루었다.



— 모형(模型)항공기대회(大會) —

제7회 공군참모총장배(空軍參謀總長盃) 모형 항공기대회가 지난 10.13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다.

국민(國民)의 과학화(科學化) 운동과 한국항공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大會)에는 전국 10여개 지역의 예선대회를 거친 2 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입상자(入賞者)에게 시상(施賞)을 하고 있는 참모총장(參謀總長)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



입상자(入賞者)들의 헬리콥터 탑승(搭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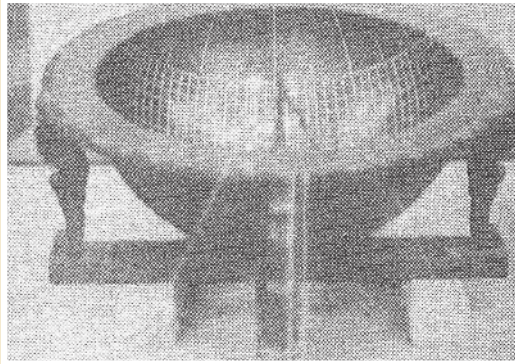
새 시대(時代) 새 문화창조(文化創造)의 정신적 지주(精神的 支柱)

세종대왕(世宗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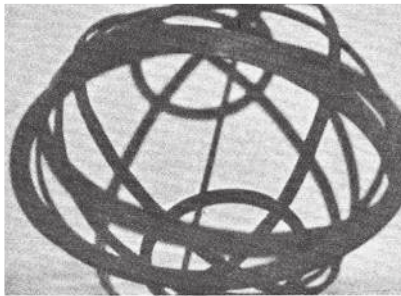
= 탄신(誕辰) 588주년(周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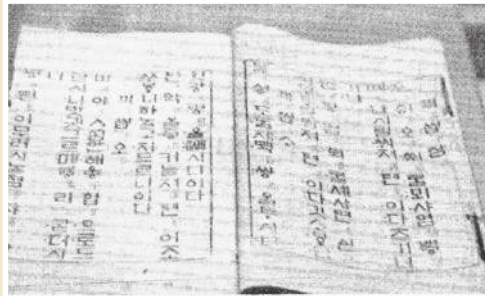
연주에 사용하던 관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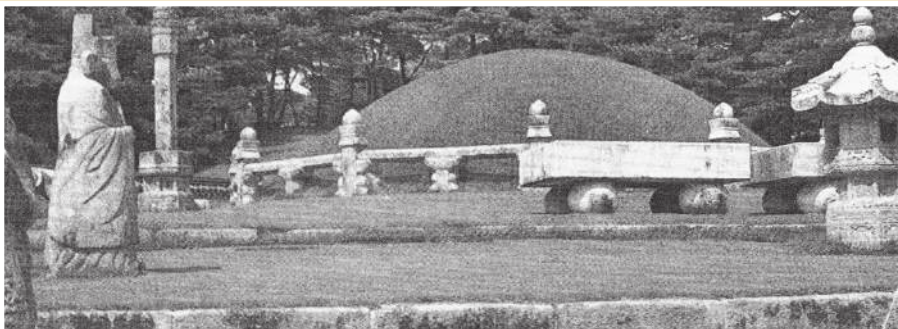
청동으로 만든 해시계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혼천의(渾天儀)



초기(初期)의 국문(國文) 자료(資料)



오늘날 우리의 새 시대(時代)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능은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목 차(目次)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이은봉(李殷鳳) (3)

논단(論壇)

역경시련(逆境試鍊) 극복한 민족(民族)의 방패(防牌) 이용상(李容相) (5)
한글 그 우수성과 논리의 독특성..... 신방현 (11)
중공(中共)의 대(對) 북한정책(北韓政策) 전망(展望) 서성우(徐成雨) (18)
선진경제(先進經濟)에의 도약(跳躍)과 선행과제(先行課題) 조장훈 (26)

정훈교육자료(政訓教育資料)

군인정신(軍人精神)에 관(關)한 연구(研究)..... 이룡현(李龍煥) (34)
예절(禮節)바른 언어생활(言語生活)과 질서(秩序)의식(意識) 편집실(編輯室) (44)
개천절(開天節)과 창조(創造), 개척(開拓)의 호국정신(護國精神) 박문송(朴文松) (49)
인구증가(人口增加)의 심각성(深刻性)과 문제점(問題點) 정병섭 (55)
훌륭한 사회인(社會人)은 절도(節度)있는 가정(家庭) 교육(教育)에 이성호 (62)
북한(北韓)의 신문(新聞)과 방송(放送) 편집실(編輯室) (67)
현대산업(現代產業) 사회(社會)에 있어서 급진변혁논리(急進變革論理)와 소외(疎外)의 극복(克服) 이정규(李正奎) (73)

군사지식(軍事知識)

프랑스의 핵전력(核戰力) 현황(現況) 정용진(丁龍鎭) (81)
미(美)·소(蘇)항공기(蘇航空機) 전파첩보전(電波諜報戰) 편집실(編輯室) (92)
미(美)·소(蘇) 핵전쟁(核戰爭)과 당면과제(當面課題) 이선호(李善浩) (100)
관리과학(管理科學) 모형(模型)의 실용성(實用性) 고찰(考察) 조영철(曹永喆) (108)
북한(北韓)의 교육실상(教育實像) 편집실(編輯室) (117)
올바른 이해(理解)를 위(爲)하여, 1문 1답(1問 1答) 편집실(編輯室) (135)

역사(歷史)의 인물 정준귀(鄭俊貴) (142)

법률상식(法律常識) 김건석(金建錫) (153)

마음의 양식

건강상식(健康常識) 장재화 (168)

수필(隨筆)

○ 내우외환(內憂外患)을 평정(平定)한 최영(崔瑩) 장군(將軍) 편집실(編輯室) (171)

○ 산성식품(食品)과 알칼리식품(食品) 김용직 (176)

○ 나비처럼 꿀벌처럼 편집실(編輯室) (180)

○ 잊혀지지 않는 추억 권광주 (183)

○ 기도(祈禱) 박재삼(朴在森) (185)

○ 한 해가 저물며 편집실(編輯室) (186)

○ 석양(夕陽) 김영희 (187)

공군

통권 제 195 호

1985년 제 4 호

참모총장통솔방침
參謀總長統率方針

정병강군(精兵強軍)이 되자

필승의 정신전력
必勝의 精神戰力

필승의 기술, 기량
必勝의 技術, 技倆

필승의 지휘, 관리
必勝의 指揮, 管理

공군본부 (空軍本部)

진군 37주년

막강한 우리 공군



◇ 권두언(卷頭言) ◇



성실(誠實) 그리고 실천(實踐)

정훈감(政訓監) 공군대령(空軍大領)
이 은 봉(李殷鳳)

하늘은 질푸르고 소슬한 바람과 함께, 기름진 땅에는 오곡(五穀)과 백과(百果)가 결실을 맺어 그 완성(完成)의 무게로 더욱 겸허(謙虛)하게 머리를 숙이는 계절이 왔다. 땀 흘려 씨앗뿌리고 보람으로 거두는 수확(收穫)이야말로 내일(來日)에 대한 예비(予備)가 있어 인간이 갖는 가장 원초적(原初的) 인생의 기쁨이리라.

우리에게 어김없이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 대자연(大自然)의 질서(秩序)는 이처럼 숭고(崇高)하고 아름다우며 겸허(謙虛)하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위도 선(善)을 향한 질서에 순응(順應)하고 꾸밈없이 노력할 때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는 논어(論語)에서 ‘교언난덕(巧言亂德) 소불인(小不忍) 즉란대모(則亂大謀)’(공교(工巧)한 말은 덕행(德行)을 파괴하고, 작은 일을 견디지 못하면 큰 계획을 잃게 한다)라고 하여 말 보다는 사람의 실천력(實踐力)을 중요시하고 큰 일을 위해 작은 어려움을 견디어야 함을 강조했다.

성인(聖人)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인간(人間)은 자기자신을 과장(誇張) 표현하려는 심리적(心理的) 경향(傾向)이 있다.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모두들 애국자연(愛國者然)하며 자기자신을 가장 바람직하고 참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닌가 한다.

지식(知識)의 차원(次元)에 있어서 우리는 선진국(先進國) 수준에 달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內容)을 실생활을 통해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공직자(公職者)는 공명무사(公明無邪)하고 정직하고 성실(誠實)하게 직무에 충실하자, 국민(國民)은 납세(納稅)의무를 정직하게 지키자, 외제(外製)물건을 사지 말자, 거리에서 질서를 지키자, 자주국가(自主國家)의 국민(國民)으로서 긍지를 갖자 등 수십, 수백 가지의 긍정적(肯定

的)이고 훌륭한 구호(口號)를 만들고 만장일치(滿場一致)의 가결(可決)을 하는 식으로 열심히 크게 떠드는 것으로 사회(社會)의 분위기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의 내용(內容)이 생활(生活)을 통해 실천되지 않는 한 사회(社會)의 체질(體質)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평가(評價)하면서 말(言)이 실천되어 이루어지는 (성(成))것을 '성(誠)'이라고 했던가 보다.

나날이 치열(熾熱)해지고 있는 국제경쟁 속에서도, 조국선진화(祖國先進化)의 기치(旗幟)를 들고 온 국민(國民)이 건전한 노력을 경주(傾注)해온지 여러 해가 지났다. 이제 선진화(先進化)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적(國民的)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함이 없이 생산적인 면에 집중투자(集中投資)함으로써 기쁨의 수확(收穫)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토가 분단되어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으로 방대한 병력(兵力)이 대치(對峙)하고 있는데 다 좁은 국토(國土), 비약한 부존자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人口密度) 등(等)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화(先進化)의 대역사(大役事)에 몸부림치는 이 조국(祖國)에 몸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우리의 일상활동(日常活動)이 나라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생산적(生產的)인 것인가에 대해 겸허(謙虛)한 자세로 자기자신(自己自身)을 거둬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죽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조국(祖國) 하늘이 늘 높고 푸른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항상 젊고 건강하므로 그 푸르름을 잃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이다.

영국(英國)의 문호(文豪) 디즈레일리(W. Diskily)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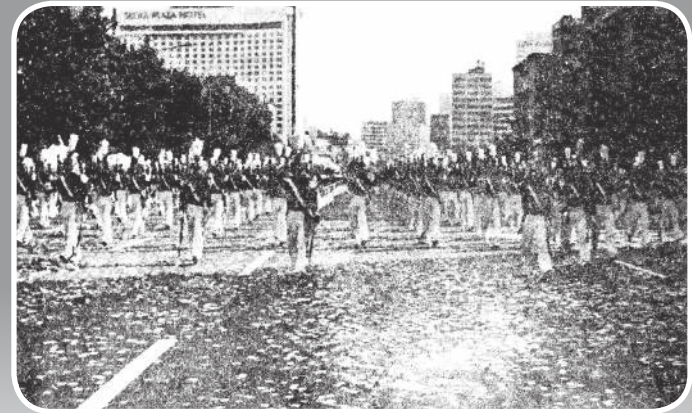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성실하라,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곧 성실(誠實)이다”

논단(論壇)

역경(逆境)

시련(試練)

극복한 민족(民族)의 방패(防牌)



- 국군(國軍) 앞에 전진(前進)과 승리(勝利)의 영광(榮光)뿐 -

이 용 상(李容相)
(전 문교부 : 예술국장)

고난(苦難) · 역경(逆境)속에서 성장(成長)

- 반공(反共) · 애국애족(愛國愛族)의 결정(結晶) -

자랑과 보람, 그리고 새로운 다짐속에서 우리는 모습도 늙름한 건군 37돌의 「국군(國軍)의 날」을 맞는다.

지축(地軸)을 흔들며 보무(步武)도 당당하게 펼쳐지는 육군(陸軍)의 위용(威容)과 하늘과 바다에서 또한 그 용자(勇姿)를 마음껏 과시(誇示)하며 호국의 간성(干城)뒀을 확인해주는 우리

의 국군, 생각할수록 믿음직스럽고 장(壯)하고 마음 뿌듯하기만 하다.

북괴(北傀)의 끊임없는 도전과 침략적(侵略的) 야욕은 변함이 없고 주한 미지상군이 점차로 물러가려는 상황속에서 실로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주축국군(主軸國軍)」 되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기필코 이룩해야 할 자주국방과 총력안보의 가늠쇠로서의 우리 국군의 더욱 앞찬 발전(發展)은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 앞에 제기(提起)되고 있다.

우리는 지나온 군(軍)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빛나는 전통을 바르게 계승하고 막중한 오늘의 과제를 굳건한 사명감으로써 기어코 이룩, 더욱 막강한 국군으로 성장 발전해야 하겠다.

돌이켜 볼 때 지난 35년동안 우리 국군이 걸어온 발자취는 한 마디로 공산침략자들과의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창군(創軍) 초기의 공비소탕작전과 처절했던 3년간의 6. 25동안, 그리고 8년여에 걸친 월남전(越戰)의 참전 등 공산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국군용사들은 가는 곳마다 용맹(勇猛)을 떨쳐 무적(無敵)·상승국군(常勝國軍)의 빛나는 전통을 굳게 지켜왔다.

오늘날 우리 국군이 세계 제4위의 막강한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기까지는 이렇듯 이 나라 젊은이들의 피나는 대공투쟁(對共鬪爭)과 고귀(高貴)한 희생의 밑거름이 있었음을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군의 전통과 위용은 일찍이 건군 초기의 숭한 시련을 딛고 이룩된 것이라는 점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여·순반란사건은 한마디로 해서 건군 초의 국군에게 몹쓸 가지발길이었고 뼈에 사무친 시련이었던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발호하던 적색세력(赤色勢力)은 국군내에까지 침투(浸透)하여 끝내는 반란사건까지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군의 바르고 앞찬 발전을 위해서 유효한 투약(投藥)의 역할(役割)을 했을지언정 공산분자들이 노렸던 궤멸(滅亡)의 약체화(弱体化)는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군은 이를 계기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성과 함께 단호한 숙군작업(肅軍作業)을 통해 군의 반공태세(反共態勢)를 가일층 가다듬고 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도 우리 군은 숙군(肅軍)·정군(整軍)을 거듭하면서 그 바탕을 다져 나왔고 그래서 6. 25 북괴남침을 맞이해서는 정신적으로는 반석처럼 굳어진 반공정신 아래 우세한 적(敵)과 맞서 백척간두에 선 국가·민족의 명운(命運)을 지탱하고 조국의 오늘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했던 건국초창기의 흥여(興)가 없었던들 우리의 군대가 6. 25때 과연 그처럼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겠는가 하고 돌이켜 보는 것은 비단 이 한 사람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군일천(建軍日淺)한 역사 속에서 당한 6. 25 기습남침만해도 우리의 국군은 곧 전장속

에서 싸우면서 늠름하게 성장해온 것이다. 그것은 반공(反共)의 자장가를 들으며 제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국군은 공산주의 침략의 포성 속에서 뼈를 굳혔고 어른으로 커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휴전 이후 오늘날까지 30년, 그간 월남의 자유수호전선에서 또한 귀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반공의 침병으로 이제 세계(世界)에서 막강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전통(傳統)으로서 비단 외부(外部)로부터의 침략(侵略)에 대처(對處)해서 국권을 수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국가민족의 명운(命運)과 진로(進路)를 바로잡고 그 무궁한 발전을 다짐케 하는 파수병으로 또는 선봉(先鋒)에서 역무(役務)를 다해온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자아의식(自我意識)이 발돋움

- 북괴(北傀) 적화(赤化)야욕 버릴 때까지 -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61년 5월 16일, 또 당시 우리 군(軍)이 난마(亂麻)와 같이 헝클어지고 갈피를 못 잡던 당시의 국정과 혼란이 극(極)한 사회상을 바로잡지 못했던들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지탱될 수 있었고 또한 오늘의 이 보람찬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지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또 절실한 것으로 다가서기만 한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모로 복잡하고 미묘한 세계 정세(情勢)속에 도전(挑戰)과 시련(試鍊)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뚫어야만 하는 것이며 또한 기어코 극복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우리가 한시도 방심(放心)할 수 없는 것은 휴전(休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남침(南侵)야욕은 조금도 변치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경화일로(硬化一路)를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휴전협정체결 30년이 흘려간 올 6월말 현재 북괴가 자행한 도발건수가 총 7만 6천 2백여 건에 달할 만큼 도발(挑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괴는 우리나라의 IPU 총회와 ASTA회의, 86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 등 서울에서 개최(開催)될 각종 국제행사를 사전에 저지(沮止)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육상(陸上)과 해상(海上), 그리고 공중(空中)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事態)들, 임진강과 월성해안(月城海岸)으로 침투하던 무장공비(武裝共匪)를 현장에서 섬멸하는 철저한 경계와 지난 8월 7일, 귀순한 중공기를 맞아 즉각 출격하여 완벽한 영공(領空)기동으로 영공수호(領空守護)의 완벽함을 보여주었다.

또 8월 13일, 동해안 울릉도 근해로 침투하던 북괴간첩모선(北傀間諜母船)을 격침하는 우리

해군(海軍)의 기민한 영해수호를 통해서 육군과 해군, 공군이 지닌 각기의 기능과 직분(職分)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확신해 주고 있다.

이 같은 복귀집단의 도전은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말살을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운(國運)의 문제인 동시에 당면해서는 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제반 노력(努力)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주한 미 지상군이 언젠가는 단계적으로 감축이 될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당초부터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해 또한 실제적인 전쟁억제 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友邦)에 대한 공약(公約)준수의 상징으로써 계속 주둔해 있어야 함을 인식(認識)하고 또 그렇게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젠가 그 군대를 단계적으로 빼내 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만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스스로 조국방위를 맡고 나설 국군의 강건(強健)한 전력(戰力)유지가 절실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미군이 감축내지는 철수할 것이라는 데 발맞춘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는 나의 생존권(生存權)을 내 손으로 지키려는 자주자립(自主自立)의 의지(意志)요, 또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파(世波)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자주국방이라는 자아의식(自我意識)과 새로운 발돋움을 다짐하게 된다.

물론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우방(友邦)이자 동맹국(同盟國)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냉철하게,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정한 세계정세의 추리에 새로운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둘이켜,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과 태세는 급작스럽게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방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맡겨져야 한다는 징조는 이미 닉슨 독트린에 의해 나타났고 그 산 교훈(教訓)은 월남전을 통해서 절실하게 배워온 터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탁월한 식견과 선견지명이나 경륜과 결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의 화합(和合)으로 그 운명과 진로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6.25때 그에 적절히 대응했던들 그같은 엄청난 비극과 참화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의 희생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유비(有備)면 무환(無患)이요, 무비(無備)면 유환(有患)이란 사실을 우리는 익히 배웠다.

몸에 안 맞는 옷은 재구실을 다할 수 없듯이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군(軍)은 한국의 방위에 만전을 다하기 어렵다 함은 새삼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군은 창군(創軍)과 더불어 미국을 모델로 해서 발전해 왔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충성(忠誠)으로 다져진 필승(必勝)의 신념(信念)

-빛나는 전통(傳統)의 계승 그리고 발전(發展)을-

이제 우리는 오늘의 국군(國軍)을 성장시켜 오면서 그때그때 그 실정(實情)에 맞지 않는 점들을 과감히 바로잡아 왔으나 아직도 제 옷을 입혀 우리의 것으로 소화(消化)시켜야 할 분야(分野)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먼저 물량위주(物量為主)의 작전(作戰)을 하는 미식(美式)보다는 우리가 그간 6.25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공비소탕작전 등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教訓)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알맞은 국군의 전략전술을 창조(創造)해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바람직스럽고 또한 합리적(合理的)이라 하겠다.

간략하면서도 기동성(機動性)이 있고 능률적(能率的)인 편제(編制)로 개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국군이 지향(指向)해야 할 방향이라 하겠다. 또 그것이 국군의 군대로서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무생활(內務生活)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명랑(明朗)하고도 충실한 내무생활은 곧바로 사기(士氣)와 전투력의 근원이라고 할 때 불합리(不合理)하고 정신적 육체적 곤욕내지는 부담감 등을 일소(一掃)하고 어디까지나 형제애(兄弟愛)·전우애(戰友愛)와 상하(上下)간의 신뢰감이 한데 어울려 일체감(一體感)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병영(兵營)에서는 항상 근검절약하며 이것이 부모형제(父母兄弟)의 피땀어린 성원(聲援)이란 생각을 갖고 명랑(明朗)한 분위기 속에서도 엄중(嚴重)한 군기(軍紀)로서 그 기강이 확립됨은 물론 끊임없는 체력단련(體力鍛鍊)으로서 전력을 향상·도모함으로써 그 모습은 한결같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게 돋보일 것이다.

오늘에 빛나는 막강국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정진이 필요하며 날로 창의(創意)·과학화(科學化)하는 군대로서 그 질(質)을 높여 나가는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명실상부한 과학화 된 군(軍)을 위해서는 면학(勉學)과 연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물론 안되겠다.

오늘날 고도(高度)의 수준(水準)에 오른 방위산업의 발전(發展)을 통해서 우리는 군(軍)의 과학화(科學化)의 보람찬 결실을 살필 수 있는 터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전력(戰力)은 더욱 놀랍게 증강될 수 있을 것이요 사회 내지는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군인(軍人)의 길」 그 주문(主文)의 첫머리는 충성(忠誠)의 길을 부각시키고 있다.

몸과 마음을 조국(祖國)에 바친다는 실천요강(實踐要綱)이 따라붙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자.

오늘의 국군장병들이 바쳐야 할 충성(忠誠)이란 물론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그 국민(國民)을 위한 것이며 우리 국민(國民) 모두는 충성(忠誠)의 길을 걸으려는 국군(國軍)을 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뒷받침할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굳이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적(敵)은 전략적(戰略的)으로 경시(輕視)하되 전술적(戰術的)으로는 중시(重視)해야 한다는 교리(教理)이다. 이는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으로써 싸움터에 임하되 개개의 싸움에서는 적(敵)의 역량(力量)을 알몸이 없이 모든 힘을 다해 최후의 승리(勝利)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전쟁(戰爭)의 원리(原理)이다.

교활한 공산주의자 특유의 함정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기습, 복병, 우회, 후방교란 등은 그들의 특유한 전술이다. 때문에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되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전력(全力)으로써 대처(対処)하는 지략(智略)을 갖춰야 하겠다.

끝으로 우리는 국력배양과 자주국방에의 국민적(國民的) 결의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때 맞는 국군(國軍)의 날의 서른 다섯 돌은 특별한 의의(意義)가 있음을 거듭 되새기면서 국군(國軍)의 무한한 발전(發展)과 장병(將兵)들의 앞길에 배전의 무운(武運)과 승리(勝利)의 영광(榮光)이 있기를 진심으로 빈다.

논단(論壇)

한글 그 우수성과 논리의 독특성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과 발전과정



신 방 현
〈단국대학교 대학장〉

~ 훈민정음 창제의 두가지 동기 ~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먼(간접적) 동기이고 하나는 가까운(직접적) 동기이다.
먼 동기 : 옛날 우리나라 한아비들은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써 글자생활을 해왔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말을 한자로 표기한 「한문」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자로써 우리말을 적어서 글자생활을 꾸려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다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한문을 쓰려면 첫째, 중국말의 낱말과 문법을

배워야 했고, 그 어려운 한자를 알아야 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난관 때문에 한문은 특별한 재주와 특수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 아니고서는 좀처럼 배워 쓰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 말을 한자로 적는 일은 한문 쓰는데 비하면 한 가지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

곧 중국말을 배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지만 어려운 한자를 배우는 어려움은 역시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먼 우리 한아버들은 글자를 쓰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한아버들은 한자로써 우리 말을 적는 방법을 개척하려고 애를 썼다.

중국말은 원래 한 낱말을 한 글자로 써 나타내는 낱말글자(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자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 말의 낱말을 한자로 나타내기도 했다.

「봄」은 춘(春)으로, 「사람」은 인(人)으로 나타내는 따위의 방법을 썼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춘(春)과 인(人)은 각기 봄과 사람으로 읽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겨났다.

그것은 우리말과 중국말이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중국말은 「고립어」라는 종류에 속하는 언어이어서 우리말의 토씨나 풀이씨(용언)의 씨끝(어미)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말을 적은 글자도 물론 없다.

「사람이 범을 잡았다」란 우리말을 한자로써 적으려면 사람은 인(人)으로, 범은 호(虎)로, 잡(다)는 포(捕)로 적어지지만 「이」·「을」·「았」·「다」와 같은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는 없다.

한자로써 우리말을 적는데 큰 난관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한아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었다.

한자가 가진 소리를 그 뜻과 관련시키지 않고 이용하거나, 또는 그 뜻을 아주 단판으로 이용한 것이다.

「을(乙)」자는 본디 고기의 배알(창자)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그러한 뜻과는 전혀 관련시키지 않고 그 소리만을 따서 우리 말의 「범을」의 「을」을 적는데 이용했다.

그러하여 「범을」은 「호을(虎乙)」로 적었던 것이다. 또 「시(是)」자의 뜻은 「이」이고 소리는 「시」인데 이 글자의 뜻인 「이(것)」을 아주 단판으로 이용하여 「사람이」의 「이」를 적는데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이」는 「인시(人是)」로 적었다.

다음으로 「잡았다」의 「았」은 원래 「있다」의 「있」이 변화한 것이므로 이것은 「유(有)」로 적고 「다(多)」나 「여(如)」로 적었다. 그리하여 「잡았다」는 「포유다(捕有多)」와 같이 적었던 것이다.

우리 한아버들은 뜻글자인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소리글자인 음절글자를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서 음절글자를 만들어 보았으나 우리 말은 음절글자로 적기가 무척 어

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한아버들은 알게 되었다.

우리말의 음절의 구조는 중국말의 그것과 매우 다르며 또 그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한아버들은 한자로써 우리말을 적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될 국면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먼(간접적) 동기가 있다.

~ 민족자주정신의 소유자, 세종대왕 ~

가까운 동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그 먼 동기는 한자를 빌어 우리 말을 적을 수 없었다는데 있는데 그 가까운 동기는 세종의 훌륭한 정신과 뛰어난 영도력에 있다.

세종은 그때로서는 드물게 볼 수 없는 민족자주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때의 지식인들은 중국만이 훌륭한 나라요, 중국문화만이 본받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중국과 같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글자까지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라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임금은 우리를 중국사람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역설하였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임금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 글자로 우리말을 적을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정신의 표명이다.

말과 글이 중국과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그 서리에서 세종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며 우리 말은 중국 말과 달라서 그 글자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민족자주정신의 나타남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가 세종임금을 높이 받드는 그 첫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세종은 철저한 민본정신의 소유자였다.

백성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의 고통으로 여길 줄 아는 임금이었다.

세종은 임금의 자리에 앉아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니 자기로서는 한문으로 글자생활을 해 나가는데 별로 불편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글자생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많은 사람들이 한자로 쓰는 데서 겪는 고통을 짐작하여 새로운 글자-우리말을 바로 적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를 결심하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끝끝내 그 뜻을 이루어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는 일이 있어도 제 뜻을 펴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이를 딱하게 여겨 새 글자를 만든다」고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민본정신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종임금은 이렇게 훌륭한 민족자주정신과 민본정신의 소유자인 동시에 자기자신 뛰어난 언어학자이었고 또 뛰어난 영도력을 가진 분이였다.

세종임금은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였다.

학자들을 시키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바로 소리의 이치를 연구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본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청주 초청으로 요양하러 가면서도 훈민정음에 관한 문헌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며 또 최만리를 친히 국문하면서 「너희들은 소리에 관한 이치를 아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세종은 그 자신이 언어학자이었을 뿐 아니라 학자를 모아 연구에 전념하게 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니 대왕은 뛰어난 영도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현전에 학자를 모아 연구하게 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익히 아는 일이며 신숙주, 성삼문을 중국에까지 보내어 소리의 이치를 연구해 오도록 한 이야기는 모두 잘 알려진 일이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민족자주와 민본정신 그리고 대왕의 학자적 자질, 나아가서는 그 뛰어난 영도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 논리정연한 한글 스물 여덟 자 ~

훈민정음의 글자꼴이 어째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인도의 산스크리트 글자를 본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옛 글자를 본받았다고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몽고글자를 본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해례」가 나타난 뒤로는 이러한 추측들은 완전히 잘못임이 밝혀졌다. 훈민정음은 모두 스물여덟자이다. 그중 초성이 열일곱자, 중성이 열한자인데 우선 초성을 만든 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기로 하자.

초성은 그 나는 자리에 따라 다섯가지로 나뉜다.

- 어금닛소리 - ㄱ ㅋ ㆁ
- 혓소리 - ㄷ ㅌ ㄴ ㄹ
- 입술소리 - ㅂ ㅍ ㅁ
- 잇소리 - ㅅ ㅆ ㅊ ㅌ
- 목소리 - ㅇ ㆁ ㆆ

이것을 오음(五音)이라 하는데 오음중에서 가장 약한 소리를 하나씩 가려서 이 소리를 적는 글자부터 만들기로 하였다. 어금닛소리 중에서 뽀뽀한 소리는 ㄱ소리인데 이 글자꼴은 이 소리를 낼 때 혀의 뒤쪽이 어린 입천장에 닿아서 꼬부라진 모양을 본뜬 것이다.

혓소리 중에서는 ㄴ이 뽀뽀했는데 이 글자는 혀끝이 잇몸에 올라 닿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입술소리 중에서 뽀뽀한 ㅁ은 입술을, 잇소리 중에서 뽀뽀한 ㅅ은 이의 줄은, 목소리중에서 뽀뽀한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각각 그려서 만들었다.

다음으로 이 다섯 으뜸글자를 토대로 하여 그 소리가 쓰여지는 차례를 따라 각각 획을 하나

씩 덧붙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한 예를 들면 ㄱ보다 ㅋ이 그 소리가 세므로 ㄱ에 한 획을 더 붙여 ㅋ을 만든 따위이다.

- ㄴ → ㄷ → ㅌ
- ㅁ → ㅂ → ㅍ
- ㅅ → ㅆ → ㅊ
- ㅇ → ㆁ → ㆆ

따위도 모두 그러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만 ㆁ과 ㄹ과 ㅁ은 그저 ㅇ·ㄴ·ㅅ의 꼴로 약간 바꾸어 만들었다.

중성은 그저 세소리를 가려서 이것을 각각 하늘·땅·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는 하늘을, ㅡ는 땅을, 丨는 사람을 본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하늘을 둥글고 땅은 평평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丨는 사람이 서있는 모양이다. 나머지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ㅁ), (ㅂ), (ㅍ), (ㅅ), (ㅆ), (ㅊ), (ㅌ)는 모두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보니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 최초의 착상은 매우 위대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글자와 비교해 보면 다른 글자는 모두 자연발생으로 생겨났거나 남의 것을 빌어서 쓴 것들이어서 매우 무질서하고 어수선한데 오직 우리 글자만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져서 질서정연하게 되었으니 우리 글자는 세계에서 가장 잘된 글이라고 이름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아버들의 슬기를 자랑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다. 이렇게 훌륭한 글자인데도 우리 겨레는 이 글자를 잘 부려 쓰지 못했다. 우선 세종이 이 글자를 만들어 퍼려 할 무렵, 최만리를 비롯한 몇몇 신하들은 이 글자 만드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그 이유인 즉, 첫째는 중국의 좋은 글자를 두고 무엇때문에 천하고 상스러운 글자를 만드느냐는 것, 둘째는 언문(한글)을 배우면 성현의 학문을 못하게 된다는 것, 셋째는 이러한 사실이 중국에 알려 지더라도 하면 부끄러운 일이란 것들이다.

모두 어리석은 선비들의 잠꼬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으나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은 친히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자 감옥에 잠깐 가두기까지 하면서 이 글자를 천하에 퍼내게 된 것이다. 그 뒤 한글은 왕가의 보호아래 순조롭게 쓰이게 되었다.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문학작품이 나오고 많은 불경 성경과 중국의 문학작품까지 번역이 되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는 된서리를 맞게 되었으니 그의 죄상을 쓴 글이 한글로 되어 있었으므로 죄인을 잡기 위하여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조리 문초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로 된 책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한글보급은 큰 타격을 겪게 되었으나 그 명맥은 끊기지 않고 민중속으로 스며들어

서 모든 국민의 애호를 받아 수백 년을 자라온 것이다.

한글이 역사의 표면에 떠오르게 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이다. 그전에 있어서는 한글은 공용문서에 쓰이지 못했던 것인데, 이때부터 비로소 공용문서에 한글이 쓰이게 되고, 유길준은 그의 저서를 국·한문 혼용으로 적어내고 서재필을 영도자로 하는 독립협회에서 낸 독립신문은 한글만으로 찍혀 나오고 주시경선생은 말과 글의 정리가 나라의 흥망과도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연구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우리 말과 글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나 이때 또한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 닦쳐던 것이다.

일본 침략이 그것이다.

일본 침략자들은 말과 글이 겨레의 정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한국적인 얼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 말, 우리 글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주시경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학자들은 조선어 연구회(→조선학회→한글학회)를 만들고 우리 말과 글의 학리를 연구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6년에는 표준말 모음을, 1941년에는 외래어표기법을 내는 한편 1929년부터 시작한 사전편찬의 일도 계속 추진하여 1942년경에는 거의 원고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 무렵 소위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일본은 불리해 가는 전세에 초조함을 느끼게 되어 1936년에는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내려 우리 애국지사들을 연금상태에 두고 1938년에는 조선어과목을 전폐하여 이름 뿐이던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없애고 1940년에는 우리에게서 성과 이름을 뺏고 애국지사들을 투옥하고 조선·동아 두 신문을 폐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감행해 내려온 그들은 1942년 드디어 한글학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투옥하였으니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그들은 악독한 고문질을 자행하여 한장·이운재 두 분의 국어학자를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 한글 발전에 적극적 관심을 ~

해방이 되었다.

이젠 마음 놓고 우리 말, 우리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국민학교에서 중·고등·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ㄱ, ㄴ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때에 그 기반이 된 것이 한글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맞춤법과 표준말이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해방 뒤의 국어교육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방면의 민족교육이 그렇게 빨리 재출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글에 큰 관심을 쏟기 시작하여 1948년에 이미

한글 전용의 법령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1970년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가로 쓰되 표준말로 하라는 법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역사의 진전에는 반드시 보수세력의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다.

한글이 나아가는 길에도 반대는 예외 없이 나타난다.

이 반대는 두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한글만 쓰려는 역사적 진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반대이다.

한자는 초창기의 우리 문화를 길러주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이젠 그 글자의 원시성 때문에 세계문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쓰던, 또는 쓰고있는 나라는 예외 없이 이 글자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월남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중국 자신이 그렇다.

1970년의 법령이 지지하는 대로 한글만으로 가로 쓰는 일, 이 길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지 않다.

이러한 한글전용의 글에는 얻는 것만 있을 뿐, 잃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명언(名言)

의심해야 할 데에서 의심하고, 단언해야 할 때에 단언하고, 굴복해야 할 때에 굴복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성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세가지 원칙에 대하여 그르치는 자들이 있으니, 혹은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단언하여 증명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모든 것을 의심하여 어떤 데서 굴복해야 하는 지를 모르고, 혹은 모든 일에 굴복하여 어떤 곳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 파스칼의 「팡세」 중에서 -

경험은 사랑의 아들이오,
사랑은 행동의 아들이다.
책에서 인간을 배울 수는 없다.

- 디즈레일리 -

논단(論壇)

중공(中共)의 대북한(對北韓) 정책 전망(政策 展望)



서 성 우(徐成雨)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平和統一研究所 研究委員)〉

이 글은 안보논단(安保論壇)으로서 평화통일연구소(平和統一研究所) 서성우(徐成雨) 연구위원(研究委員)이 월간지에 게재한 글에서 발췌했으며 내용(內容)은 중공(中共)의 대북한(對北韓) 정책전망(政策展望)이다.

I. 서언(序言)

우리민족이 남북(南北)으로 분단된 이래 북한(北韓)·중공(中共)·소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북방(北方) 3각체제(角體制)는 분단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돌이켜 볼 때, 지난 30여년간의 이들 3자(者間)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형제간(兄弟間) 단결(團結)」을 과시하던 3자(者)가 어느덧 중공(中共)과 소련이 적대관계로 변하고 북한(北韓)이 「자주노선(自主路線)」이란 것을 표방하는 상황에까지 다달았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중·소분쟁은 동맹(同盟)의 폐기로까지 발전하였고 북한(北韓)은 이를 악용하여 대(對) 중(中)·소(蘇) 등거리외교(等距離外交)를 적당히 전개하면서 양국과 동맹(同盟)·

협력관계(協力關係)를 적당히 전개하면서 양국과 동맹·협조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북방 3각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인식하여 왔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의 국제질서는 가장 유동적이며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많이 몰고왔다.

1972년 2월 21일 닉슨 미(美)대통령의 중공방문을 시작으로 미(美)·중공(中共)관계의 개선은 세계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도 새로운 역학관계를 조성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중공이 한국에 대한 기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80년 1월 25일 중공의 외교부장(外交部長) 황화(黃華)가 「80년대 국제정세와 중공(中共)의 대외정책방향」이란 당(黨)·군간부(軍幹部)를 대상으로 한 비밀 연설에서 북한을 「적(소련)의 친구」, 한국을 「친구(미국)의 친구」라고 지칭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문을 닫았으며 빗장을 걸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한이 「소련카드」를 가지고 계속하여 중공을 괴롭히면 중공으로서 「한국(韓國)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83년 5월 5일 중공(中共)의 국영항공사인 중국민간항공국(中國民間航空局) 소속 여객기의 한국 착륙으로 인하여 중공당국은 한국의 정식 국호를 공식으로 사용하면서 심도(沈滯)충국장을 단장으로 한 30여명의 중공대표단이 서울에 도착, 역사적인 한국(韓國)·중공(中共)간의 공식(公式)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중공은 정기적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한국과 교환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는 북한(北韓)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한국비행정보구역(飛行情報區)을 통과하는 동경(東京)·상해(上海)·북경노선(北京路線)을 개설함에 대해 한·일·중공간 합의(合意)가 이루어져 비행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중공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든가 북한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며 중공이 한국과 정치적(政治的)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 또한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중공은 피남중공기 사건이 타결된 직후 오학겸(吳學謙)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내 북한당국의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우호관계를 다짐한 점이나 북한이 피납기 사건에 침묵을 지키면서도 오(吳)의 방북(訪北)을 전후하여 그들의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중공과의 관계를 「형제와도 같은 관계」 「이(齒)와 입술(唇)과 같은 관계」라고 지칭, 쌍방간의 동맹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한(韓)·중공(中共)간의 급격한 관계개선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속에서 중공(中共)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政策)을 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중공(中共)의 대한반도(對韓半島) 정책(政策)

(1) 중공(中共)의 대한반도(對韓半島) 인식(認識)

중공의 한반도정책을 위해서는 중공(中共)의 정치(政治)엘리트들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

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공은 주변지역에 대해 내경(內境)(Inner Frontior)과 외경(外境)(Outer Frontier)이란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내경이란 중공(中共)의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외경이란 전통적으로 중국(中國)의 영향을 받았거나 중국의 문화권에 속하던 지역을 의미한다.

중공은 내경 내에 있는 지역을 내계(內界)로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다른 국가가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중공의 권익(權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공이 이 지역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나 주변정세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중공 스타일의 정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이 최소한 북경(北京)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중공은 이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중공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공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대륙과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충돌을 하지만 밀접히 연결되어 서로의 문화(文化)를 교류하여 왔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서 파생되어 중공(中共)이 한반도(韓半島)에서 지니고 있는 중요성(重要性)과 이익(利益)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가 만주의 공업지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의 안전과 관련하여 한반도가 중요성을 갖는다. 중공의 공업력은 만주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주의 공업력이 중공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주와 한반도는 바로 접해 있다. 그러므로 중공에 있어서는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가 되며 북한이 친중공적인 존재로 있게 됨으로써 큰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중공이 황하강, 양자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만주는 변방으로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다.

그럴 때는 한반도는 만주를 공략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주가 중국 본토가 된 뒤에는 한반도가 하나의 변방적 주변적 지역이 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한반도, 특히 북한은 중국본토를 보호하는 방풍지역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밀접성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완전히 적성화(敵性化)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중공지도자들은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생각의 행동화(行動化)가 6·25참전이라고 볼 수 있다.

1949년 가을에 통일공산정권을 세운 중공이 1년만에 1백만의 대군을 참전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한반도가 만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공에 있어서 만주가 중요하고 만주의 보호를 위해 북한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해양세력의 진출을 한반도가 막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는 일본세력과 대륙세력의 직접대결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거기가 어느 한쪽이 편입되면 세력균형이 깨지고 한반도는 팽창의 발판이 되어 왔다.

지금도 역시 한반도는 미(美)·중공(中共) 또는 일(日)·중공(中共)의 직접대결을 완충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중공에 있어서 북한은 해양세력을 저지시키는 방파제가 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중공식의 이념과 개발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과 북한은 비슷한 문화적·역사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정권획득과정에 있어 중공은 자생적인 과정을 밟고 북한은 외래적인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그것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방식과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 양자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공으로서는 중국식의 이념이 크게 받아들여지는 북한의 존재가 뜻이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에서 소련과 공동으로 접경을 하고 있으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거의 대부분은 중공과 접경하고 있으나 일부는 소련과도 접경을 하고 있다.

그것은 소련에 의한 포위를 당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친중지대(親中地帶)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소련의 영향아래 북한이 들어간다면 중공은 소련에 의해서 동남북으로부터 모두 포위되기 때문이다.

(2) 대한반도(對韓半島) 정책(政策)

앞에 제시한 이익과 중요성에 따라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이 결정될 것인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존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및 행동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존립이 중공의 존립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중공으로서는 북한의 보호에 적극적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공은 미국과 같이 서구적인 가치관에 따르는 타산적, 계산적인 판단에서가 아니라 동양적인 정의성(情誼性)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일관하여 지지하고 있다.

「외세의 간섭없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본래 미군의 철수가 관련된다.

그리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란 북한이 주도하는 혁명을 뜻한다.

이러한 북한의 노선은 중공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공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사회주의운동(社會主義運動)과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의 통일전선(統一戰線)에 의한 민족통일독립(民族統一獨立)(혁명(革命))에서 찾고 있다.

대(對)한반도정책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중공의 철학 및 원칙과 북한의 그것은 같은 것이다.

즉 통일과 관련된 중공의 대한반도정책은 공산세력에 의한 혁명인 것이다.

세제, 한반도에 있어서 특히 북한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공이 바라는 한반도상은 중공식의 혁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반소적(反蘇的), 반패권적(反霸權的)인 형태로 한반도가 중공권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중공은 한반도에 친소적(親蘇的)이거나 친미적(親美的)인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배격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중공이 취하게 되는 정책도 그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III. 중공의 대북한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보아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더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소련보다 중공이다.

그러나 8·15 해방 이후 오랫동안 중공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행동에 추종하고 동조하는 형태로 밖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당시 중공이 처하고 있던 내외의 상황과 여건 때문이었다. 즉 중공 공산당은 중국대륙으로부터 국민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1949년 10월 1일에 중공정권을 수립하였지만 국민당 정부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였고 대만점령이라는 문제가 목전의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내전 후의 내부인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이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이 소련이나 미국을 상대로 하여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나 세력권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공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시까지 북한과 중공간의 협력관계는 쌍무적인 직접관계라는 성격보다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공과 소련 간의 밀착관계로부터 파생된 간접관계 혹은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소련·중공·북한의 3각 관계 속에서의 쌍무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중공간의 밀착 및 「피의 유대」가 형성된 것은 역시 1950년 10월에 중공군이 한국전에 직접 투입되어 북한공산정권의 궤멸을 막아 준 이후부터이다.

북한의 중주국 및 보호국의 위치에 있던 소련이 김일성정권의 궤멸위기에라도 북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끝까지 회피하였던데 반하여 중공(中共)은 직접 참전하여 김일성정권을 보호해 주었고, 휴전 이후에도 1958년 10월까지 중공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면서 소련과 함께 막대한 경제·군사원조를 함으로써 중공은 북한에 대하여 소련과 대등한 입장과 영향력을 확보해왔다.

뿐만 아니라 중공은 한국휴전협정의 한 당사자가 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더 큰 발

언권과 우위의 입장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까지 소련, 중공, 북한 3자간의 관계는 소련·북한 간의 주종관계, 한국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피의 유대」 관계, 중·소간의 긴밀한 동맹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밀착관계가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중공과 소련의 이견과 마찰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격심한 분쟁, 적대관계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처음에는 중·소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였다.

1961년 알바니아문제에 관하여 북한은 중공과 동일보조를 취했지만 중·소양국의 어느 한쪽으로도 편향하지는 않았다.

1965년 중공의 월남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국제통일전선의 형성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중공과 북한관계를 소원 시켰으며 이것은 표면적으로 김일성과 월맹이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로 인해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은 양측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양측 대사를 소환함으로써 최악의 경우로 몰고 갔으나 1968년 후반부터 중공과 북한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9월 9일, 북한정권 창건 20주년에 중공의 주은래 수상(周恩來 首相)은 축전을 보내 「피로써 맺어진 쌍방인민들의 투쟁 관계가 부단히 계속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1969년 10월 1일 중공정권 창건 20주년에는 최용건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1970년 4월에는 주은래(周恩來)가 북한을 방문하고 중공이 북한의 안보를 공동으로 보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후, 중공과 북한 간의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IV. 중공의 대북한정책 전망

중공의 대북한정책은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 진척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만주지역에 대한 전초기지란 점에서 중공에게는 평장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소 분쟁 이후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밀착은 중공에게 큰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중공의 대외정책의 최대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소련진출을 봉쇄하는데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소련의 진출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쌍방관계는 북한의 중·소 등거리외교정책으로 인하여 70년대 후반 보다는 다소 침체되었지만 쌍방 밀월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을 놓고 벌이는 중·소 경쟁에서 중공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현저한 우세를 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1년 12월에 중공수상 조자양이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두차례의 북한대표단과의 회담과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쌍방 간의 관계 개선문제와 공동관심사에 관한 의견교환으로 「원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동맹 외교노선을 지지함과

아울러 고려연방안 실현 및 주한 미군 철수를 강력한 어조로 촉구하고 미국의 대북한 직접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조자양의 평양방문은 그간 노정되어온 쌍방 지도체제 및 노선에 대한 의견 조정, 협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을 중공측에 밀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2년 들어 중공의 대북한 군사·경제지원이 증가되었다.

중공은 소련제 MiG-21기의 개량형인 중공산 A-5전투기를 20대 내지 40대를 처음으로 북한에 제공했으며 1억달러 상당의 원조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공은 재정의 고갈상태, 인플레이션, 저경제 성장 그리고 4대현대화 계획의 추진 등으로 북한을 원조할 여유가 없는 형편인데도 상당한 원조를 했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또한 소련이 근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량을 1백만톤에서 50만톤으로 줄인데 반하여 중공은 북한에 대해 원유 공급 계약량이 50만톤이었는데도 80만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1982년에는 1백 50만톤으로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중공은 1982년 9월 16일~26일에 김일성을 초청, 수차례의 회담을 개최하면서 쌍방관계의 밀착을 과시하였다.

특히 금년 들어 김정일을 중공에 초청함으로써 김정일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중공의 대북한 정책을 볼 때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공은 중·소 대립이라는 여건 때문에 김일성의 주장을 꺾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철수문제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중공이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주한 미군철수 및 고려연방제에 관한 북한측의 주장을 계속해서 지지하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중공은 중국공산당 12차 대회에서 1인통치를 금지하고 개인숭배를 봉쇄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한다는 것과 어떠한 혁명수출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별하고 독자자주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중공의 이러한 정책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숭배 및 권력세습을 요란하게 전개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하고 불안한 노선임이 확실하다.

중공지도자들도 북한의 이러한 불안과 반발을 의식하고 경제·군사적인 원조와 북한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다.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중공의 공식적인 지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중공의 대북한정책은 중·소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자국의 영향권에 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으로서의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그들의 체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소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일 뿐 아니라 과거에 중공의 월남 응징,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등을 보아온 북한으로서는 반중, 또는 반소화에 따라 중·소가 가해올지 모르는 제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일방으로 편향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쟁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도 중립 내지 자주노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중·소에 대한 자주노선 내지 등거리외교는 중·소관계의 변화라는 점을 고려치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한국카드」라는 전략적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의 관계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겠지마는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점진적으로 시도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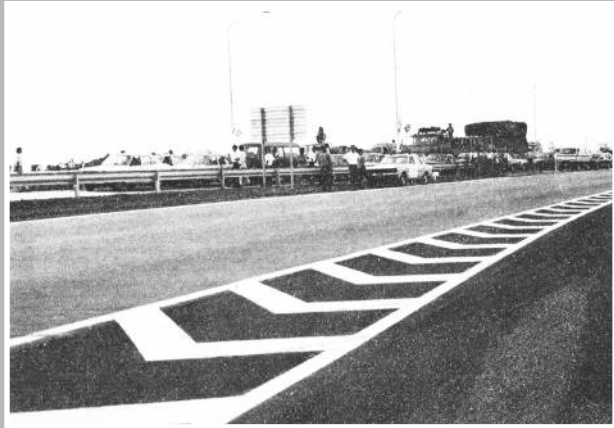
그러므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이며 자주적인 대 중·소외교를 전개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막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명언(名言)

만약 인간이 인류에 대한 고찰을 초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놀랄만한 결과를 포함할 수 있는 문제에 그들의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성(理性)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길 지도 모르며,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귀먹고 말없이 끌려갈지 모른다.

- G. 워싱턴 「육군 장교들에게 행한 연설 -

선진경제(先進經濟)에의 도약(跳躍)과 선행과제(先行課題)



조 장 훈
<세무사>

<1> 서언

지금 우리 경제는 크나 큰 전환점에 서있다고 하겠다.
우선 이미 기반을 다진 물가안정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인플레이의 악몽을 영구히 추방하는 계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오랜 불황의 시련을 극복하여 경기회복, 나아가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는 개방과 자율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무역량의 증가,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등이 우리 경제의 신장에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다.

<2> 60~70년대의 개발전략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특히 60년대는 70년대의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굳힌 개발연대로서 그 역할은 매우 컸고 또 실제로 훌륭히 해냈다.

우선 60년대 초의 개발계획은 시멘트·정유·비료 등 기간산업의 수입대체와 도로·철도·전력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이 두어졌다. 이 개발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자 그 다음으로 대외지향적 공업 정책, 바꾸어 말해서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내시장이 좁고 우리의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수출주도형의 대외지향적 개발정책은 이 기간 중의 세계 자유무역주의에 힘입어 크게 성공을 거두어 급속한 공업화와 고용증대를 가져왔다.

7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한때 주춤한 적도 있었으나 어려움속에서도 국민들의 굳건한 의지로 수출을 계속 늘려 나갔고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함께 이룩함으로써 60년대 초반까지의 전형적인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온 국민이 땀과 의지를 한곳에 모아 노력한 결과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성숙화, 내실화함으로써 선진 산업국가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해야 할 때를 만난 것이다.

앞으로 선진된 나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3> 선진화의 조건

그렇다면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선진경제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쉽게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를 연상할 수 있지만 꼬집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확립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과 후진, 또는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이나 산업구조 등 지표를 비교해서 분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경제 대열에 발돋움하려면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분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88년 올림픽 개최 이전에 이 기구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역·외환·자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화 및 개방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OECD는 이른바 서방 24개 공업국이 가맹하고 있는 개발협력체제이다. 가맹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2할에 해당하는 7억명에 불과하지만 세계공업 총 생산의 60%, 무역량은 70%,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은 없다. 가입된 후 OECD 협정문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할 태세만 갖추면 가능하다.

다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의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가입 그 자체보다는 가입 후에 따르는 의무의 이행문제가 더 크다. 가입이 되면 무역·외환·자본 등의 거래면에서 모든 것이 자유화되어야 한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국위선양과 외교적 성과는 물론 크다.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등 고도 공업국이라고 볼 수 없는 나라들도 OECD가맹국으로써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으로는 국내경제의 완전개방 및 자유화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해야 하며 우리의 국제수지가 나빠졌다고 하여 외환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우리의 경제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충격과 마찰을 감내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우리의 경제력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OECD에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이 기구의 가맹국들의 국력과 우리의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스위스」의 「유러피언·매니지먼트·포럼」지가 최근 OECD 가맹국의 경제, 사회지표를 담은 82~83년판 세계산업경제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신흥공업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우선 경제규모부터 볼 때 81년을 기준해서 우리 나라는 국내총생산(GNP)이 6백 57억 달러로, 6백 61억달러인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 안에서라면 15위권에 든다.

그러나 1인당 GNP는 훨씬 낮아 OECD의 평균 9천 5백 85달러의 6분의 1수준인 1천 6백 97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OECD 가맹국은 「터키」(1천 1백 74달러) 뿐이다.

한편 연평균 경제성장률(76년~81년)은 우리나라가 6.45%로 OECD의 연평균 2.76%보다 훨씬 높으며 가맹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일본의 4.78% 보다도 역시 높다.

물가의 경우 지난 76년~81년 중 우리나라는 연평균 18.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OECD의 평균은 9.1%, 이 기간 중 「스위스」는 3.3%의 상승을 기록함으로써 가장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으며 서독이 4.4%, 「오스트리아」가 5.2%, 일본이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는 「터키」와 「포르투갈」 뿐이다.

다음으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부문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GNP(국민총생산)의 2.3%를 투자하고 있다. 「스위스」 「일본」 「서독」 「영국」 등도 2%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0.6% 수준으로써 OECD 대로 따지면 18위 수준에 머문다.

가계지출 중 식품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율인 앵겔계수는 우리나라가 52.8% (80년)로 OECD의 평균 27.3% 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최하위인 「포르투갈」의 47.6% 보다도 높다.

이러한 지표상의 비교는 어디까지나 비교에 그치는 것이지 OECD의 가입요건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국력이 OECD의 가맹국의 중하위권의 국가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5〉 OECD가맹의 선행조건

자유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궁극적진대 개발과정에서 야기될 국내경제에 대한 충격과 마찰을 극소화 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물론 자유화로 국내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없지 않다.

외부로부터 경쟁이라는 자극이 전해오므로써 국내산업에 합리화·능률화 바람이 일고 가격경쟁이 촉진되며 한계산업이 도태됨으로써 자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체질이 그것을 수용할 만큼 강해야 한다.

수입자유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특정의 수입품목에 예상 외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국제수지에 커다란 영향이 미치지 않을 만큼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의 국산품의 질과 가격이 외제선호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가·기술개발·수출·수입·외채·저축 그리고 우리의 의식문제 등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자신을 갖지 않으면 비록 OECD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선진경제를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 과제들을 현황과 더불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감으로써 비로소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운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진공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협조가 한데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 물가

최근의 물가동향에서 우리는 물가안정이 일단은 정책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지난해에 도매물가 상승률이 2.4%, 소비자 가격 4.8%로 잡힌 데다가 올 들어서는 지금까지 2%를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들은 인플레이의 크나 큰 해독과 그로 인한 빠져린 고통을 술하게 경험했다.

그때문에 「물가란 오래 오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해 왔다. 또한 옴폭도 소득수준의 향상을 항상 앞지르는 것이었다. 그러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와 실질소득의 저하라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계와 생산여건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속에서의 성장은 결코 의미가 없다. 마치 불필요하게 살찐 사람에 비유할 경우 병에 약한 흠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최근의 물가안정은 그런 면에서 자못 뜻이 깊다.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성장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분기 우리경제는 9.3%의 성장을 달성했고 이어 2.4분기에는 9.8%로 치솟았다.

흔히 물가안정과 성장은 상충적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실제로 있어서 물가안정과 성장을 두 마리의 토끼에 비유함으로써 안정론과 성장론이 맞부딪쳐 격렬한 논쟁을 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안정도 구하고 성장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명제이므로 우리들은 그동안 이 두 과제의 달성을 정책의지로 삼아왔다.

지난해와 그리고 올해의 물가안정과 성장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했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노력했으며 농민들은 증산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에 힘썼다. 이 같은 국가적 노력과 합심으로 얻어진 값진 결과인 것이다.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하려면 물가안정이 정책단계를 넘어 우리경제에 체질화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어야 임금, 금리 등이 안정되어 기업이 계획경영을 하게 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되며 그것이 수출증대·투자의 확대·가동률의 제고·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또 물가안정, 소득의 실질증가를 틈타 충동적인 소비심리가 자극을 받기 쉽다.

지금이야말로 소비생활의 합리화,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절약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 외채의 적절한 관리

국내저축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저축 즉 외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원래 빚이란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좋으며 있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것이 건전한 경제를 꾸려 나가기 쉽다.

우리나라의 지난 연말 외채잔액은 3백 72억달러에 이른다. 또 앞으로도 더 들어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오는 86년까지 상환하는 것을 제외해도 그때에 가서는 외채액이 64백 45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외채문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러한 외채규모가 우리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외채의 상환능력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수출금액에 대비한 DSR(부채상환비율)로 표시되며 0.2를 안정비율로 잡는다.

우리나라의 DSR은 81년을 기준하여 0.13으로 평가받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안정권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몇몇 나라들이 외채의 상환불능사태를 빚었다.

결국은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융자로 발등의 불을 꺼 파국은 면했지만 이들 국가의 외채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훈을 주었다. DSR이 안정권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브라질」이 그 예로써 이 나라의 80년대 초의 DSR은 0.16~0.2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외채의 상환불능사태가 야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채관리방향은 명확해진다.

첫째는 수출증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외채의 씹뽀이를 줄여야 한다.

둘째는 국내저축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

정부는 외채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계속 추진 중이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거나 연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오늘 '86년의 외채잔액을 5백억달러로 줄이게 된다는 계산이다.

다. 수출과 수입

외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하여 외채를 갚아 나가는 방법과 수입을 최대한으로 줄여 외화의 씹뽀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다소 나아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수출업계의 동향을 보더라도 그 열의가 식은 것 같다.

흔히 수십 년에 걸친 해외수요 감퇴가 수출감퇴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사실 수출이란 수입국에서 물건을 사들여 가지 않으면 어려운 노릇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세계를 휩쓴 불황은 확실히 세계 교역을 위축시켰다.

또한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사이에 팽배해진 새로운 보호무역 풍조도 우리 수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후발국들이 우리나라를 맹렬히 추격 중에 있다.

한 마디로 무역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전해야 하는 장벽인 것이다. 우리의 수출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움츠러든 수출열의를 일으켜 과거에 보였던 역량을 또 한번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수입자유화를 높이자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격증한 사실은 우리의 외제선호심의 뿌리 깊음을 잘 입증해 주었다. 수입자유화의 참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첫째는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우리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고 우리 상품도 기술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를 사치성 소비재 수입으로 탕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심지어는 뱀 따위의 수입에 외화가 낭비되고 있음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 저축의 증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가 외채를 들여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국내저축의 뒷받침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저축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축은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다.

'80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19.9%에 불과한 반면에 경쟁국인 대만은 33.4%, 「싱가포르」도 27.3%에 달했다.

이웃인 일본도 31.7%에 이르는 것이다.

흔히 저축이야기만 나오면 살기도 어려운데 저축할 여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반발에 부딪힌다. 그러나 저축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을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낮은 저축률을 오는 '86년에는 약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축은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들이 소비를 줄이고 근검 절약하는 자세를 본보임으로써 저축정신은 좀더 빨리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저축의 가장 큰 적인 인플레이가 잡힘으로써 실질소득이 높아졌다. 이때야 말로 저축하는 마음을 기르는 좋은 기회인 듯하다.

마. 기술개발의 확대

지금 선진국들 사이에는 기술개발에 대한 경쟁이 첨예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술의 독점화는 물론이고 무기화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기술경쟁에서 밀려나는 나라는 결코 흥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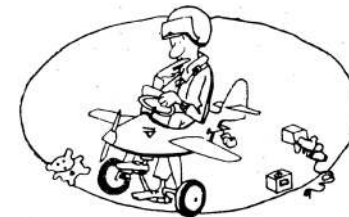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지만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훨씬 뒤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용료를 주고 들여온 선진기술에 약간의 개발을 가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접목형 기술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의 기술향상은 결코 기술개발 기술혁신일수는 없는 것이다.

제 2의 경제도약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만큼의 기술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결론

이 밖에도 선진경제를 이룩해 나가는 데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식량의 자급화도 그러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환경보전·인구·교육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의식의 선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식의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 질 때 선진경제는 더욱 앞당겨지고 내실도 기해질 것으로 믿는다.



군인정신(軍人精神)에 관(關)한 연구(研究) (2)



중령 이 용 형(李龍炯)
<공군본부(空軍本部)>

제(第)3장(章) 한국군인정신(韓國軍人精神) 요소(要素)에 대(對)한 타당성(妥當性) 분석(分析)

제(第) 1절(節) 한국군(韓國軍)의 군인정신(軍人精神)에 대(對)한 배경(背景)

우리나라의 군인정신(軍人精神)은 ① 1948년(年) 12월(月) 1일(日) 초대(初代)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이범석장군(李範奭將軍)이 여(麗)·순반란지구(順叛亂地區) 토벌작전(討伐作戰)에 전몰(戰歿)한 장병위령제(將兵慰靈祭)에서 선포(宣布)한 국군삼대선서(國軍三大宣誓)1) ② 1948년(年) 12월(月) 5일(日) 초대(初代)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인 이응준장군(李應俊將軍)이 제정(制定)한 사병훈(士兵訓)2) ③ 1949년(年) 개정(改正) 선포(宣布)된 국군맹세(國軍盟誓)3)

④ 1950년(年) 2월(月) 28일(日) 대통령령(大統領令) 제(第)282호(号)로 제정(制定) 공포(公布)된 군인복무령(軍人服務令)4) ⑤ 1956년(年) 11월(月) 21일(日) 국방부훈령(國防部訓令) 제(第)27호(号)로 공포(公布)된 군진수칙(軍陣守則)5) ⑥ 1957년(年) 12월(月) 1일(日) 국방부훈령(國防部訓令) 제(第)28호(号)로 공포(公布)된 군인(軍人)의 길 ⑦ 1976년(年) 9월(月) 17일(日) 국방부훈령(國防部訓令) 제(第)212호(号)로 개정(改正) 공포(公布)된 군인(軍人)의 길 ⑧ 1976년(年) 10월(月) 13일(日) 대통령령(大統領令) 제(第)8262호(号)로 개정(改正) 공포(公布)된 군인복무규율(軍人服務規律)6) 등(等)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나타난 군인정신(軍人精神)은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建國理念)인 홍익인간정신(弘益人間精神), 신라(新羅)의 화랑도정신(花郎徒精神),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의 애국애족정신(愛國愛族精神), 3·1운동(運動)의 자주독립정신(自主獨立精神) 등(等) 우리민족(民族) 사상(思想)에 나타난 군사적(軍事的) 전통(傳統)을 토대(土台)로 하고 6.25동란(動亂)과 월남참전(越南參戰)과 같은 반공실전(反共實戰) 경험을 참고로 하여 제정(制定)하였는데7) 이들 각(各) 사상(思想)에 나타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배경(背景)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第) 1항(項) 홍익인간정신(弘益人間精神)

우리 민족(民族)의 최초의 국가(國家)인 고조선(古朝鮮)의 건국이념(建國理念)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널리 인간세상(人間世上)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평화(平和)와 화해(和解)속에서 공존(共存)의 삶을 영위한다는 광명정대(光明正大)한 정신(精神)인데 이 이념(理念)은 우리 민족(民族)의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 화(化)하여 우리 국군(國軍)의 정신적(精神的)인 바탕이 되어온 것이다.

제(第) 2항(項) 신라(新羅)의 화랑도정신(花郎徒精神)

화랑제도(花郎制度)는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 때에 국력(国力)을 신장(伸張)하고 나아가 민족통일(民族統一)의 원대한 이상(理想)을 실현(實現)코자 채택한 일종(一種)의 교육제도(教育制度)로서 많은 젊은 청소년(靑少年)들이 집단적(集團的)으로 세속오계(世俗五戒)(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유신(交友有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挾))의 계율(戒律)아래 산천(山川)을 돌아다니며 무술(武術)을 익히고 심신단련(心身鍛鍊)과 직관도야(直觀陶冶)를 수련(修鍊)하였다.

이러한 수련(修鍊)을 통하여 신라의 젊은 청소년들은 애국심(愛國心)(국토방위(國土防衛)), 충성심(忠誠心), 용감성(勇敢性), 신의(信義), 정직(正直), 협동(協同), 필승(必勝)의 공격정신을 구비(具備)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적 실천적 정신은 현재(現在) 우리 군(軍)에 있어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모체(母體)가 되고 있다.

제(第) 3항(項) 이순신장군의 애국애족정신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군인이다. 임금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심, 군인으로서의 애국애족정신, 장수(將帥)로서의 부하에 대한 애정, 적탄을 맞고도 부하들을 독전(督戰)한 그의 투철한 사명감 등은 오늘날 우리 군(軍)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第) 4항(項) 3·1운동(運動)의 자주독립운동(自主獨立精神)

3·1운동(運動)은 우리 민족(民族)이 일제(日帝)의 탄압적 통치(統治)를 거부하고 민족(民族)

예절(禮節)바른 언어생활(言語生活)과 질서의식(秩序意識)



편집실(編輯室)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의 한국이 아니다.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내세우고 힘쓰고 있는 중이다. 관광객이 1년에 백만명 이상씩 밀려들어오는 세계 속의 한국이다. 갖가지 국제회의가 열려 왔고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 '86의 아시안 게임,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주인의식으로 스스로 질서를」 하는 구호의 현수막이 그래서 내걸렸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모임을 정부가 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주도만으로 유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만큼 국력의 신장이, 국내정세의 안정이 이루어져 결론적으로 아시안 게임이나 특히 서울올림픽의 개최능력이 있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사실이고 북한의 갖가지 방해나 교란공작이 겹칠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결속을 더더욱 굳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만의 일이 아니요, 체육인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내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기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훌륭히 치루되도록이면 적자가 아닌 흑자재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며 문화민족의 저력을 보여 국위선양도 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즈음에 우리가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되돌아볼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가장 부끄러운 세계 1위라 하여 자동차 1만대당 연간 58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미국이 3.3명, 서독이 5.3명 영국이 3.5명인데 비해 너무나 엄청난 차이이다. 그런데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행자요 10명 중 3명은 14세 이하의 어린이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횡단보도나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가 월등히 많았다고 하니 우선 신호등에 따라 교통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전기사도 행인도 하나하나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기사만을 나무랄 수 없는 일면도 있는 모양이다. 업주도 정부관청도 모두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폭주 운전을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벌칙강화만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

것인지?

운전기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대로의 고충은 또 있는 모양이다. 그들의 돈 많이 벌겠다는 과욕으로만 볼 것인가?

서울시내의 경우 택시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줄서기는 거의 지켜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버스(사전에는 버스)의 경우는 줄서기가 지켜지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하나 질서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지금 전화가 늘어서 웬만한 집이면 전화 없는 집이 없고 웬만한 시골에도 전화연락이 되는 것은 그만큼 전화보급이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전화통화의 시간이 선진외국에 비해 너무나 길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다. 우리의 한 통화 평균이 1분 47초라는 것이다. 미국이 55초, 일본이 1분 10초임에 비해 너무나 길다. 통화를 짧게 끊게 쓰는 것도 선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담배꽂초나 휴지를 거리에 버리는 일은 많이 없어진 듯하다. 그러나 거리에서 가래침 뱉는 것은 아직도 근절까지만 먼 느낌이다.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경로석」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거의 이름만이지 젊은 남녀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인이 없을 경우, 아무나 앉아도 무방하겠지만 노인이 앞에 섰을 경우에는 선뜻 일어서는 미덕이 아쉬운 것이다.

「경로석(敬老席)」이 아닌 「경로석(輕老席)」인가 하는 농(弄)을 한 일도 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양보를 받은 일이 두어 번 밖에 없다. 아직 만 65세(歲)는 안 되었고 젊어(?) 보인 탓일까? 어느 부인(婦人)에게서 대학생에게서 자리를 양보 받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고마웠던지 고맙다는 인사를 두어 번씩은 되뇌어 한 일이 있다.

바로 얼마 안 된 전(前)의 일이다. 교수연수의 모임이 있어 개인택시를 타고 내릴 때 그만 실수로 손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그 안에는 현금도 의료보험카드도 교정지(校正紙)도 들었고 개인(個人)명함까지도 들어있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R교수의 말이 있었다 더러 외국 관광객들이 물건을 잃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61, 2년 이었던가 일본(日本)에 갔을 때의 일이다. 기차를 갈아탈 때 양산을 놓고 내렸던 K교수가 시험(?)삼아 승무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산이 되돌아온 일이 있다. 78년엔 내가 대만엔 갔을 때 어느 약방에서 여행용 핸드백을 놓아둔 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생각이 나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핸드백을 보고는 얼마나 고마와했는지 모른다. 그 핸드백 안에는 현금(現金)도 여권도 들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졌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아찔했었다.

이런 외국의 일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관광객도 늘고 국제적 회합(會合) 특히 아시안게임이나 세계(世界) 올림픽대회에는 아시아의 이목(耳目)과 전세계(全世界)의 이목(耳目)이 우리에게 쏠릴 것임을 생각

하면 주인(主人)의식으로 스스로 질서를 너도 나도 명심(銘心)해야 할 일이다.

이 나라는 바로 「내 나라」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강 건너 불구경식」의 생각은 35년간의 일제하(日帝下)를 생각하고 90일간의 공산치하를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생각이다.

외국인에게 친절도 보이고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도 보였으면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문제는 자기비하(自己卑下)의 친절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제 체면(体面) 차려가면서의 친절이라야 한다.

고래(古來)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다. 예의지국이라며 흐뭇한 평(評)이 아닐 수 없다. 예절 바른 민족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아무래도 유교에서 유래(由來)한 삼강이니 오륜이니 하는 전통논리의 값진 소산으로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해방 후 물물듯이 들어온 외래사조(外來思潮) 특히 물질만능의 풍조 속에서 자칫 나를 잃고 휘청거렸거나 지금도 그런 휘청거림이 남아 있다면 자성(自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논리의 근저(根柢) 위에 국가민족에 대한 충(忠)도 부모형제에 대한 효제(孝悌)도 어른에 대한 공경도 벗어 대한 신의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의식개혁의 차원」이란 바로 이 문화민족으로서의 전통논리를 현대감각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지 외래풍조(外來風潮)를 뒤따르자는 것은 천만 아니다.

생각해 보면 예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말과 몸가짐이 남의 귀나 눈에 거슬린다면 예(禮)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말의 힘이 막중(莫重)함은 덕종비(德宗妃) 소헌왕후(昭憲王后) 한씨(韓氏)의 찬(撰)인 내훈(內訓) 「성종 6년 1475년」에 「언어자(言語者)는 영욕지추기(榮辱之樞機)며 친소지대절야(親疎之大節也)니 적능리견합리(赤能離堅合異)하며 결원여수(結怨與讎)하느니 대자칙복국망국가(大者則覆國亡國家)하고 소자(小者)도 유육친(猶六親)을 이간(離間)하느니……」 「말이라 하는 것은 영욕(榮辱)이나 친소(親疎)의 갈림을 이루기도 하나니 굳어진 관계를 풀기도 하고 소이(疎異)로운 것을 화합(和合)하게도 하며 원망을 짓기도 하고 원수를 일으키게도 한다. 말 한 마디의 잘못으로 크게는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집을 망하게도 한다. 적게도 육친(六親) (부모, 형제, 처자)을 이간하게 한다」 라고 하여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막중(莫重)한 말의 기에 우리는 사적(私的)인 대인관계나 공적인 사회생활에서나 예절 바르고 품위 있는 말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원만한 인화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절 바른 언어생활은 바로 사회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요체(要諦)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학에 의하면 「연장이배즉부사지(年長以倍則父事之)」하고 십년이장즉형사지(十年以長則兄事之)하고 오년이장즉견사지(五年以長則肩事之)니라.

「나이가 배가 되면 아버로 섬기고 십년이 위면 형으로 섬기고 오년이 연상이면 어깨로 좇을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는다는 뜻) 것이니라 하였다.

나이에 따라 적당한 경어를 써야 하고 직장에서의 상사(上司)나 학교에서의 선생이나 군대에 서의 상관에게 적절한 경어를 써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말에 있어서 경어법(존대법)이 발달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진 것이며 국어의 특질이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다. 이 경어법이란 것이 동양논리에 바탕을 둔 충효의 사상이나 장유유서의 정신 등에서 유래한 미풍양속의 하나라고 나는 본다.

그런데 특히 해방 후 존대어를 쓰는 것은 비민주적이거나 봉건(封建)잔재 정도로 생각하는 풍조 즉 my나 you로 통하는 사고방법(서구사회(西歐社會)에 예절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의 보급으로 전통적 공대법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① 원칙적으로 전통적 존대법은 지켜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존대법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언어유산으로 특히 「남」을 살지 않고 「나」를 사는 생활처세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저(나) 진지(밥) 잡숫다(먹다) 주무시다(잔다) 여쭙어보다(물어보다) - 깨(- 에게) - 깨서(- 이) 노인- (늙은이) 연세, 춘추(나이) 존어(尊御), 함자(銜字)(이름) 치아(齒牙)(이) 약주(술)…… 「함자(銜字), 춘추(春秋)·치아(齒牙)·약주(藥酒)에 대해서는 혹 의미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자연 쓰지 않게 될 듯하다.

② 구두어로서는 거의 퇴화된 듯하다. 문장어로서는 「- 읊(- 압), - 삽, - 압」이 옮겨 쓰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 하옵는 바, 좋겠삽기로, 글월 반잡고

③ 그러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낮추던 말법은 지양(止揚)해도 좋지 않을까 하며 되도록 순우리말이 있는 것을 되찾고 쓰되 물론 한계는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님, 어르신네(춘부장, 대인) 어머님 (자당, 대부인), 큰아버님, 작은 아버님(원장(院丈) 조카, 조카님(함씨(咸氏) 아내, 안사람, 집사람(형처(荆妻)), 형제분(안항(雁行)), 아드님(자제), 아들이(돈아(豚兒), 가돈(家豚))

④ 친구끼리(동성 혹은 이성)나 손아랫 사람에 대한 호칭이나 대화에 있어 품위가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해라」나 욕설(辱說), 비속어(卑俗語), 은어(隱語), 첨단(尖端)적인 된소리 같은 것은 지양(止揚)되었으면 한다.

씨, 형, 군을 적절히 가려 썼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성끼리 (젊은이들)의 경우 씨를 살려 썼으면 좋겠다. 옛날 양반 말씨의 장점 즉 그 「점잔」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신사(紳士)·숙녀다운 그 「점잔」 말이다.

⑤ 지나치게 「님」이나 「- 시」를 남용하는 것도 올바른 존대법은 아니다 「총장실, 사장실」을 「총장님실, 사장님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의 예고 「선생님께서 부산에 다녀오신 뒤에」면 죽한 것을 「선생님께서 부산에 가셨다 돌아오신 뒤」에는 오승존대다.

⑥화자(話者)보다는 지체(地體)가 높으나 청자(聽者)보다는 지체가 낮은 이, 즉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버지」에게 「형」, 「은사」에게 「선배(先輩)」의 얘기를 할 때에는 경대를 하지 않는 말법을 써야 한다. 최근에 텔레비전 등에서 이 말법의 오용이 있어 귀에 거슬린다.

⑦「예절바른 언어생활」이란 면에서 순정(醇正)한 국어, 올바른 발음의 말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긴소리나 된소리 발음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뜻의 혼동(混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상대방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으므로 발음을 옳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얼마간의 예를 들어 보인다.

(1) 순우리말 <-는 긴소리표>

눈싸움·눈싸움(설전)·별세계(別세계)·별세계

걷다(수(収)·권(捲))·걷다(보)·굽다(곡)·굽다(자(灸))

깊다(심)·깊다(보(補))·낮다(저)·낮다(승(勝))·유(癒)

묻다(매(埋))·묻다(문)·벌이다(진열(陣列))·버리다(사(捨))

붙다(부(付))·분다(식(殖))·붓다(주(注))·창(脹)

앉다(좌)·안다(포(抱))·업다(부(負))·업다(복(覆))·없다(무)

적다(기록)·적다(소)·젖다(습(濕))·젖다(교삽(攪插))

(2) 한자말

고대(高大)·고대(古代)·고전(苦戰)·고전(古典)·사정(査定)·사정(私情)·사정(事情)

성인(成人)·성인(聖人)

신장(身長)·신장(腎臟)·타살(他殺)·타살(打殺)·광주(光州)·광주(廣州)

영동(嶺東)·영동(永同)·영천(靈泉)·영천(永川)

이천(伊川)·이천(利川)·공씨(公氏)·공씨(孔氏)

신씨(申氏)·신씨(辛氏)·신씨(慎氏)·전씨(全氏)·전씨(田氏)·전씨(錢氏)

정씨(丁氏)·정씨(鄭氏)·조씨(曹氏)·조씨(趙氏)

경희(京姬)·경희(敬姬)·경희(慶姬)·영희(英姬)·영희(榮姬)·영희(永姬)

정숙(貞淑)·정숙(正淑)·서문여고(西門女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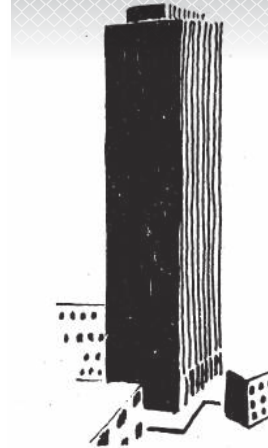
사적·사적(寺跡)·사적(私敵)·사적(史籍)·사적(史蹟)·사적(私的)·사적(史的)

시가·시가(嫗家)·시가(詩歌)·시가(市街)·시가(時價)·시가(시까)·시가(市價)·시가

죄과·죄과(罪過)·죄과(罪科)·죄과

이상 예절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실천사항을 거론해 보았다. 이 예절 바른 언어생활의 실천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고 가정·학교·사회·직장을 평화롭게 하며 안정되고 질서 있는 장으로 만들 것임이 틀림없다.

개천절(開天節)과 창조(創造), 개척(開拓)의 호국정신(護國精神)



조상(祖上)의 그 슬기 이어받아
선진조국(先進祖國) 앞당기자

박 문 송(朴文松)

〈언론인〉

우리는 해마다 10월(月)이면 개천절을 맞이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우리들은 그 의의(意義)를 새롭게 해 주고 있다.

우리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온 민족정신면(民族精神面)에서 보더라도 그 의의(意義)와 정신(精神)은 언제나

더욱 새로워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民族)으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천절(開天節), 이제 그날의 뜻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조상(祖上)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창조(創造)와 개척(開拓), 그리고 호국(護國)의 정신(精神)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건국(建國)이 시작(始作)되는 개천절은 바로 우리 역사상(歷史上) 언제나 새로운 의의를 주면서 민족적인 날로 그리고 자주독립(自主獨立)의 날로 이어져왔고 또 그 뜻을 계승(繼承) 발전(發展)시켜온 데서 우리는 다시금 개천절의 의의(意義)와 뜻이 더욱 깊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또 다시 맞이하는 개천절에 즈음하여 우리 역사상(歷史上) 보여준 건국의 의의와 창조(創造), 개척정신(開拓精神)으로 일관하면서 국난(國難)을 당할 때마다 호국(護國)의 정신으로 일깨워온 국경일로서의 의의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성업군주(聖業君主) 단군(檀君)의 창조정신 그 뜻

우리는 개천절(開天節)을 건국(建國)기념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날을 국경일(國慶日)로 정(定)한 역사적(歷史的) 배경은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건국하였다는 건국정신과 그 의의는 물론이지만 국난(國難)의 극복과정에서 자주독립의 정신(精神)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우리 민족사(民族史)가 시작된다고 하는 창조의 정신을 보여 주고 그 후에 계속되면서 특히 국난시(國難時)에는 극복을 위한 민족의 구심점(求心點)을 이루어 주면서 더욱 진취적인 행동으로 개척(開拓)하여 나아가서는 민족적인 추진력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역사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고려 때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그 보다 약 150년 후에 승려(僧侶)인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역사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가, 다시 말하면 삼국(三國)의 건국과 역사(歷史)를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가 있고 우리 나라의 건국이야기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가 있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시원(始原)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10월(月) 3일(日)을 국경일인 개천절로 제정하여 우리 민족이 거룩한 건국 이념과 홍익인간(弘益人間) 그리고 창조의 뜻을 받드는 데서 우리 민족사(民族史)와 정통(正統)의 시원(始原)을 단군의 창조정신에 두고 그 뜻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단군을 우리 나라 최초의 창업군주(創業君主)로 모시고 우리 역사의 시조(始祖)임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맥락(脈絡)으로써 이어져 왔다.

이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통일외적으로 굳어져 발전(發展)하여 왔고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삼아온 것이다. 그럼 단군(檀君)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記錄) 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즉 승려인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이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定)하고 나라를 처음으로 개창한 것이 중국역사(中國歷史)의 시작이라고 하는 요(堯)나라와 같은 시기라 하였다.

삼국유사에 인용하고 있는 고기(古記)라는 기록에 따르면 옛날에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항시 천하(天下)에 내려가고자 하는 뜻을 품고서 인간세상(人間世上)을 탐내어 인간세상에 내려가서 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세 개의 높은 산 가운데 하나인 태백산(太白山)을 내려다 보면서 그곳이 인간(人間)을 널리 이(利)롭게 할 만한 곳이라 여기고 이에 천부구(天符邱) 3개를 주어 가지고 가서 세상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웅(桓雄)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神市)라 하여 인간세상(人間世上)을 다스리는 도읍지로 삼으니 이가 곧 환웅천왕

(桓雄天王)이라는 것이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조종하는 삼수(三帥)를 거느리고 곡(穀)·명(命)·병(病)·형(刑)·선(善)·악(惡) 등 무릇 인간(人間)의 3백60여 가지의 일을 맡아서 인간(人間) 세상을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교화(教化)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하나의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환웅(桓雄)에게 빌기를 「원컨대 사람이 되게하여 달라」고 하므로 한번은 신(神)은 신령스러운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빌하기를 「이것을 먹고 1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난 곰과 범이 햇빛을 보지 않고 기(忌)하기 삼천일, 즉 21일만에 이를 잘 지키는 곰은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충분히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으로 여자가 된 웅녀(熊女)는 그와 결혼(結婚)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아래서 아이를 잉태해 달라고 축원하였다. 이에 웅(雄)이 잠깐 변하여 웅녀(熊女)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래서 태어난 단군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시조(始祖)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민족사의 개창(開創)으로 여기고 개천절로서 민족적인 경축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천절은 우리 조상들이 보여 준 창조와 시원(始原)의 뜻을 잘 나타내면서 그 같은 정신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민족적(民族的) 자주의식(自主意識) 함양에 힘쓰자

그래서 건국의 시조(始祖)를 우리 민족과 역사의 시원(始原)으로 삼고 민족사와 우리 민족의 자주성, 우리 문화(文化)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연대까지도 밝혀져 기원전(紀元前) 2333년으로 중국사(中國史)에서 자랑하는 요(堯)임금 때와 같은 시대에 건국한 것을 밝혀 단군기원 원년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군을 천(天)이라 하여 우리 민족(民族)을 하늘에 연결시켜 천손민족(天孫民族)으로서 선택된 겨레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歷史)에 나오는 기자(箕子)도 고조선(古朝鮮) 속에 흡수시켜 우리 역사(歷史)의 계통을 세웠고 삼국시대를 단군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늘과 직결된 신성한 민족(民族)으로서 즉 천손민족(天孫民族)으로서 자주성을 계승하고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의 전통(傳統)을 이어받았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정통외식(正統意識)을 밝히며 후대에 계승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의식은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記)에서도 단군과 중국(中國)의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時代)임을 밝히고 대등한 건국의 시조(始祖)를 모시고 서로 똑같이 각각 발전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신라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 부여 등 모든 국가를 우리 동족이 세웠음을 밝히고 단

군을 공동시조로 삼고 있었음을 밝히면서 우리 역사에서 도외시하였던 발해도 똑같이 우리 민족이 세웠던 국가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즉 삼국유사와 제왕운기(帝王韻記)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 역사의 대등성을 보여주면서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자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자주성을 강조하며 자주독립과 민족의식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 세계(世界)와 불교신앙(佛敎信仰)세계에서 국가정치와 서민생활을 중심으로 천지자연(天地自然)이 혼연일체(渾然一體)하는 조화 속에서 우리 역사가 전개되어온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一然)은 우리의 상고사(上古史)를 자주적(自主的)인 입장에서 건국의 유구한 역사를 해석(解釋)하고 있다.

이는 우리 역사가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데 대하여 체계를 세워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게 하였으며 민족적 자주주의식을 나타내는 정통을 세우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신(精神)은 국난극복(國難克服)의 힘 되고

1910년 우리가 일제(日帝)에게 주권을 빼앗긴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갖는 건국의 정통(正統)정신은 한시도 잊어본 때가 없었다.

비록 한 때나마 우리의 국력이 약(弱)하여 주권(主權)을 일본(日本)에 탈취당했으나 조금도 굽히지 않고 민족과 국가(國家)를 되찾기 위한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과 망명한 애국지사들은 중국의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단군 이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유구한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우리의 주권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선언(宣言)하고 예부터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정통자주독립정신 전통 그리고 민족주체성을 계승하여 독립자존의 국가(國家)를 이룩하려는 위대(偉大)한 정신의 소산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의 헌법에서도 우리 민족은 「신인일치(神人一致) 중외협응(中外協應)하여…」 「우수한 전통으로 스스로 개척(開拓)한 강토에서 유구(悠久)함 역사와 국가생활을 하여 인류문명(人類文明)과 진보에 공헌하며…」 등으로써 건국정신을 계승(繼承)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계통(系統)은 1919년 3.1 운동 후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가 수립될 때에도 우리는 건국 4252년 4월(月)이라 하여 단군 기원(紀元)으로부터 정통을 세웠다.

우리가 독립운동(獨立運動)하는 것은 조선왕조의 복구가 아니라 단군의 건국에다가 그 근원

(根源)을 두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음도 아울러 명백(明白)히 하고 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단군의 건국정신을 숭상하는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역사상의 정통정신을 계승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권위를 불러 일으키고 민족의 충성심(忠誠心)을 통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부르짖음은 모두가 애국애족을 위한 정신적인 결정체가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국가(國家) 민족(民族)의 영원한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이때에 있어서는 적어도 단군시조의 혈족(血族)으로서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 하늘의 비와 이슬을 머금고 살아온 우리로서는 다시 주저할 것조차도 없이 독립운동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도 단군의 건국정신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1924년 11월(月) 9일자(日字) 보도를 본다면 중국 상해(上海)에서는 우리의 건국 기념일인 개천절(開天節)의 행사(行事)가 진행되어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건국한 개천절의 의식을 거행한 것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망명지(亡命地)인 임시 정부에서 우리 민족의 정통정신과 자주독립정신으로 계승되어 온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국난극복(國難克服)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해(上海)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의 기념행사를 하였던 것은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제(日帝) 침략하(侵略下)에서 일제와 싸우고 있는 어려운 여건아래서도 민족정신을 바로 하며 유구한 건국의 이념(理念)을 계승시켜 주려는 훌륭한 정신에서 나온 당연한 민족정신의 계승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건국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겨레는 일제침략(日帝侵略)과 대항(對抗)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月) 8일(日) 일본(日本)이 미국(美國)·영국(英國)에 대하여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자 다음날인 9일(日)에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단행하여 우리의 독립운동(獨立運動)과 광복(光復)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총화(總和)·협동(協同)으로 내일(來日)의 영광(榮光)이루자

또한 건국의 시조(始祖)를 국난극복의 구심점으로 삼아 민족정신을 일깨워준 경우로서 대종교(大宗教)를 들 수가 있다. 대종교(大宗教)는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宗敎)이다.

대종(大宗)이란 삼신(三神) 즉,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 즉 단군을 가리킨다.

대종교는 단순히 단군만을 신앙(信仰)하는 종교(宗敎)가 아니라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천신(天神)을 받드는 신앙 사상으로 종교적(宗敎的) 단체를 만든 것은 1909년 홍암(弘岩) 대종사(大宗師) 나철(羅喆)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나철(羅喆)은 우리가 주권(主權)을 잃은 뒤인 1916년 추월산에서 자결하고 제2대 교주인 무원종사(茂園宗師) 김교헌(金敎獻)은 일본(日本)의 탄압으로 교원(敎團)인 총본사(總本司)를 만

주로 옮긴 후 일본군(日本軍)에게 학살당한 10여만의 교도를 애원하다가 죽었다.

이처럼 대중교가 단군만을 모신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자주독립정신(自主獨立精神)과 단군의 건국정신을 우리가 이어 받아 다시 내 조국(祖國)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정신이 언제나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흐르면서 국난극복의 정신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국(建國)의 시조로 받드는 단군의 건국과 창조적인 건국정신이 국난극복의 구심점으로 겨레의 가슴속 깊이 이어져 왔음을 간추려 보았다.

우리의 건국은 중국(中國)에서 그들의 역사 시작이라고 하는 요(堯)임금 때와 같은 시기에 건국한 유구한 역사임은 물론이요 그같은 건국정신은 바로 우리 민족의 창조정신(創造精神)이요 개척(開拓)과 진취의 정신(精神)인 것이다.

우리의 오랜 역사의 전개 속에서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승되어온 것임을 확인(確認)시켜주고 있음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제 또다시 맞이하는 개천절을 당하여 우리는 다시금 건국(建國)이라는 창조의 정신과 개척정신 그리고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서 민족사를 발전시키려는 총화(總和) 협동(協同)의 정신(精神)이 꾸준히 계승되어온 것임을 되새기면서 선진조국창조(先進祖國創造)의 알찬 일꾼으로서 우리 후손(後孫)에게 창조와 자주독립의 정신(精神)을 계승시켜주어야 할 의무(義務)와 사명감(使命感)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다.

인구증가(人口增加)의 심각성(深刻性)과 문제점(問題點)



- 이젠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

정 병 섭
(서기관 : 내무부)

오늘의 인구현황(人口現況)

우리나라의 인구(人口)가 마침내 4천만 명을 훨씬 넘고 있다.

인구학자(人口學者)들은 당장 인구억제(人口抑制)를 위한 획기적(劃期的)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멀지 않아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용면적(可用面積)이 약 3만km²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려 4천만 명이 넘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마저 갖게 된다.

우리의 자원(資源)이나 국토면적(國土面積)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인구수(人口數)는 1천 5백만 명이며, 2천만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인구(人口) 4천만 명이상은 우리 땅이 포화상태(飽和狀態)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인구폭발(人口爆發)은 결국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주택난, 실업, 공해문제 등 갖가지 감당해내기 힘든 사태를 빚어, 끝내는 하나뿐인 지구를 인간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옥(地獄)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하는 것이 인구억제(人口抑制) 즉, 산아제한(産兒制限)이다. 인구(人口)가 많아서는 인류에게 어떠한 복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다만 인구증가(人口增加)의 심각성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래의 세계 인구증가 추세를 연도별로 비교해 꼽아 보면 그 놀라운 증가추세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딜레마 속의 인류생존(人類生存)

19세기 초 즉 1800년의 세계인구는 9억 6백만 명이었는데 20세기 초인 1900년에는 16억 8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세계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는 1백년 이상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두 배로 늘어나는 데는 60여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즉 1960년에 이미 30억을 돌파했으니 말이다. 그 후의 증가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加速化)하여 '80년대에 접어들면서 40억에 이름으로써 불과 20여 년 만에 1.5배로 급증한 것이다. 저 유명한 맬더스가 인구원리(人口原理)에서 지적했듯, 바로 그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 증가의 무서움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증가가 거듭되면 약 6백 년 후엔 남극대륙을 포함한 지구표면엔 한 치의 발붙일 땅도 없이 사람들이 뿔뿔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산상의 수치이고 실제로는 그 전에 맬더스의 인구원리(人口原理)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생활자료(生活資料), 즉 식량들이 이에 못 따라가 술한 인간비극을 자초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맬더스의 인구론(人口論)을 요약하면 식량품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이며, 또 예나 지금이나 양성간(兩性間)의 정욕(情慾)은 변함없이 지속돼 오고 있다.

그러기에 생활자료는 산술급수적으로 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인구는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구과잉현상(人口過剩現象)은 필연적이며, 악덕과 빈곤이 발생하여 사회혼란과 굶주려 죽는 인간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고 있고 45억 인구 중 그 10분의 1인 4억 내지 5억이 굶주려, 기아상태에 있거나 우심(尤甚)한 영양실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맬더스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피골(皮骨)만 남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 비참한 사진을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비아프라의 비극은 곧 인류비극의 시작이며 인구폭발을 억제하지 못한 인간 스스로의 죄악인 것이다.

세계는 이렇듯 벌써부터 식량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측정에 의하면, 오는 '85년도의 세계곡물 총생산량은 17억 2천만 톤이

며, '79년도의 인구증가를 1.82%로 추산한 '85년도의 세계인구는 48억 4천만 명이 된다.

그리고 식량 총수요량은 17억 1천 4백만 톤으로 잡고 있다.

말하자면 지구의 부양능력한계는 50억 명 정도라는 가정이 성립되고, 이는 곧 '80년대 후반부터는 전체적으로 따져서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전체를 한 단위로 본 총괄적(總括的)인 의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국가 단위로 봐야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미국과 같은 넉넉한 곡물생산국이 있는가 하면 비아프라 등 수억의 인간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현실이 또한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부강(富強), 국력(国力)의 신장(伸張)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새로운 국가 의식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현실(人口現實)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14세기 말인 고려시대 말에 1천만 명에 달했고 그 후 약 4백 년 동안 겨우 6백 30만 명이 늘어 1910년에 1천 6백 3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완만하던 인구증가가 20세기에 들어 갑자기 폭발, 불과 70년 동안에 3.5배로 는 것이다. 지금 남한만도 4천만 명이며 남북한(南北韓)을 합쳐 약 6천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정부(政府)의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으로 '60년대 후에는 인구증가율이 드디어 폭발현상을 멈추어 '50년대 말에 3% 선에서 현재는 1.6% 선으로 줄어 들긴 했다.

하지만 오늘도 52초에 1명꼴로 연간 60만 명씩 불어나, 말하자면 한 해에 대전(大田)만한 도시가 하나씩 불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出生率)은 낮아졌으나, 사망률(死亡率)이 그에 못지 않게 더욱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10년 전에 비해 10년이나 불어난 66세로 길어졌다는 데 연유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인구증가속도(人口增加速度)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인구구조(人口構造)에 있다.

6·25동란 직후의 이른 바 베이비붐 세대(世代)들이 전체 인구의 주축(主軸)을 이루면서 왕성한 증식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大都市)들의 심각한 인구증가(人口增加)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인구증가현상은 국가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에 힘겹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면 인구(人口)폭발은 곧 식량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의 성과를 흡수해 버림으로써, 개발정책의 노력이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권에서는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시도도 모두 인구증가(人口增加)에 의해서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이 주장은 지금 인구밀도가 세계 제 3위이며, 산림지대를 제외한 가용면적으로만 따지면 1평방 km당 인구(人口)가 1천 1백 32명으로, 단연 세계 제 1위인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 다소 씁쓸해 진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인구(人口)급증현상은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 환경을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정책적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별 인구추세만 봐도, 바로 도시인구의 집중현상을 알 수 있다.

지난 '60년 전체인구의 2천 4백 98만 명 가운데 도시지역인구는 28%인 6백 99만 명으로 지금의 서울인구(人口)보다도 훨씬 적었고, 농촌인구는 72%인 1천 7백 99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던 것이 '80년 말에는 전체인구 3천 7백 45만 명 중 도시가 무려 57.2%나 차지했고, 농촌은 42.8%로 역전되고 말았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되어 '90년에는 69대 31로, 2천 년에는 77대 23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때 부산과 서울의 2대(大) 도시인구(都市人口)가 전체 인구의 43%, 즉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들 두 대도시에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인구집중추세는 갈수록 가속화하여 지금도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몰려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대책 없이 어물쩍하다가는 불과 30년도 못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속에서 후손들은 미리 손 못쓴 못난 조상들을 원망할 것이다.

물론 수도 서울의 인구억제정책(人口抑制政策)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7년 서울인구(人口)를 '86년 말까지 7백만 명 선까지 묶겠다면서 마련한 「수도권인구(首都圈人口) 재배정(再配定) 10개년 계획」이 이젠 그 실효는 커녕 계획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白紙化)되어버린 것이다.

도대체가 '76년의 서울인구(人口)가 이미 7백만 명을 25만 명이나 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줄여 10년 후인 '86년에는 7백만 명으로 묶어 두겠다는 계획이었는데, 5년 만인 지난 '81년 서울인구(人口)가 3.69%의 높은 증가율(增加率)로 치달아 무려 8백 67만 명으로 걷잡지 못하게 늘어나버린 것이다.

경제발전(經濟發展)과 인구이동(人口移動)

전체적인 인구증가현상(人口增加現狀) 못지 않게 인구의 도시집중문제(都市集中問題)는 큰 골치 거리이다.

인구도시집중현상(人口都市集中現狀)은 상대적으로 농촌을 썰렁하게 만들고 만다.

해마다 농번기만 되면 농촌 일손부족을 한탄하는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근래 농수산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81년 말 현재 9백 99만 8천 6백 51명으로 '80년의 1천 85만 5백 85명보다 한 해 동안에 무려 83만 2천 명이나 줄어들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해의 우리 농촌인구(農村人口)는 총인구의 25.9%로 약 4분의 1이 되는 셈이다. 불과 15년 전인 '67년도 전체의 54.7%가 농촌에서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 인구(人口)의 도시집중화는 실로 무서운 속도임을 직감할 수 있다.

더구나 8할(捌)이 농민이라고 우리가 농본국임을 자처하던 '30년대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나 영농(營農)의 채산성(採算性)이 악화되어 가는 농업부문에서 벗어나 공업화(工業化)으로 탈바꿈하는 산업구조(產業構造)의 고도화 과정에서, 농업인구의 대량이동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단계적 현상인 것이다. 서구선진국(西歐先進國)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일본(日本)의 경우도 지금 영농인구가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농촌인구 25.8%는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말에도 일리(一理)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농촌인구의 전출(轉出)에 병행되어야 할 요건 즉, 영농기계화(營農機械化), 영농규모(營農規模)의 대형화, 또 그 바탕이 되는 경지정리작업 등이 채 틀이 잡히기도 전에 일손부터 도시(都市)로 빠져나갔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산업화(產業化)가 가속되던 '70년대의 우리나라는 해마다 40만 내지 50만 명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몰려들어 해마다 이 도시과밀화현상(都市過密化現狀)은 두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아들 선호풍조(選好風潮)부터 부리뽑자

해마다 대전시(大田市)가 하나씩 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구증가현상(人口增加現狀)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이 말은 앞으로 인구(人口)가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하더라도 5년 후에는 3백만 명 규모의 충청남도만한 인구(人口)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폭발적인 인구성장은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사회발전(社會發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浮刻)되고 있다. 우선 제한된 국토(國土) 위에 인구(人口)만 늘어나 1인당 경작면적(耕作面積)의 경우, '60년에 2백 67 평이던 것이 '80년에는 1백 67평으로 줄어 들어 식량사정과 생활환경은 갈수록 악화된다는 사실을 실증해 주고 있다.

지난 '60년 국내 양곡생산량은 5백만 톤이던 것이 '80년에는 7백만 톤으로 무려 40%가 증가했지만, 인구(人口)도 또한 46%가 늘어 식량수요는 5백 39만 톤에서 무려 1천 3백만 톤으로

1백 50% 나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식량문제 하나만도 이렇듯 긴급한데, 어쩔 수 없는 공업화(工業化)로 빚어진 이농현상(離農 現狀)은 갑작스럽고도 엄청난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초래, 주택부족, 교통혼잡(交通混雜), 환경 오염(環境汚染), 통신(通信) 과 상하수도(上下水道) 등 사회 간접자본 형성에 엄청난 투자를 강 요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인구문제(人口問題)는 오늘날 우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원 천(源泉)이며 병원(病原)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가(開發途上國家)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보다 실효 성 있는 계획적인 인구억제정책(人口抑制政策)을 개발하여 강력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1자녀(子女)갓기 운동(運動)의 필요성(必要性)

우리나라 인구증가의 원흉(元兇)을 하나만 꼽으려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男 兒選好)라는 마음 속의 관념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않는다.

가족계획협회(家族計劃協會)의 조사에서, 딸을 넷이나 낳은 부부(夫婦) 중(中) 아들을 낳을 때까지 더 낳겠다고 한 응답이 무려 40%나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남녀차별(男女差別)을 조장하는 각종 가족관계법령(家族關係法令)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기존 사회제도를 몽땅 바꾸는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

여성(女性)의 가문상속(家門相續)과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기회의 확대, 임금격차 (賃金隔差)의 해소 등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政策)이 긴요하다.

한국(韓國) 여성(女性)의 출산력(出產力)은 1인당 평균 2.8명인데 미국, 일본은 1.8명, 서독 은 1.4명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 인구(人口)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計算)이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人口增加率)은 '70년대 말에 1.5%였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서서 1.6%로 높아져 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는 탓인지 큰 성과를 올 리지 못하고 있다.

딸만 둘 있을 때, 아들을 볼 때까지 낳겠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뿌리뽑지 않는 한 인구정책(人 口政策)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이 실패하면 2천 년의 인구는 5천 4백 49만 9천 명을 2천 50년에는 7천 2백 78만 2천명 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가정(家庭)에 2자녀(子女)만 낳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1자녀(子女) 낳 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만, 2천 년에 가서도 인구(人口)가 5천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

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있는 인구증가(人口增加)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정부당국(政府當局)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시계(人口時計)는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정책당국(政策當局)이나 인구학자 들에게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秒針)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는지 모른다. 누가 이 공포의 인구시계(人口時計)를 멈추게 할 것인가.

명 언(名 言)

우리의 특권(特權)은 우리 의무(義務)보다 클 수 없다. 우리 권리 (權利)의 보호는 우리 책임(責任)의 이행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없다.

- J·F 케네디 <밴터빌트 대학(大學)에서의 연설> -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될 것 은 그가 당신의 말을 몹시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의 말 을 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 스티븐경 <스펙터이터> -

훌륭한 사회인(社會人)은 절도(節度)있는 가정교육(家庭教育)에



가정교육(家庭教育)과 청소년(靑少年)의 내일

이 성 호
(사무관 : 문교부)

부모(父母)가 생각하는 교육(教育)의 책임(責任)은 언제나 교사(教師)에 있다. 교사(教師)가 생각하는 교육(教育)의 책임(責任)은 이 또한 언제나 부모(父母)에 있다. 교육(教育)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는 캐치볼하는 야구공같이 이쪽으로 던져졌다가 저쪽으로 던져졌다가 왔다 갔다 할 뿐 바른 교육(教育)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現實)이다.

이러한 교육(教育)으로 인하여 신문사회면(新聞社會面)을 떠들썩하게 하는 자식(子息)이 아버지를 구타하고 심지어는 살해(殺害)까지 하는 패륜아(悖倫兒)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學校), 가정(家庭), 사회(社會)에 공동책임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家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격형성(人格形成)의 1차적인 책임은 오로지 가정(家庭)에서 부모(父母)가 져야만 할 것이다.

자녀교육(子女教育)은 가정(家庭)에서부터

교육(教育)이라는 말은 본래(本來) 라틴어 Educ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e(밖으로) + ducre(끌어내다) = educate의 뜻으로 속에 지니고 있는 천품(天稟)을 밖으로 끌어 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교육은 형식적(形式的)교육과 비형식적(非形式的) 교육으로 구분한다.

형식교육은 의도적(意圖的)인 교육(教育), 협의(狹義)의 교육 다시 말해 학교(學校)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비형식(非形式)교육은 비의도적(非意圖的) 교육(教育), 광의(廣義)의 교육(教育), 가정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인격(人格)과 개성(個性)은 형식교육보다 비형식(非形式)교육으로부터 싹트기 때문이다. 가정(家庭)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成長)하는 과정에서 부모(父母)는

교사가 되며 도덕(道德)의 기준을 제공하며 인격(人格)을 형성시키는 중요(重要)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子女教育)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가치판단과 인격형성이 유아기에 이루어 진다는 것은 근래(近來) 과학(科學)이 발달함으로써 증명되고 있다. 인간(人間)의 지능(知能)은 60~70%가 만 6세(才) 이전에 결정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뉴욕시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노레이브스박사도 수태(受胎)한지 5~6개월이 되면 생각할 수 있는 의사(意思)를 갖고 있다고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간(人間)의 인간다음, 다시 말해 인격형성(人格形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뇌(腦)에서 이루어진다.

지식(知識)·이성(異性)·성욕(性慾)·운동능력(運動能力)·성격(性格) 등의 차이는 뇌의 개인차에 의해 생기며 이런 미묘한 개인차(個人差)를 나타내는 뇌세포(뉴론)는 1백억~1백 50억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숫자는 1초에 하나씩 셈한다 하더라도 3백 17년(年)이 걸리는 가공(可恐)할 숫자가 인간(人間)이 태어날 때부터 형성(形成)되어 있으며 이러한 뉴론은 다른 장기(腸器)와 같이 증식(增殖)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산(生産)된 이상 죽을 때까지 감소(減少)되는 일도 있어도 증가되는 일은 없다.

또한 뇌는 뇌세포를 연결하는 2억가닥의 신경섬유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이 어릴 때 가정환경과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뇌세포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작용(作用)하는 것으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부모(父母)의 과잉보호 지양(止揚)하자

부모가 뇌세포에 어떠한 신경섬유를 연결해 주는가에 따라 자녀(子女)의 인격형성(人格形成)에 영향을 준다. 컴퓨터 배선작업을 하는 기능공(技能工)의 회로배선작업(作業)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듯 가정(家庭)에서 부모의 역할(役割)은 컴퓨터 기능공과 같다.

인간의 천품(天稟)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뇌 속에 어떤 회로를 연결하느냐와 같다고 할 때 교육(教育)의 일차적(一次的)인 책임(責任)은 부모(父母)에게 있는 것이 명백(明白)하다고 하겠다.

어린이가 배워야 할 시기(時期)에 가정에서 부모의 바르지 못한 행동(行動)과 환경(環境)이 무의식중(無意識中)에 습득되므로 부정적이고 왜곡(歪曲)된 사고방식(思考方式)을 지니게 되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어린이의 개성(個性)이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보도(報道)를 통하여 대하게 되는 마약(麻藥)환자도 복용자의 교육(教育)과 환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3살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役割)이 어린이의 인격형성에 얼마나 지대(至大)한 영향을 주는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어린이에 대한 과잉보호가 문제이다. 과거 유교적인 교육하에서는 청소년 범죄(犯罪)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 후 이러한 교육이 퇴색(褪色)되고 과거 많은 자녀로 인하여 일일이 개개인을 보살필 여유가 없어 아버지는 엄하게 훈계하고 어머니는 감싸주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교육(教育)이 이루어져 엄한 면과 자애스러운 면이 조화(調和)를 이루었다. 요즘은 한 두 자녀를 두다 보니 부모 다같이 사랑이 지나쳐 무엇이든 요구대로 들어주고 그저 맹목적으로 좋다 좋다 하다 보니 절제(節制)할 줄 모르고 사물(事物)에 대한 애착심(愛着心), 돈이 가지는 귀중함을 알기에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온실의 꽃과 같이 나약하고, 무기력(無氣力)하며 의존적(依存的)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인내심(忍耐力)이 없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한다. 이러한 결과가 성장 후에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잡아 놓은 고기만 먹으려고 하니 사회적(社會的)인 문제가 생기고 청소년(靑少年)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어린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문제다. 어릴 때는 같은 또래의 집단(集團)과 어울려 마음껏 뛰놀게 하여 협동심(協同心)과 인내심(忍耐力), 질서 의식 등 사회생활(社會生活)의 기초를 경험(經驗)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부모들은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원치 않는다.

놀면 옷 버린다, 싸움한다, 다친다, 얼굴이 햇빛에 탄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저 방에서 조용하고 얌전하게 오로지 그림책을 보고 공부하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는, 말을 잘 듣는 애완용(愛玩用)으로 만들려는 것이 문제다.

공부, 공부 하다 보니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어지고 어린이 자신(自身)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동물(動物)도 집에 가두어 두면 사납게 되어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이 어린이도 집에만 가두어 두면 밖에 나가 동감내기끼리 적응할 줄 모르며 협동심(協同心)과 질서 의식(秩序意識), 상호이해력 부족(不足)으로 마찰을 빚는다.

이러한 지나친 부모(父母)의 간섭이 성장(成長) 후에도 사회생활(社會生活)에 지장을 초래하며 부모에 대한 존경심(尊敬心)이 없어진다. 이렇게 허물어진 부모(父母), 자식(子息)관계는 학교(學校)에서도 구제불능(救濟不能)이다.

부모(父母)의 바람직한 생활(生活)태도가 중요(重要)

셋째,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生活)이 문제이다. 부모(父母)의 행동(行動)은 산 교훈이다. 요즘 부모는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실천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가 부족(不足)하다. 어린이에게는 공부하라, 정돈하라, 착한 일 하라, 여러가지를 요구(要求)하지만 모범을 보이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은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도 살짝 건너는 일, 줄서는 데 세치기, 유행에 민감한 일, 자신의 이익(利益)만 고집하는 일 등이 자라나

는 어린이를 병들게 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는 겉과 속이 다른 뼈 없는 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고방식(思考方式)을 갖고 자기의 신념(信念)대로 인생(人生)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가정(家庭)에서 부모가 어떠한 방향(方向)으로 자녀교육(子女教育)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첫째, 장점은 인정해주고 더욱 더 조장(助長)해주어야 한다. 인간(人間)의 성패(成敗)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팔자소관도 아니다. 어릴 때 하고 싶은 흥미와 환경이 상호작용(相互作用)하는 가운데 개성(個性)이 발전된다. 우리는 어린이를 교육함에 있어 형제(兄弟)간에도 장단점(長短點)이 있다는 것을 발견(發見)하게 된다.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데 운동과 손재주가 없는 경우 또 그와 반대의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장점을 신장(伸張)·발전(發展)시킬 수 있도록 부모는 조력자(助力者)로서 도와주고 격려(激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오로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채찍을 가한다.

훌륭하다는 기준(基準)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부에 소질 없는 어린이에게 공부만 강요하다 보면 공부도, 운동도, 기술도 모든 능력(能力)을 발휘 못하는 병신을 만드는 것이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의사 지바고」 작가(作家) 파스테르나크가 집수리를 부탁했는데 하루는 목수(木手)가 술 한 병을 들고 찾아와 「당신은 세계(世界)에서 제일가는 소설가라는데 세계제일의 목수인 나와 만났으니 술 한 잔 하지 않겠소」라며 술잔을 나누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처럼 장점을 인정해주어 그 분야에서 제일의 권위자가 되도록 하여 개인이나 국가(國家)에 유익하도록 해야 하겠다.

사랑으로의 지도편달을

둘째, 사랑으로 지도(指導)하고 눈물로 꾸짖어라. 어린이 교육(教育)은 국가(國家)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필요하며 가문의 흥망도 자식에게 달려있다. 자식을 올바른 길로 성장(成長)시키기 위해서는 화초(花草)가꾸기의 몇 곱절 끈기와 주의가 필요(必要)하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교육은 인내(忍耐)와 지혜(智慧)가 필요하다.

잘못을 때려서만 다스린다면 매에 대한 면역이 생겨 더욱 가혹하게 통제해야 하는 부작용(副作用)이 생긴다. 또한 사랑으로 지도한다고 해서 편벽(偏僻)된 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즉흥적으로 지도(指導)하면 자식을 더욱 망친다.

매를 때릴 때도 부모와 자녀가 다같이 아픔을 느끼는 공감대(共感帶)의 매, 또 엄하게 다스린 후에는 긴장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저녁에 잠자리 속에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동요를 부르든지, 아무 소재도 없다면 「오늘밤도 잘자」 하면서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어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야 한다.

셋째, 아이들 질문(質問)에는 만족(滿足)할 때까지 대답해 주어야 한다. 어린 자녀들이 질문을 한

다는 것은 사물(事物)에 대한 호기심(好奇心)을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문을 충족(充足)시키는 과정이 교육이며 배움이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問題)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그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고 만족(滿足)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질문이란 알고자 하는 왕성한 의욕(意慾)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질문에 가혹하게 통제한다. 「조그만 것이 무엇을 알려고 그래 가서 공부나 해」 하면서 일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어린이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생각나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꼬치꼬치 묻기 때문에 귀찮아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성의 없는 태도(態度)는 자녀에게 바른 교육이 되지 못한다.

배움의 바른 태도는 부모가 알려주어야 한다.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때 배움의 즐거움이 생긴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부모(父母)다. 공부, 공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면 반감(反感)이 생겨 의도적으로 안 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배움이 즐거운 것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 질문(質問)에는 만족할 때까지 성의 있는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國家)의 내일 위한 바른 교육(教育)

결론적(結論的)으로 말해 가정이란 어린아이가 모태(母胎)에서 태어나서 대하게 되는 성장의 보금자리이며, 인격형성(人格形成)의 기초가 되는 공간이다. 엄마의 품속에서 정서를 배우며 아버지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의지력과 생활수단(生活手段)을 배우게 되고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비형식적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교육(家庭教育)이 잘못되어 불량아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가정교육이 인간완성의 1백%라 말하기는 어렵다. 모든 교육이 가정(家庭)을 기초로 해서 학교,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행복과 더 나아가 국가(國家)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린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헌신적인 노력(努力)과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4천만의 신고정신(申告精神)

다져지는 국가안보(國家安保)

북한(北韓)의 신문(新聞)과 방송(放送)



편집실(編輯室)

북한의 신문 특징

북한의 신문(新聞)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집단적 조직자 선전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벗이며 대변자」 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 사상적 요소를 점령하기 위한 대중동원 및 사상교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은 다양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반면에 당파성과 사상성이 강하며 전투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다른 보도 매체와 마찬가지로 신문도 당에서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당(黨) 기관지인(로동신문)과 정부원 기관지인(민주조선)도 당 관계부서의 직접적인 지도 통제를 받으며 각 도와 단체들에서 발간되는 신문들도 단체 내 당조직의 핵심당원들에 의해 발행될 뿐만 아니라 계통적으로 당의 감독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신문의 최고 지도기관은 노동당 선동선전부 신문과이다. 선전선동부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다음의 서열로서 북한이 보도 매체의 운용을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나 정부원 체제도 정부원 소속의 출판지도검열국 신문과가 있어 신문발행에 따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오늘날 북한신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동당 및 정부원에 의해 장악되며 주민을 조직·교육하여 공산주의의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둘째로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다. 셋째로 당에 대한 「전투력 충성」이라는 원칙에 의해 활동되며 당의 완전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신문 활동은 객관성이 부인된 채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만을 추구하게 된다. 넷째로 북한에서의 뉴스란 오직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유용한 것만이 뉴스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뉴스의 속보성을 부정함으로써 신문으로서의 보도의 가치가 없고 철저한 사전 제작계획에 의하여 제작된다. 다섯째로 「뉴스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사명은 찾을 수 없으며 선전·선동·교화의 기본사명을 갖고 있을 뿐이다.

북한(北韓) 신문(新聞)의 편집과 제작

북한 신문의 편집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노동당의 명령과 지시에 따른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강력한 통제와 검열을 거치면서 유일사상·선전·선동·조직·교화·위주의 편집 방침을 고수하며 편집의 획일성과 보도·논평의 주관성·어용성 및 비속보성·사회면과 광고의 부재, 그리고 모든 정보원이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이 게재하는 기사 내용은 김일성 신격화의 일환으로서 「혁명전통」의 계승에 관한 내용과 당 정책의 선전과 그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 대남 정책으로서의 한국의 악선전과 조국 통일에 관한 선동과 아울러 반미(反美) 운동의 선동과 악선전 및 국제외교 내용 등으로 사회관계 보도 내용은 드물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기사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사」의 통신에 의존하며 기자들의 현지 취재활동에 의해 작성되는 것은 매우 적다. 이처럼 대부분이 당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지만 자체적인 통제와 검열과정은 반드시 거친다. 또 신문에 게재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승인을 받으며 특정기사 게재에 대한 지면의 크기나 위치까지도 그 지시에 따른다.

북한의 신문들은 각 신문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면을 구성한다.

제1면은 김일성(金日成) 연설문·담화문·시책지시와 김일성(金日成)의 외국(外國) 대표단(代表團) 접견 및 현지지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특종 보도나 각종 대회의 진행 뉴스를 게재한다.

제2면은 노동당의 시책인 공산주의 교양 및 교양자료 등이며 제3면은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과장한 기사나 혁신적 업적을 세웠다는 개별적인 인물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사 등이 게재된다.

제4면은 국제뉴스와 한국 사회상에 대한 비방 기사 등이 실리며 제5면에는 「반제(反帝)투쟁」 소식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날조·선전기사 등을 제6면은 대내의 뉴스에 대한 보충 또는 그 해설기사 등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1면에서 취급되는 특종보도란 한국 사회에서 소요사태 등을 과장날조한 기사 공산진영에서 개최한 중요 회의관계 기사 국가원수급 외국 대표단(代表團)의 방북(訪北) 기사 등이며 이처럼 북한의 고정 격식화된 신문의 지면 구성은 신문의 흥미와 필요불가결한 가치를 감

소시킨다. 다만 북한 노동당이 필요로 하는 선전·선동·조직 교화의 가치만을 중시하여 대중과 신문을 격리시키기도 한다.

북한(北韓)의 방송(放送) 개념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방송은 국가를 통합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 중요시된다. 방송은 신문에 비해 유연성이 있으며 통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방송을 「종이와 거리가 필요 없는 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을 통한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당은 방송을 「대중 선동자 대중 선전자」로서 정치 선전 및 정치 교육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전동맹(全同盟) 라디오위원회(VRK)는 「소비에트의 라디오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교시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문화적·정치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을 매일 노동자들에게 알리며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계급투쟁에 대한 진리(真理)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 방송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북한의 방송개념 역시 소련을 따르고 있다. 북한의 방송은 「인민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위업 실천으로 조직·동원하는 당의 강력한 선전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마이크는 인민의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내보내는데 바쳐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방송의 당성은 당연히 뉴스의 개념에 대해 정론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론성이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선전·선동·조직·교육 동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미하여 각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방송 개념 속에는 오락의 개념이 없다. 비록 「연극이나 노래도 그것이 예술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시 선전과 선동」이라는 신념이 공통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0년 10월 방송절을 제정하는 정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방송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방송은 노동당의 위력한 선전 수단의 하나로서 전체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의 선전 역량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방송부문 일꾼들은 김일성(金日成)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경제·군사력 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방송의 기능을 혁명과업수행에 주민을 동원시키기 위한 수단과 김일성(金日成) 유일사상의 선전 선동의 기능을 하며 북한 사회의 혁명·노동계급화를 꾀하는 한편 반미(反美)·한반도 적화 및 대외(對外) 선전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金日成)은 당적이며 인민적인 방송을 창설하여 당의 사상적 무기로 힘있는 선전·선동수단의 하나로 강화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일성(金日成)이 항일 무장투쟁 속에 이룩한 혁명적 출판물과 구두 선전활동의 전통을 계승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방송이 창설되어 오늘날과 같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방송으로 강화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다른 모든 부문과 마찬가지로 방송도 김일성(金日成)에 의해 창시·육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방송 행위가 김일성(金日成)과 당(黨)을 위한 사업(事業)에만 절대적으로 기여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 놓고 있다.

방송체계와 실태

북한의 방송은 당과 정무원의 이원 체제로 되어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정무원 직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당·정무원의 지도 감독에 따라 북한의 방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당으로부터 임명된다. 이 위원회는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정무원에 속해 있지만 방송하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당의 선전선동부와 대남사업부의 지시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의 방송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정무원에 속하면서 정무원의 체신부가 주관하여 각 방송국의 시설 기계의 관리 및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과 관계에 대한 인사권은 당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을 이원 체제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방송을 당이나 어느 조직의 기관방송으로 둘 수 없는 방송의 특성 때문이며 이것은 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통제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제도이다. 당 체계상의 특징은 대남방송의 직접적 운영으로서 대남 선전선동 내용의 방송을 주기능으로 하는 평양방송은 내면적으로는 중앙당 대남사업부가 맡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는 각 도(道)·시(市) 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군(郡)·읍(邑)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그 하부 기관으로 유선방송중계소가 있다.

그런데 1927년 2월(月) 16일(日) 일제가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란 이름으로 출력(出力) 1킬로 와트·호출부호 JODK로 한반도에서 방송을 시작(始作)한 이래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북한에는 평양·청진·해주·원산 등 5개의 방송국(放送局)이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金日成)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하는 이른바 「조국 개선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을 중계한 45년 10월(月) 14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기점으로 「조선중앙방송」을 개시했다고 선전하면서 정령으로 매년 이날을 「방송절」로 제정하고 있다.

해방 후 북한에 노동당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모든 방송시설이 6. 25 당시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북괴는 휴전 후 주민을 복구작업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대중 전달 수단인 방송시설과 기능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 그리하여 전후 평양시의 주요 가로들과 직장·구락부·각 도·시·군 소재지 및 노동자지구들에는 유선 방송망이 설치되었다.

55년(年) 4월(月) 9일(日)에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평양중앙방송의 출력(出力)을 1백 50킬로와트로 대폭 강화한 북괴는 그후 3백킬로와트로 증강시켰으며 '67년 12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조선중앙 제1방송」(3백킬로와트) 「조선중앙 제2방송」(5백킬로와트)으로 분리하여 제1중앙방송은 대내 방송·제2방송은 대외 및 대남방송의 기능을 맡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72년(年) 11월(月) 10일(日) 「조선중앙 제2방송」은 「평양방송」으로 다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국은 중앙국 2개, 지방국 10개, 유선방송국 1개, 특수국 1개 등으로부터 모두 17개의 단파방송과 25개의 중파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17개의 송신소와 20개의 중계소가 있으며 라디오 수신기는 약 2백만대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61년 8월 30일 남포 통신기계공장에서 11석짜리 라디오(천리마호)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 5석짜리 이상의 라디오는 반드시 사회안전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유선방송체계를 늘려 갖추는데 북한에서도 선전·선동·교육·동원의 수단으로 유선방송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라디오 수신기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적인 선전선동과 정보의 전달·동원의 수단으로 지역별·단체별로 집단형태로 수신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유선방송 사업은 '6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75년 11월 북한 방송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북한의 전 지역에 유선방송화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유선방송의 특징은 경제적이며 중계소의 방송프로를 방송하기 쉬워 지방적인 성격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송출하는데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당국과 민중을 연결하기가 쉽고 방송내용을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라디오 청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적에 의한 라디오 선전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북한의 TV방송(放送)

북한의 TV 방송은 '67년 4월 「조선중앙 TV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북한은 '71년 4월 15일에는 대남선전용으로 개성TV방송국을 개국 시켰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4기 4차회의가 '69년도 예산 결산과 '70년도 예산책정에서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생활을 위해 많은 TV수상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북한은 '71년에 전 지역의 텔레비전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계탑 건설을 벌여 5차 당대회 이후 1년 이내에 TV수신 가능지역을 전주민주세대의 76%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북한은 TV수상기에 있어서 동구식(OIBT식(式))을 사용하는 한편, 개성 TV방송국에서는 대남선전을 목적으로 미국식(US식(式)) 채널을 채택하고 있다. '62년 6월 남포통신기계공장에서 처음으로 TV수상기를 생산한 이래 현재 북한에는 20~25만대의 흑백 TV수상기가 보급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TV 수상기를 생산해내 온 과정을 살펴보면 '65년 2월에 자강도 흥천에 전자관 공장을 건설하여 TV수상기를 제작했으나 주요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였고, '68년 2월에 서독의 Siemens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평양에 전자관 생산공장을 건설하였다.

북한의 주요 TV수상기 제작공장으로는 평양 TV공장·남포 통신기계공장·안주 통신기계공장·단천 영예군인공장 외에 대동강 TV수상기공장이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TV시청은 단일페쇄식 시청방법으로 인해 북한지역의 일부지역만이 시청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선전실 및 기업소·직장단위로 가설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의 개인소유는 주로 시장책임비서·시(市)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의 고급간부들이다.

명언(名言)

“처음 배우는 이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할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스스로를 작게 여겨 물러 가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울곡 이이 -

현대산업사회(現代産業社會)에 있어서 급진변혁논리(急進變革論理)와 소외(疎外)의 극복(克服)

이정규(李正圭)

〈사회학박사(社會學博士) : 뉴욕주립 대학교수〉

1. 논의(論議)의 관점(觀點)

1970년(年) 봄 미국에서 반전운동(反戰運動)이 절정을 이룰 때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발표가 나오자,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농성을 하거나 빌딩을 점거하면서 방화, 폭탄투척 등 과격한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는가 하면, 대학구내에서 학장이 학생들에 의해 그의 집무실에서 축출되기 일췌였다.

그 해 한 해만 해도 미국 전역에 수 천 번의 데모가 있었고 대학에서도 37개 주에 200개의 캠퍼스가 데모의 와중에 휩쓸렸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젊은 층의 급진적 행동주의(行動主義) 경향은 1960년대 들어와 미국을 비롯한 독일·불란서·일본 등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서구 제국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들의 사상을 담은 책자나 데모하면서 내건 플래카드·팸플렛·빠라 같은 데에는 대체로, 「자본주의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마르크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들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한 마르크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1848년 공산당선언(共産黨宣言)이전 청년마르크스사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소외(人間疎外)의 필연성과 그 소외극복(疎外克服)에 의한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를 인본주의자(人本主義者)로 규정하며,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마르크스의 근본이념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이는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가 충실히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왔던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그 시행과정에서 마르크스 사상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선진자본주의사회도 외형적인 물질적 풍요와 번영 속에 나타난 소외와 비인간화(非人間化)현

상에 의해 인간해방의욕을 상실한 고독한 군중들이 집합한 사회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실천적 운동을 이끄는 전체적인 논리구조를 네오 마르크시즘(Neo-Marxism)과 뉴 레프트(New Left)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급진적(急進的) 사회변혁논리(社會變革論理)는 1960년(年) 대(代) 주로 서구 자본주의국가에서 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주로 후진자본주의국가의 학생운동 및 지식인의 반체제 운동의 촉매역할을 해왔다. 다시 말해 오늘날 남미를 비롯한 아시아(일본제외), 아프리카·중동 등지에서 현실사회에 대한 저항의 논리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런 급진논리로 무장한 일부 학생, 반체제인사(反體制人士)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혼란을 치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대응이나 검토가 미흡하고, 설득력 없는 현실 논리만 앞세워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급진적 행동논리의 실체를 이해하고 또 우리 현실에 비추어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네오 마르크시즘과 뉴 레프트운동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앞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사상적 움직임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사회의 산물이므로 이들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이론들이 생겨난 서구 선진사회의 성격 규명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에서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되는 소외(疎外)와 비인간화(非人間化) 현상을 이러한 급진사상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특히 「소외문제(疎外問題)」를 논의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선진사회의 본질적 현상임은 물론이러나와, 그에 덧붙여 이 문제가 급진사상이 극복해보려는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II. 현대산업사회(現代產業社會)와 소외(疎外)

1. 현대사회(現代社會)의 특징(特徵)

현대사회(現代社會)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물량(物量)을 기초로 하고, 그에 따라 사회는 분화(分化), 전문화(專門化), 표준화(標準化), 대형화(大型化)라는 특성을 띤다. 사회의 상품생산과 작업과정이 극도로 분화됨에 따라 전문가의 능력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된다. 사회의 분화는 작업과정의 상호연관성(相互關聯性)보다는 단편화된 노동과정을 중시하게 되어 일에 대한 창의력과 관심을 잃게 되고, 전문화는 고도로 분화된 과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전반의 기술관료적 지배현상을 낳고 국민주권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한다.

생산과정의 표준화와 기계화는 경제영역(經濟領域) 이외에도 확산된다. 사회는 더 이상 개성과 차이를 거부하고 그 대신 획일적이고 사회 순응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며, 인간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주체로서 보다도 그에게 구조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담당하는 살아있는 기계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생산과정의 대형화는 국민의 주거관념에도 파급되어 정신적인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물질적인 측면을 통해 자신을 전신하려는 잘못된 심리를 낳고 인간 관계는 아픔과 정열이 넘치는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이탈하여 돌처럼 차가운 「물건과 물건의 관계」가 되어 버린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자기자신에 대한 이미지마저도 물건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잘못된 의식이 산업화된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後期產業社會)는 단순한 물량적 풍요와 대중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노미(Anomie)나 소외(Alienation)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외의 원인은 산업화과정(產業化過程)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와 산업화의 결과에 나타난 제(諸) 사회관계 사이의 모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기존의 생산양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이 주장하는 소위 사회적 생산관계가 인간의식(人間意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보다 복잡한 질문에 접하게 된다. 여기서 명백히 해야 할 점은 생산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네오-마르크시즘의 입장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사회의 생산관계에 기인한다고 말함으로써 소외문제의 보편적인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후기산업사회 혹은 현대산업사회는 위에서 열거한 특성을 지닌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동시에 보편적으로 소외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 일반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2. 소외의 개념

소외(疎外)란 무엇인가? 왜 그것이 갑자기 유행어처럼 나타나게 되었는가? 혹은 이 소외의 극복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소외」의 참다운 의미는 소외가 나타난 시대와 장소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의 의미를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곧 현대사회의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상황의 부수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으로서의 「소외」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20년대 네오 마르크시즘의 비조(鼻祖)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Lukács)가 이를 취급하면서부터이다.

첫째, 소외는 우선 정신적인 영역의 한 특수현상, 즉 심리적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애정이 일방적일 때,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감상이 일어날 때, 혹은 무언가 분주한 사회생활(社會生活)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공백감과 같은 것이 바로 소외이다.

그것은 나아가 인간심리(人間心理)의 병리적 현상으로, 곧 왜곡(歪曲)된 정신적 무질서상태(無秩序狀態)로 나아갈 경우를 포함할 것이다.

둘째, 또한 소외는 생산(生産), 의사소통, 계급적 관계에 있어 사회생활의 변동리에 위치한 일군의 「한계인간(Marginal Man)」에게 있을 수 있다. 한계인간(限界人間)은 산업화의 직접적인 산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화의 결과 이 과정에서 외면되고 배제된 일군의 사람들이란 점에서 그것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들 한계인간은 때때로 매우 단결된, 따라서 응집력이 큰 생활을 영위하는 까닭에 소외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외부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혹은 산업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급속히 소외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혹은 소외는 현대사회의 노동과 자본의 모순에서 발생한다고 말해진다. 곧 현대사회는 탈산업화(脫産業化)의 결과 더 이상 고전적 마르크시즘이 말하는 자본가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세력과 자본가세력과의 대립이라는 일종의 조합주의적(組合主義的) 지배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분리 및 이들의 상관관계의 질적 측면에는 커다란 변화를 미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 자본에서 분리된 노동의 소외, 곧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일반의 소외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끝으로 소외는 문명일반(文明一般)에 관련되어서 논의되기도 한다. 문명일반이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욕구를 규제하면서 질서와 규율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소외는 사회가 있는 곳에 필연코 있기 마련이며 그것은 문명에 내재적(內在的)인 것이라는 설명이 될 수 있다. 곧 문명인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문명에 내재적인 소외를 갖기 마련이며, 원시인이 아닌 이상 사회의 발전단계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외의 의미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그것이 특히 현대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외」를 특정시간을 초월한 초시간적 개념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과 관련된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산업사회의 특이한 소외현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만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소외」의 진원을 밝힐 수 있다.

3. 현대산업사회(現代産業社會)에 있어서 소외의 양(兩) 측면(側面)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소외는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산업사회의 성격규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대산업사회는 물질적 풍요(豊饒)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喪失)하고 자신의 여가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외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아직 산업화 과정에 있고 물질적 해방(解放)에 뒤따른 시간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소외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이거나 사회주의사회를 막론하고 탈산업화과정(脫産業化過程)에 들어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소외는 일면 인간생활이 과거처럼 빈곤(貧困)과 부족(不足)

에 얽매어 있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으로서 문명의 일정 단계에 나타나는 목적상실(目的喪失)에서 오는 무기력을 의미하며, 인간이 갖게 된 방대한 여가를 선용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소외는 생산과정(生産過程)이 노동(勞動)과 자본(資本)으로 분리됨에 따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 놓은 생산물과 다른 생산자로부터, 자기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소외는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외화과정(外化過程)에서 나오는 생산양식의 계층성에 있게 되며, 그것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체제에서는 사회일반에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III. 소외(疎外)의 극복(克服)문제

소외의 개념과 정의가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외의 극복(克服) 또한 다양한 처방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대체로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전통사회(傳統社會)로의 회귀(回歸)

첫째, 소외를 현대대중사회(現代大衆社會)의 방향상실(方向喪失) 또는 아노미(Anomie)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극복방안(克服方案)이다. 현대사회는 물량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사회운영은 비인간적인 기계화의 과정에서 진행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많은 인간군(人間群)이 생활 전면에 나타나는 관계로 인간관계도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이다.

그리하여 인간관계는 목적상실로 인한 소외폭발(疎外暴發)이 일어난다. 그것은 일면 전통적이고 익숙해 있던 관행(慣行)과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반면 아직 이에 대치할 삶의 양식(樣式)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못한 곳에서 혹은 새로운 양식이 더 이상 과거처럼 인간의 안주와 귀속감(歸屬感)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데에서 일어난다.

특히 지리적·계층적으로 사회적 동원이 급속히 일어난 사회에서 이러한 소외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를 사회학적으로 「아노미 (Anomie)」라고 부른다.

또한 문명일반(文明一般)의 차원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현대사회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적인 정치체(政治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意志)를 그대로 공동체의 결정에 반영할 수 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의회제(議會制)가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정치적 인식이 범주안으로 들어온 대중을 소위 ‘대의제(代議制)’에 의해 대표하려는 노력은 다시금 회의(懷疑)를 낳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그것이 지닌 법적 평등, 사회적 예의, 도덕과 의사에 기초한 정치체 등 수많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소외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시금 전통사회(傳統社會)가 지닌 문화적 결속력에 의 존하자는 주장이 있다. 곧 대중지배(大衆支配)에서 엘리트지배로, 이익 사회적 시민사회(市民社會)에서 공동사회적 정치체(政治體)로, 산업사회에서 소단위의 전산업사회(前産業社會)으로 시계방향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극복방안이 반드시 시간적인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를 불 들어 두려는 관점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본능의 억제나 해방을 통한 소외의 극복

둘째, 소외가 문명(文明)과 인간감성(人間感性)의 대립 때문에 일어났다는 관점에서 극복방 안을 생각해보려는 입장이다. 문명일반이 인간의 고유한 쾌락본능과 자기중심적 본능을 억압하 면서 질서와 규율을 강조하는 사회유지적(社會維持的) 기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간 본능 과 문명 일반의 충돌, 혹은 인간의 밖으로 나타난 행동과 잠재적(潛在的) 욕구의 근본적 대립이 불가피하다.

사실 문명은 인간개체의 자유와 욕구의 충족보다는 종족집단(種族集團)의 보존을 중요시해 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가 속하는 사회 질서 와 어느 정도의 대립 혹은 긴장관계(緊張關係)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장관계가 현대문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견디어 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올라섰다는 점에서 인간본성에 대한 현대산업사회의 억압은 두드러진다.

이처럼 문명과 인간본성(人間本性)의 대립을 소외의 근본원인으로 파악하게 될 때 그 극복방 안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두가지의 길, 곧 문명이 인간본성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그 역으로 인 간본성이 문명에 적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두가지 방안 중 역사 일반이 보여준 해결방안은 인간이 문명에 적응하는 방안인데, 그것은 오로지 소외를 더욱 가중시켜왔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만약 인간이 완전한 의미의 자동기계(自 動機械)로 전환될 수 없다면, 인간을 문명에 맞추려는 노력에 비례하여 그만큼 인간행복(人間 幸福)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소외에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심리적 치료나 개조를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정 도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본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러한 주장이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본능의 발전이 역사적 조건의 성숙과 더불어 가 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미리 막는 것은 아니다.

문명을 인간본능에 맞게 적응시키려는 방안은 곧 인간의 억제된 본능을 해방함으로써, 그리 고 문명을 다소간 이러한 해방의 수단 혹은 추진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외의 극복이 가능하도 고 설명되고 있다.

그 첫 조치는 지금까지 억제된 인간의 본능이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문명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국한하는 것이다. 곧 장애물로서의 제도, 사회관계, 언어의 역할이 한정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간적인」 문명은 인간해방(人間解放)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거기서 기존문명의 역할은 우선 이러한 억압된 본능을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 간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애물로 자신을 제시하는데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본능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데 실패할 때 - 곧 그 어떤 문명도 인간본능과 조 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 때 - 인간은 역사를 통해 쌓아 올린 문명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 만약 문명이 최소한의 가치, 즉 인간의 필요악이라면 그 문명을 대처할 방안이 없이 이를 위기로 몰 아넣는 상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소외극복(疎外克服)을 위하여 문명을 그 주된 해악으로 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폐 허가 된 문명의 잔해 위에서 참다운 인간의 해방과 기쁨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 로 남는다.

3. 노동소외의 극복

셋째, 소외를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 고유한 생산관계적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에서의 극복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소외는 그 이전에도 어느 정 도 있었겠지만, 자본제적 상품생산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소외의 원인을 우선 산업사회의 노동분화(勞働分化)에서,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을 자 본주의적 생산방식(生産方式)에서 찾고 있다.

소외를 노동분화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때 소외의 극복문제는 어떻게 노동의 분 화를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로 변형된다. 노동분화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시민사회가 생산활동 의 증대를 통해 사회일반의 물질적 확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 때, 노동분화는 소외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에의 종속(從屬)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경제기초를 확립 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의 확대를 통해 인간소외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필연적으 로 소외를 보편화(普遍化)한다는 입장으로 발전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유래하는 소외 는 곧 노동의 생산물과 노동의 존재조건이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부터 독립되고 대립되면서 점 차 확대할 국면에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물의 가치관계 및 인간관계의 물화현상(物化現象) 은 사상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교환가치에로 전락시켜 상품에 대한 물신숭배(物神崇拜)를 빛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과 대상에 대한 관념들이 근거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근 본적으로 변혁시킴으로써 소외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빛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내

재적인 비인간적 측면을 제거하고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좁히는 정치적 결단을 제거하고,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좁히는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소외의 극복은 이처럼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소외를 지양하려는 제도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IV. 결어(結語)

이상에서 우리는 소외의 극복방안을 둘러싼 세가지 입장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소외의 개념이 복합적(複合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극복방안이 개념의 함수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문제는 소외의 극복이 정치적 선전의 수준을 넘어서 과연 완전히 이루어질 성질의 것인가에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사회에서의 도피나 과거로의 이행(移行)은 일시적 방편일 수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문명에 대한 전면적 거부나 자본제적 질서의 변혁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틀속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극복방안은 기껏해야 이론적 수준의 문제로 남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황의 일부로서 소외를 피할 수 없으며 소외와 함께 살아갈 운명에 있다. 그러나 이 소외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지닌 문제를 진지하게 의식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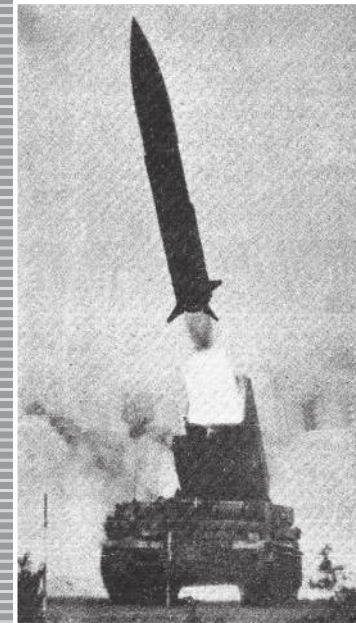
- 참고문헌(參考文獻) -

1. C. W. Mills, "The Marxists", Washington press Co., 1982.
2. Karl. R. Popper, "열린사회(社會)와 그 적(敵)들", Boston Phillips press. 1980.
3. "신(新) 기원(紀元)", 현대산업사회(現代産業社會)와 급진변혁(急進變革) 논리(論理)", 1984.
4. J. A. Schumpeter. "The Capitalism, Socialism & Democracism", Harvard publish Co., 1978.

군사지식(軍事知識)

프랑스의 핵전력(核戰力) 현황(現況)

중령(中領) 정 용 진(丁龍鎭)
〈공군사관학교〉



목 차(目次)

- 1. 국방정책(國防政策) 및 국방전략(國防政略)
- 2. 핵군(核軍) 현황(現況)
- 3. 핵군(核軍)의 전망(展望)
- 4. 자료(資料)

프랑스는 세계(世界) 1, 2차대전(次大戰)을 거치면서 받아온 그들의 불명예(不名譽), 인도차이나 전쟁(戰爭)(1946~1954), 스웨즈운하 분쟁(紛爭)(1956), 알제리 전쟁(戰爭)(1954~1962) 등에서 외국군(外國軍)과 대항(對抗)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惡化)되지만 했다. 그러나, 1958년 드골장군의 등장과 함께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이름아래 국력신장(国力伸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世界) 3위(位)의 핵강대국(核強大國)이면서 3위(位)의 무기(武器) 수출국(輸出國)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군(軍)은 프랑스에 관하여 보다 깊은 관심(關心) 및 이해(理解)를 증진(增進)시키기 위해 불(佛)의 기본국방전략(基本國防政略)인 핵억제전략(核抑制戰略)을 이해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체제(核武器體制) 및 앞으로의 전망(展望)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방정책(國防政策) 및 국방전략(國防政略)

프랑스는 1958년 10월 드골장군(將軍)의 정계복귀(政界復歸)로 미(美)·소(蘇)와 동등한 유럽세력권(勢力圈)을 건설(建設)하여 주도권(主導權) 장악(掌握)과 함께 프랑스의 위신(威身)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獨立的)인 핵무기(核武器)(1960년 핵실험(核實驗)성공)를 개발하였으며 1966년에는 NATO군사기구(軍事機構)로부터 이탈(離脫)하면서 채택된 국방정책(國防政策)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된 미(美)·소(蘇)의 개념을 배격(排擊)하고 의사결정(意思決定)의 중심을 다극화(多極化)함으로써 강대국(強大國)의 독점을 막고 서구의 자율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핵전력(核戰力) 보유(保有) 및 재래식병력(在來式兵力)의 강화(強化)에 있다.

현(現) 국방정책(國防政策)에 관해서 라카즈(Lacaze) 합참의장(合參議長)이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을 종합하면(1984.5.19), 핵공격력(核攻擊力)의 강화(強化) 유럽방위에 대한 참여(서독(西獨)에 3개사단 주둔, 우방국(友邦國)에 대한 군사지원(軍事支援) 및 분쟁(紛爭)에 대한 개입(介入),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연구개발(研究開發)(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선포한 “별들의 전쟁”에 대비한 기술개발(技術開發))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국방전략개념(國防政略概念)은 전략(戰略) 및 전술핵(戰術核)에 의지하며, 평화

(平和)시 적(敵)의 침략의욕(侵略意慾)을 사전저지(事前沮止)시킴으로써 전쟁(戰爭)을 예방하는 “핵(核) 억제전략(抑制戰略)(Dissuasion- Nuclear)”을 기본으로 한다. 프랑스의 총(總) 핵위력(核威力)은 대략 100MT으로(소련의 핵전력(核戰力) 비례(比例) 1 : 15, 000) 상대국(相對國)의 주요군사(主要軍事) 목표(目標)(300개 선정)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공격전략(攻擊戰略)을 갖고 있다.

또한 “핵(核) 억제전략(抑制戰略)”의 실패로 전쟁발발에는 유럽방위를 위해 국경지역(國境地域)에서 재래식무기(在來式武器) 및 핵무기(核武器)로 적(敵)을 격멸(擊滅)하는 국경방위전략(國境防衛戰略)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프랑스 영토내에 적병력(敵兵力)의 침입에 대해서는 각 지역 독자적 또는 기동군(機動軍)과 연합하여 대(對) 요격전(邀擊戰)을 실시하는 저항전략(抵抗戰略)이 있으며, 이를 위해 헌병군(憲兵軍)(74,000명) 및 예비군(豫備軍)(1,200만명)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자국(自國)의 이권수호(利權守護)를 위해 언제든지 국내외(國內外)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긴급개입군(緊急介入軍)(1984년 창설 : 병력, 47,000명 헬기, 200대)을 보유하고 있다.

2. 핵군현황(核軍現況)

불(佛)의 핵군(核軍)은 전술핵군(戰術核軍)과 전략핵군(戰略核軍)으로 크게 대분할 수 있다. 전략핵군(戰略核軍)은 공군(空軍)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18기 및 MIRAGE 4에 의한 핵폭탄(核爆彈)(AN- 22), 해군(海軍)이 보유하고 있는 5척의 전략(戰略) 핵잠수함(核潛水艦)(각 16기 보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핵군(戰術核軍)은 공군(空軍)의 9개전투대대(1개 대대당 15대), 육군의 5개 PLUTON(전술핵(戰術核) 명칭) 연대, 해군의 함재기로 구성되어 있다.

3. 핵군(核軍)의 전망(展望)

불군(佛軍)은 1984년부터 시작된 5차5개년 군비증강계획(軍備增強計劃)을 추진중에 있으며 핵무기(核武器)의 유지정확도(維持正確度) 향상(向上) 및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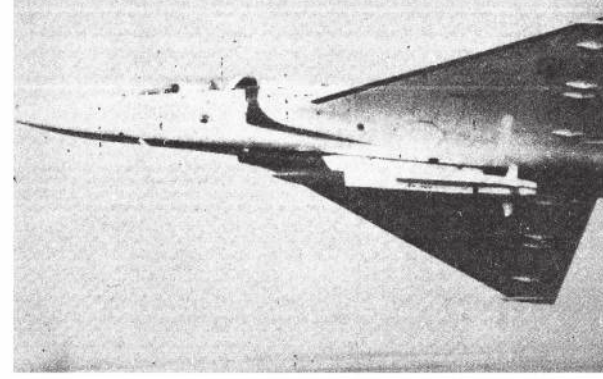
'84년도 국방예산(1,421억 프랑)중 핵군(核軍)의 전력증강(戰力增強)을 위해 205억프랑을 투자했으며 '85년도에도 전체국방예산(1,520억 프랑) 중 233.8억 프랑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공군(空軍)은 지금의 S-3 형인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을 소련의 SS-20 과 같이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85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대지 순항 핵 미사일은 곧 작전배치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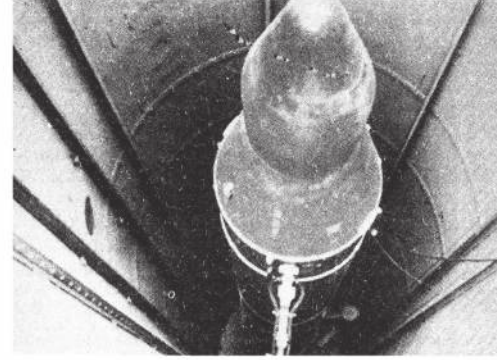
핵 군 현황 (核軍現況)

출처 : LA DEFENSE EN CHIFFERES 1984

구분	군별(軍別)	전력(戰力)	무장(武裝)	행동반경	비고
전술핵군 (戰術核軍)	공군 (空軍)	2개 대대의 MIRAGE 3E	AN-52	900km	- 1개 대대당 15대의 항공기로 구성 - AN-52를 순항미사일 (ASMP)로 교체 예정
		3개 대대의 JAGUAR	(25KT의 핵(核) 장착) 레이다 공격(AS-37) 전자전 수행		
	육군 (陸軍)	2개 대대의 MIRAGE 3E(임호기)	PLUTON (15~25KT의 핵(核) 장착)	120km	
		2개 대대의 JAGUAR(임호기)	AN-52 (25KT의 핵(核))	550km	- 각 항모마다 18대의 핵공격 함재기 보유
전략핵군 (戰略核軍)	해군 (海軍)	5개 연대 (각 연대마다 6기씩 보유)	S-3 (1MT의 핵(核))	3,500km	- 1개 부대당 9기씩 보유
		3개 대대의 함재기(Super-Etendard) (항모 2척에 분산 배치)	AN-22 (60~70KT의 핵(核)폭탄 38Ton의 연료보급)	1,300km 2,500km (공중급유)	
	공군 (空軍)	지대지 공격미사일(SSBS-3) (2개부대 보유)	M-20 (1MT의 핵(核))	38Ton의 연료적재시 4,200km	
	공군 (空軍)	2개 대대의 폭격기 (31대의 MIRAGE 4)			
		1개 대대의 공중급유기 (11대의 C135F)			
해군 (海軍)	5척의 대지공격 핵 잠수함			3,000km	- 각 잠수함마다 16기씩 미사일 보유



▲ MIRAGE 2,000N(순항미사일 장착 : AS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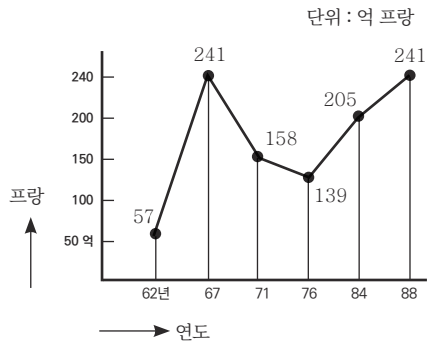


▲ S-3형 지대지 핵 미사일



▲ 전략 핵 미사일(SNLE)

핵전력(核戰力)에 대한 투입예산



※ 단위: 억 프랑 = 100억권
 ※ 출처: armea d'aujourd' hui ('83년 10월)

해군은 잠수함발사 미사일을 다탄두 핵미사일(M-4형)로 대체 중에 있으며 육군은 지금의 전술핵 미사일(PLUTON)을 유효거리 및 정확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180개의 미사일 탄도탄을 보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결론적(結論的)으로 1966년부터 현 국방정책을 지속해온 프랑스군은 평화시(平和時)에는 적(敵)의 침략의욕(侵略意慾)을 사전저지(事前阻止)시킴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는 “핵(核) 억제전략(抑制戰略)”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면서 어떠한 형태의 분쟁(紛爭)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래식(在來式) 무기(武器)의 강화(強化)에도 주력하여 왔다.

프랑스의 핵군(核軍)은 전략핵군(戰略核軍)과 전술핵군(戰術核軍)으로 구분되며 공군(空軍) 및 해군(海軍)이 전략핵(戰略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술핵(戰術核)은 3군(軍)이 모두 보유함으로써 세계(世界) 3위(位)의 핵전력(核戰力)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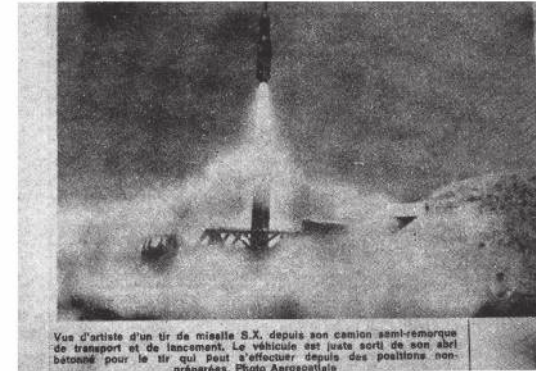
핵무기(核武器) 증강계획(增強計劃)

출처: AIR ET COSMOS 1984(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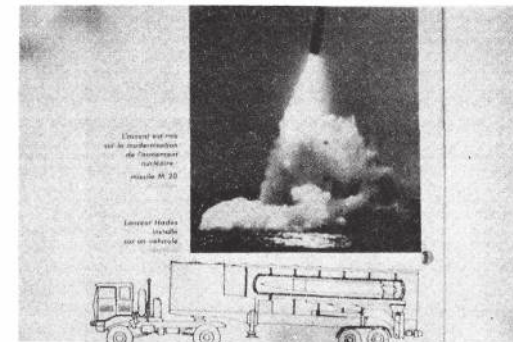
군별(軍別)	명칭	작전배치(年)	성능	비고
공군(空軍)	S-X형 (이동미사일)	1996	유효거리: 3,500km 탄도: 3150KT	지금의 지대지 핵(核)미사일(S-3형)에 대한 교체 차량에 적재함으로써 은밀성 향상(페싱 II) 산속에 위치하며 여러 개의 출입문 사용 수송기에 의한 공수 가능
	ASMP (공대지 순항미사일)	1987	순항거리: 10km 이상 탄도: 20~65KT	지금의 AN-52 및 AN-22와 교체예정 목표지역 밖에서 공격
해군(海軍)	M-4 (잠수함 발사 미사일)	1985	유효거리: 4,000km 탄도: 6×150KT	- 1985년부터 작전배치 되는 6번째 핵 잠수함에 처음으로 장착 - 기존 잠수함에 장착된 M-20형을 2000년까지 M-4로 교체
	M-5	1994	유효거리: 6,000km 탄도: 10MIRV	1994년부터 작전배치 예정인 7번째 핵잠수함에 장착 예정
육군(陸軍)	HADES	1992	유효거리: 350km 탄도: 10~25KT	- 1974년부터 작전배치 되어온 전술핵무기(PLUTON)의 교체 - 불육군(佛陸軍)은 모두 180개 미사일 배치 예정



▲ 전략 폭격기(MIGAGE 4P)



▲ S-X형 지대지 핵 미사일



▲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M 20) 및 지대지 전술 핵미사일(HADES)

특히, '84년부터 시작된 5차(次) 5개년(個年) 군비(軍備) 증강계획(增強計劃)을 통하여 핵군(核軍)의 전력증강(戰力增強)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핵(核) 억제전략(抑制戰略)을 고수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수정된 핵(核) 억제전략(抑制戰略)이 한민족(韓民族)의 생존전략(生存戰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研究)와 과학기술(科學技術)을 발전(發展)시켜야 하겠다.

4. 자료(資料)



IMT 핵 폭발시 위력

프랑스의 전략핵무기 개발현황

군 별	명 칭	작전배치	핵 미사일		비 고
			유효거리	탄도	
공군 (空軍)	S-2 형	• 1971년 • 2개 부대(18개 미사일)	2,750km	1150KT	• CEA : 900m
	S-3 형	• 1980년 • S-2형의 개량 • 2개 부대	3,500km	11MT	• S-2 형 개량형 • CEA : 830m
	S-X 형	• 1996년 예정 • Mobile MSL • 발사대 : 차량	3,500km	3150KT	• 차량발사대로 산속에 위치하며 여러 개의 출입문을 갖고 있다. • 수송기에 의한 공수도 생각하고 있음(소련의 SS-20과 비슷)
해군 (海軍)	M-1형	• 1971년	2,750km	1500KT	• 최초의 핵공격 잠수함(Redoubtable)에 장착 • 지금은 M-20형으로 교체되었음.
	M-2형	• 1974년	3,000km	1150KT	
	M-20형	• 1977년	3,000km	11MT	• 5척의 핵공격 잠수함에 장착 • 1986년부터 M-4형으로 교체
	M-4형	• 1985년	4,000km	6150KT	• 1985년부터 작전배치 되는 6번째 핵잠수함(inflexible)에 처음으로 장착
	M-5형	• 1994년	6,000km	10MIRV	• 1994년부터 작전배치 예정인 7번째 핵 잠수함에 장착 예정

주요핵군(主要核軍) 증강계획(增強計劃)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항 목	기 간		계
	1984~1985	1986~1988	
SNLE 핵(核) 잠수함(潛水艦)	-	1	1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량 (최신형 : M - 4 형)	1	2	3
공중지휘 항공기	4	-	4
MIRAGE 4에 장착될 순항 핵(核) 미사일(ASMP) 확보	18	-	18
급유기(C- 135F)의 엔진 교체	7	-	7
MIRAGE 2,000N(전술핵 공격기 및 ASMP 확보	32	38	70
HADES(전술핵) 연대		1	1
함재기에 장착될 ASMP 확보	10	40	50

출처 : LE BUDGET DE LA DEFENSE 1984

각국 핵무기 비교

무기체계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지대지미사일발사대	1,050	1,398	18	-	110
핵 공격 잠수함	32	81	5	4	-
총 미사일 수	520	944	80	64	
폭격기 (댓수)	316	150	34	-	120

출처 : LA DEFENSE EN CHIFFRES 1984

핵 공격 잠수함 비교

국적	핵 잠수함		핵 미사일			
	형	중량	숫자	명칭	거리	핵탄두
소련	DELTA 3	13,300t	16	SSN18	8,000km	3~7 MIRV
	TYPHOON	25,000t	20	SSN 20	7,400km	12 MIRV
미국	LAFAYETTE	8,250t	16	POSEIDON	5,900km	1450KT
			16	TRIDENT I	8,000km	8100KT
	OHIO	18,750t	24	TRIDENT I	8,000km	8100KT
			24	TRIDENT II	11,000km	14150KT
프랑스	REDOUTABLE	9,000t	16	M20	3,000km	11MT
			16	M 4	4,000km	6150KT
	SNLE-NG	12,000t	16	M 4	4,000km	6150KT
			16	M 5	6,000km	10MIRV

출처 : AIR ET COSMOS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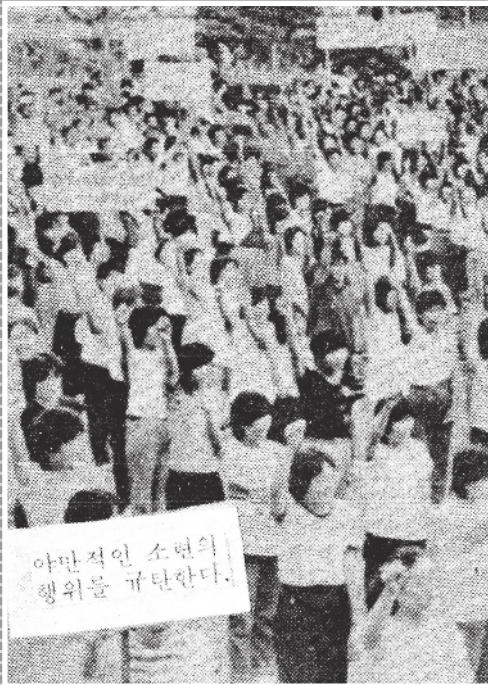
주요 핵무기 성능 비교

	GLCM	PERSHING II	SS-20
형태	순항 미사일	탄도	탄도
길이	6.4m	10.49	16m
지름	0.53m	1.02m	1.70m
중량	1,450kg	7,200kg	40T
순항속도	885km/H	-	-
항속(유효)거리	4시간	대략 12분	10~15분
시간	2,500km	1,800km	4,400~5,000km
정확도	100m 이내	50m 이내	대략 400m
핵탄두	1KT	1KT	3150KT
발사대	차량	차량	차량
공수가능	가능	가능	가능

미·소 항공기(美·蘇航空機) 전파 첩보전(電波 諜報戰)

- KAL 사건으로 드러난 그 실상 -

편집실(編輯室)



- 이 자료는 교육자료로서 과학평론
- 가 서광운씨(徐光云氏)가 월간지에
- 게재한 글에서 발췌했으며 내용은
- 미·소 전파전의 군사력 비교이다.

RC-135기의 기능

먼저 미국의 RC-135기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RC-135는 미전략공군사령부(SAC)의 장거리 정찰기로 18~20시간 비행할 수 있다.

기내에는 통신도청장치와 함께 약 30명의 공군요원과 수명의 전자전략담당 장교가 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군의 통신 정보수집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지휘를 받고 있다.

RC-135는 목표국가 부근에서 NSA가 지시하는 궤도를 「8자」와 비슷한 코스에 따라 비행한다.

8자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까닭은 상대방의 영공에 잘못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목표국가의 영공에 접근하는 일도 있으며 이것은 상대방의 조기경보체제의 약점이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것.

이러한 정찰기에 의한 정보수집은 위성이나 지상수신 시설로는 불가능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구역에서는 365일 24시간체제로 정찰기가 날아 1대가 착륙하게 되면 반드시 그전에 다른 1대가 이륙하게 된다.

또 RC-135는 백채널이라고 불리는 통신시설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보수뇌에게 현장에서 일어난 정보를 곧바로 전할 수 있으며 가령 일본 근해를 비행중인 경우는 「크리틱」이라는 코드명으로 10분 이내에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첩보기는 적의 행동을 탐지해내서 아군기에 경고발신을 보내거나 적 레이더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공중정보(空中情報) 전쟁

다음으로 2차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미·소의 쫓고 쫓기는 항공기 정보전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항공기 스파이전쟁에서 미국은 50년 이후 적어도 27대의 비행기를 잃었고 60대가 공격을 받았으며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종사 또는 특수요원 1백 3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 가지 실례를 알아본다.

△ 58년 6월 27일 = 9명의 요원이 탄 CIA 스파이기가 소련의 코카서스 상공에서 격추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즉시 비밀리에 보고됐다가 지금부터 불과 2년 전

에 비밀유지 딱지가 떨어졌다.

△ 58년 9월 2일 = 17명의 NSA 요원을 태운 정찰기가 소련의 아르메니아 상공에서 격추됐다.

△ 60년 5월 = 11일 당시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이 됐던 U-2기가 소련의 우랄상공에서 격추됐다.

△ 60년 6월 1일 = RC-135의 전신인 RB-47기가 바렌츠바다 상공에서 소련측에 의해 격추됐다.

△ 64년 1월과 3월 = 동독 상공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미국 T-39와 RB-6 6기가 격추됐다.

이상의 실례는 미국의 스파이기가 피격된 두드러진 케이스지만 소련측의 피격사례는 일체 비밀로 붙여지고 있다.

상당수의 위성정보 외에 미국의 현재 사용 중의 스파이기는 RC-135, U-2, TR-1S, SR-71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정체가 드러난 RC-135기는 60년대 중반에 나온 전자정보수집기로서 17시간 이상 공중에 머무르면서 소련의 레이더 시그널과 지상관제소로부터의 대화내용을 지름 2.5cm 크기의 자석테이프에 수록한다.

전파로 탐지된 이 자료는 기지에 돌아온 후 컴퓨터에 넣어져 소련의 정확한 레이더기지의 위치와 통신내용을 밝혀낸다.

RC-135기는 2백 40km 거리에서 좌우 양쪽을 동시에 정찰하는 레이더를 부착하고 부분의 넓은 패널이 특징인데 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이 목표물을 추적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지도를 작성해 주고 있다.

상대방의 영공에 들어가 방공체제의 반응을 촉발시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쓰는 일이 많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비행기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미국은 한 번 임무에서 돌아오면 넘버, 안테나, 마이크 등을 모두 바꾸어 버린다.

RC-135기는 대개 10.5km 상공에서 상대방의 전자송출부호를 청취하는데 상태가 좋은 날이면 최고 1천 6백km까지 청취할 수 있다.

SR-71기의 정체

그리고 미국정찰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소련쪽에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블랙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SR-71기이다.

이 첩보기는 타타늄으로 특수제작 된 것으로 25.5km 상공에서 한 시간 동안 3천 2백km를 날면서 5천 6백km의 행동반경을 갖고 지상의 물체를 용단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SR-71기는 소련의 어떤 전투기도 심지어 소련의 공대공미사일도 맥을 못 칠 정도로 빠르다.

현존하는 비행기 중에서 가장 빨리 런던-뉴욕 간을 2시간 이내에 날 수가 있다.

미그-25기를 몰고, '76년 일본으로 망명한 빅토르·벨렌코는 그의 자서전에서 「SR-71기는 자신을 뒤쫓는 미그-25를 마치 조롱하듯, 가지고 놀듯,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대로 사라져 종잡을 수가 없게 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SR-71기는 중공 상공에도 자주 날아가 정찰활동을 벌였는데 중공측의 강력한 항의로 '71년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고 난 직후 비행을 중지시킨 적이 있다.

RC-135기가 전파탐지의 기능을 자랑한다면 SR-71은 사진촬영의 주기능을 과시할 수 있다.

보통첩보위성이 열적외선을 이용해서 1백 85km 상공에서 30cm의 크기의 물체까지 찍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SR-71 같은 초고성능 정찰기가 살살이 누비면서 촬영하는 편이 보다 긴요하다.

NSA가 보유, 이용하고 있는 정찰기는 17대의 RC-135기, 9대의 SR-71기, 8대의 U-2기 그리고 2대의 TR-1S기와 수백대의 전술정찰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이들 스파이기를 주로 소련과의 접경기지에 배치하고 있으며 영국, 그리스·오기나와·키프로스·터키 등지에 특별기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첩보기는 오기나와 필립핀에서 발견하여 주로 사할린 부근의 소련 극동기지를 정찰하고, 알래스카에서 발견한 첩보기는 쿠릴열도를 따라 역시 소련 극동군의 방공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 빌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고성능 첩보기는 북태평양은 물론 소련의 극동지역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해역에서 KAL-007기의 격추사건이 빚어진 것이다.

일본의 지상기지

이번에는 KAL기 격추현장으로 눈을 돌려 지상레이더 추적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번 사건으로 마일 두 나라의 정보수집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솔츠 국무장관 등 미국측 증언과 일본측 발표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상오 1시부터 이미 소련기가 KAL기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본은 2시간 20분 후인 3시 20분에 비로소 소련기가 출현한 것을 발견했다.

출동한 소련기의 숫자도 미국은 8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본항공자위대는 3대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KAL기가 두 나라 레이더에서 사라진 시간도 9분의 차가 난다.

이 9분의 차가 어쩌면 미국과 일본의 전자정보전의 실력차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은 평소에 소련의 움직임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발표로 세

상에 다시 한 번 드러난 셈.

슐츠 국무장관의 발표가 늦어진 것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미국정부에서 전파정보의 수집,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안전보장국(NSA)이다.

KAL기 사건을 추적한 것도 NSA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기관은 1952년에 설립된 후 기관의 임무는 대통령 비밀명령에 따라 일체 비밀에 붙여져 있다.

지금 일본에는 NSA 수신기지가 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해군이 관리하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가미요리다니(上瀬谷) 통신기지, 공군 6986 보안부대가 관리하는 북해도 최북단의 와까나이(稚内)통신소, 육군보안대가 관리하는 찌도세(천세) 통신기지 그리고 육군 12보안부대가 관리하는 히라오(평미) 통신기지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가미요리다니(上瀬谷) 기지에 있는 전파수신장치는 소련군의 교신, 소련 레이더에 비치는 영상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KAL기사건의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것도 이곳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까닭에 소련도 이 기지에 대해 신경을 몹시 쓴 나머지 1963년에는 캐나다 여권을 위조하여 전자 기기 수집상을 가장한 스파이를 이곳에 침투시키려다 CIA에 납치당한 007극을 벌인 일도 있다.

이곳에서 수집, 분석한 정보는 5분 이내에 백악관의 정보분석실로 보내지는 만큼 미국이 KAL기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다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은 정보능력을 상대방에 알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과 소련이 설마 비무장 민간기를 격추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일본의 NHK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한편 일본의 자위대도 북해도의 히가시찌도세(동천세), 히가시네무로(동근실), 와까나이(稚内), 니이가다(新潟)현의 고부네와다리(小선渡) 등 9개소에 통신소와 파견대를 운영하여 독자적인 대소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이번의 KAL기 격추사건에서도 항공자위대의 레이더와 운수성의 동경국제통신국의 KAL기와의 통신내용 외에 북해도에 배치된 전파수신기지를 통해 소련기의 교신내용을 캐치해서 분석해 냈었다.

위성도 감시하고 있다.

또 KAL기 피격사건으로 드러난 것에 알류산열도의 세미야도에 있는 미국의 정교한 청취기와 북해도 북부의 미사와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청취기지가 있다.

이들 기지에 녹음된 정보들은 일본의 민간관제소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로부터 한

국과 일본의 청취기지에서 포착된 민감한 군사통신에 이르기까지 다른 다양한 소스들과 종합 분석되어 소련전투기와 KAL기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소련의 태평양연안 일대가 세계에서 가장 면밀히 관찰 받고 있는 지역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곳은 2개의 주요 해군기지가 있을 뿐 아니라 소련의 미사일적재 잠수함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목표들에 대한 정찰지역이기 때문이다.

세미야기지에 있는 장비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코브라 데인레이다가 있다.

미사일 시험을 감시하고 모든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이 레이더는 3천 6백 80km의 거리에서도 야구공을 관찰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청취기지를 잃은 뒤, 중공의 주요 내륙 깊숙이 설치한 또 다른 지상추적소들은 시험미사일들이 보내오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소련의 무선과 레이더 시그널을 잡아내고 있다.

한편 우주공간에서 수집되는 정보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상 저공궤도에 있는 위성들은 소련을 비롯한 세계 각지를 중형으로 체크하면서 통신정보를 기록·수집하고 있다.

또한 3천 6백 80km의 높이에 있는 위성들은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면서 활동하는데 그중 일부는 지구상의 전화에서 흘러 나오는 시그널까지 잡아낼 정도로 민감하다.

위성들은 대체로 적도 일대에서 가장 높은 능력을 발휘하며 KAL기 격추사건이 빚어진 북한대(寒帶) 등에서는 아무래도 기능이 약한 편이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정보들은 즉각 워싱턴 북쪽에 있는 NSA에 전달된다.

NSA는 각종 언어로 녹음된 이들 자료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컴퓨터에 넣어 문제의 사건내용을 일관성 있게 재구성한다.

NSA의 이러한 방대하고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이번에는 로봇까지 등장할 판이다.

미공군은 북극권의 조기경보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신형 단거리 레이더를 사용하는 로봇를 배치할 계획이다.

매사추세츠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전자장비사단은 '83년 여름 이와 관련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80년대 중반에 무인로봇 레이더를 처음으로 조기경보체제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자장비사단의 윌리엄·F·스틴슨 중령은 「현재의 조기경보체제가 몹시 낡았다」면서 「이 체제는 지난 '50년대에 폭격기의 위협에 대비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신형폭격기의 성능과 순항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선 이를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알래스카 - 캐나다 - 그린랜드의 전장 4천 8백km를 감시하는 31개 소의 조기경보레이 다망이 50개소로 늘어날 것이며 이중 37개소는 저공비행 폭격기와 순항미사일 탐지(探知)레이

다를 사용하는 로봇트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혀졌다.

소련기도 미기지를 감시

한편 소련도 △ 무르만스크에서 이룩한 첩보기가 북대서양에서 쿠바까지의 상공을 비행하며 미국의 동부군사기지를 체크하고 있으며 △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기지에서 발전한 첩보기가 일본 영공 부근을 비행하며 오키나와와 필리핀의 미군기지를 정찰하고 있고 △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지에서 이룩한 첩보기는 디에고 가르시아 등 북인도양 일대의 미함대 이동상황과 페르샤만을 정찰하는 등 첩보전은 이른바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서방국가가 민간항공기를 스파이용으로 쓰는 경우는 없지만 소련의 첩보비행은 민간항공기로도 수행되고 있다.

소련과 동구(東歐)민항기가 지난 '80년 이래 미국 영공을 77회, 싱가포르 영공을 8회 침범한 것은 모두 이런 스파이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서방정보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소련은 여러 종류의 수많은 스파이기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TU-99베어기·베저기·블라인더기 그리고 폭스배트기가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다.

폭스배트기는 최고 36.9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그 고도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다.

TU-99 베어기는 미국의 RC-135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미국해안을 정탐하다가 여러 차례 발각되어 쫓겨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스파이기들은 서유럽과 NATO기지 감시에 혈안이 되어 영국 영공에 들어왔다가 영국공군의 팬텀기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소련은 방위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크루즈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저공탐사 레이더망의 개발에 일단 성공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3백억 ~ 5백억 달러를 투입하여 1 백대의 장거리 레이더항공기와 저공탐사 및 격추(擊墜)레이더를 적재한 수천대의 제트전투기와 약 1 만기의 지상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의 새 크루즈 미사일 요격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리엄·페리 미국방차관이 78년 11월 14일에 밝힌 바 있다.

페리 차관은 이날 각종 방공망에 대한 제트추진식의 소형 크루즈 미사일 발사실험을 끝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소련의 현 방공체제는 이번 실험결과 크루즈 미사일의 위협 앞에선 속수무책임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소련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적어도 크루즈 미사일을 한꺼번에 최고 3 천기 씩 발사, 소련에 집중적인 핵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 했다.

크루즈 미사일은 컴퓨터로 공격목표를 정확히 찾아낸 후 소련해안 약 8 km 상공의 B52

폭격기에서 발사되는데 미국은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1 백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또 현 크루즈 미사일계획이 소련의 요격체제 개발 노력보다 2 ~ 3년이 앞서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자통신 교란 장치를 비롯한 보다 고속의 소형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국방성의 현단계 계획이 정당함을 보여 주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SA10으로 불리는 소련의 신형 지상 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대량 배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AL007기도 결국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됐는데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서방측의 요격태세와 레이더 탐지활동은 더욱 활발해져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너와 나의 간첩(間諜)신고

국가(國家)안정 가정(家庭)안정

즉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가할 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보복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을 심리적으로 납득시켜 스스로 자제케 하는 공갈수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억제전략의 원리는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전략 이론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왔으며, 핵시대 도래와 더불어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과잉 살상력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핵 억제개념은 통상 무기에 의한 억제와는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핵상황하에서의 억제장치는 시·공간적으로 즉각적이고 범세계적인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분초를 다투는 핵공격은 일국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방위능력은 종전까지는 억제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 왔다.

이는 적이 침략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그것 때문에 뒤따르는 손실이 더 크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핵억제는 방위력으로 설계된 핵전력의 기초 그 자체가 바로 공격전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억제는 기본적으로 공격능력으로써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제 2 격 능력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이는 거부에 의한 억제, 즉 국지, 제한 전쟁에 있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위협을 통해 억제의 기능을 달성하려는 생각이나, 고위력의 전략핵전력의 상호교환까지 이르는 핵의 단계적 확산의 위협을 전제로 한 징벌에 의한 억제를 그 지배적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개념이 오늘날 방위 능력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ABM과 같은 방위체제의 기술상의 비약적 발전이 공격전력을 중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SALT나 START등 핵군비 통제를 위한 초강대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상호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억제에 대한 사고는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할 것이란 전제 하에 성립한다.

60년대 중반에 맥나마라 미국방장관은 상대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은 인구의 1/4 내지 1/3 과 산업능력의 1/2 내지 2/3의 파괴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핵전력의 소요는 4 백 메가톤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소련의 제 1 격을 받고도 미국은 제 2 격으로 소련 인구의 2/5와 산업시설의 3/5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실증파괴력이 있다고 과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이와 같은 상호확실파괴(MAD)에 의한 억제개념을 수용치 않고 미국의 제 2 격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존하여 제 3 격으로 더 큰 피해를 미국에게 줄 수 있다고 확

신한 나머지 방어전력 위주의 핵능력을 양적으로 미국보다 앞질러 보유하게 됨으로써, 미·소간 핵무기와 핵전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억제전략이론이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 80년대의 현실적 문제인 것이다.

2. 핵억제전략 이론의 허실

60년대 초에 와서 핵무기에 의한 억제가 내재하고 있는 거대한 위협의 수준에 따른 인식과 한편 핵무기체제의 발달과 다양화가 대량보복전략에서 유연반응전략으로 이행되는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이론은 정세의 중대성에 따라 국가가 적절하다고 보는 수단(통상전력, 전술핵전력, 전략핵전력)을 선택적·단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적의 공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연반응전략 이론은 NATO의 기본전략 개념이며, 미국은 지난 20년간 역대 행정부에서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수많은 변형된 전략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나 그 근본은 유연반응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핵억제전략 이론은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위협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심리적 작용으로서 민간인을 인질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은 컴퓨터가 하지 않고 인간의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는 것을 견제할 때 핵전쟁의 수행은 인간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하에 놓이게 될 때는 억제의 장치가 작동치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억제가 실패 시 완전한 해결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정교화된 핵억제전략이라 할지라도 현실과의 의미상관성을 볼 때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핵억제의 전제조건은 억제의 주요성격을 관계 제국이 상호 이해하고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억제에 대한 사고방식은 초강대국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서로가 상대방에게 전략 이론이 알려져 있는지와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어떤 군사전문가들은 일방에서 표명된 전략이론은 변증법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반대의 전략 이론으로 창출되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앞서 지적한 미·소간의 핵전략의 비대칭성에 따른 억제의 효용성 상실현상인 것이다.

인간이 핵전쟁수행의 결정에 의해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의 긴장된 상황에 놓일 때, 정책결정자는 집행자가 이미 정해 놓은 전략이론의 모든 규칙에 따라 행동할지가 의문시되며, 각 분야의 인간활동과 더불어 전쟁수행에 따른 모든 조치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때로는 오류를 범하고 행동의 돌발적인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억제체제에 입각한 평화는 관계국의 전력 사이에 대략적인 대등성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전력의 비취약화와 비도발화란 문제와 직결된다.

만일 상대방이 당사국을 지나치게 약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제공격을 가하게 되고, 상대방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을 때는 도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억제는 불확실성 속의 균형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과 전력, 공격전력과 방어전력, 그리고 질과 양의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포괄적인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른바 필수적인 대등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대등성을 SALT-II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양적 균형에 있어서의 지나친 열세를 만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은 START란 새로운 개념으로 핵군비통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균형된 감축과 검정가능한 장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탄두의 고성능화와 정확도의 향상에 의한 질적우위를 바탕으로 양적 열세를 견제하면서 목표파괴력(CPM)의 우위를 견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핵억제전략 이론의 안전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비판의 하나는 억제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상황진전 및 처방문제인 것이다.

아무튼 전후 핵억제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여 아직 핵무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허다한 제한, 국지전쟁은 야기되었으나, 억제전략의 논리에 따라 다수의 세계 분쟁을 예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억제전략이 모든 기능을 다한다고 해도, 핵관리의 기술적 실패에 의한 인간의 오판으로 핵전쟁이 우발적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제조기술의 보편화로 원자료를 가동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적정량만 유출시키거나 국제암시장에서 획득하거나 또는 폭력조직에 의해 탈취하게 되는 경우 소규모의 조잡한 전술핵무기를 제조하여 이를 시험하지 않은 채 사용하게 될 때 기존의 핵전략 이론은 그 뜻을 잃게 된다.

3. 핵기술 발전

핵무기 사용의 위협에 기초를 둔 핵전략 이론은 그 위협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되고, 복잡 다양해짐과 동시에 정교해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전략이론이란 하나의 이론적 복합체로서 방위정책의 기반이 되며 또한 군대의 배치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핵무기의 연구, 개발, 제조의 기초로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주요 군사대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무기체계 개발을 촉진한 것은 전략이론이라기 보다 오히려 군사전략이론의 조정을 재촉해온 기술 상의 발전이었다.

초강대국의 억제가 국민의 상호 인질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선제 제1격에 의해 상대방을 잠재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핵억제의 불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더욱 이러한 주장은 무기경쟁을 계속하게 하는 구실로서도 왕왕 사용되고 있다.

지하 사이로의 건설, 대륙간 운반수단의 강화, 미사일 발사능력을 가진 기동성과 불가시성 때문에 취약성이 해소된 전략잠수함대의 도입,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의 전환·폭격기와 같은 취약성 있는 전력의 경제태세 유지..... 등이 억제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전력이 취약화 되면 될수록 그 국가는 상대방의 보복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바 제 1 격으로 선수공격을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견고한 표적에 대하여 사용되는 고정확도의 무기 출현은 대항전력을 뒷받침한 새로운 대응 전략론의 발전을 자극하게 된다.

사이로에 들어있는 대륙간탄도탄이 파괴되지 모르는 위협 때문에 견고하나 방어 또는 수량의 증가로 비취약화가 달성될 수 없거나, 대륙간탄도탄 전력이 전략공격력의 일부로서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될 때는 미·소 공히 대륙간탄도탄 전력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불안정한 상태로써 즉각 발사체제 자체가 지닌 우발적 오인발사 가능성이란 결함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강대국의 일방이 전략무기경쟁에서 패배가 예상될 때는 즉각 발사체제를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핵교전을 개시할 도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불안정한 요인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기술발전의 측면은 점점 정교화되어 가는 핵기술이 제반 전략이론의 개념을 흐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전략이론을 앞질러 선행하기 때문에 전력과 전력의 용납성이 결여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격과 방어, 억제와 방위, 전술핵무기와 전구핵무기 및 전략핵무기의 구분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회색영역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정책과학자인 드로가 「문제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지만 그 처방요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듯이, 핵전략체제의 상위체제로서 핵전략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그 하위체제인 과학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앞서 가는 현상 속에서 핵문제를 위요한 갖가지 곤란성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전략이론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국제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4. 소련의 핵전략이론

소련의 핵전략이론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이 공공연히 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들의 발언, 군사력의 배치, 군사사적 등에서 유추해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련의 전략이론에 대한 서방측의 일반적 인식은 제약되어 있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오도될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소련에 의한 세계적 군사균형에 안정화의 요인으로 될 수도 있고 불안정화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소련의 군사전략이론의 내용은 정치와 군사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 측면으로는 전쟁의 정치목적과 그 성격 그리고 요인이 군대 편성과 군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쟁수행 수단인 군사력의 구조와 군비조성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전략은 군사·정치적 양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소련의 군사전략이론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세적이고 군사적으로는 공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80년대 초반에 와서 후르시초프가 「세계 전쟁이 제국주의 침략자에 의해 개시된다면, 소련은 불가피하게 핵미사일 전쟁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모방한 억제와 대량보복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크료스키 원사의 「소련의 군사전략」이란 저서에서도 핵전쟁의 확산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60년대까지의 소련의 군사전략은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일반적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70년대 와서 소련은 통상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략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60년대의 유연반응전략을 답습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최근 소련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국지제한전쟁의 가능성 및 전면 재래형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대량 보복적 속성을 내포한 핵전략개념을 시험하고 있으나 제1격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제공격전략과 제3격능력을 배경으로 한 핵전쟁 승리사상은 핵전략이론의 기본적 원칙이라고 본다.

5. 결론

국제적 안전보장에 대한 억제전략이론의 영향과 핵무기의 존재 및 그 무기체계의 기술적 발전의 영향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무기가 국제적 안보에 미치는 의미를 정의하려면, 핵무기의 사용조건과 그 사용을 규제하게 되는 전략이론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한 가지 분명한 의문은 전략이론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다.

한 나라가 일정한 전략이론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으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론과 현실과의 괴리현상인 것이다.

현행 전략이론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정세가 전략이론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한 확실성 있는 회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쟁이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종결되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핵전쟁은 제어할 수 없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팽배해질 때 핵전략이론의 신뢰성은 손상되고 만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는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략이론의 시나리오 간의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사목표를 겨냥하는 대군사력 공격과 산업시설을 겨냥하는 대도시공격의 경계선이 지극히 불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효과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군사적 표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비군사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제문제를 핵상황진전에 따라 전략이론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모든 전략이론은 그 나름대로 안전보장에 미치는 다른 측면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핵억제전략은 궁극적으로 대량보복전략에 수렴된다.

유연반응전략 개념하의 갖가지 형태의 전략이론과 최근의 상쇄전략까지도 결국은 대량보복을 내세우는 핵공갈전략임에 틀림없으나, 역제가 실패 시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회복할 수 없는 인류문명의 파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현실적 국제정치형태가 Y 이론이나 Z 이론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상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궁극적 완전 폐기를 지향하면서 현존핵무기의 전량 국제관리에 미·소가 합의하는 길이다.

명 언(名言)

전쟁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하듯이 평화(平和)를 위해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고 막바지에 이르는 능력은 필요한 기술이다. 네가 만약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거나, 위기에 이르기를 두려워한다면, 너는 진 것이다.

- J. F. 델레스, J. 세플리의 <델레스 전법>에서 -

관리과학(管理科學) 모형(模型)의 실용성(實用性) 고찰(考察)

조 영 철(曹永喆)
〈예비역 대령〉

목차

1. 서(序) -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의의(意義)
 2. 관리과학(管理科學)의 발전(發展)
 3. 조직행정(組織行政)에 있어서의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중요성(重要性)
 4.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적용과정(適用過程)
 5. 관리과학(管理科學) 실용화(實用化)의 성패요인(成敗要因)
 6. 한국행정문화(韓國行政文化)의 실제(實際)
 7. 결어(結語)-전망(展望)과 과제(課題)
- 주(註) 해석(解析)
참고문헌(參考文獻)



1. 서(序) -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의의(意義)

관리과학(管理科學)이란 조직(組織)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율적(效率的)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평가(評價)하는데 필요(必要)한 해결안(解決案)을 찾는 과학적(科學的)인 원리(原理)나 기법(技法)을 이용(利用)하는 일종(一種)의 접근방법(接近方法)(Approach)을 말한다. 관리과학(管理科學)이라는 이름 속에 포괄되는 과학적(科學的) 기법(技法)이나 원리(原理)로서는 중형계획(綜型計劃)(Linear Programming), 게임이론(理論)(Game Theory), 큐잉 이론(理論)(Queueing Theory), 통계적(統計的) 의사결정(意思決定) 이론(理論), 체계분석(體系分析), OR, 시뮬레이션(Simulation), 몬테 카를로법(法) (Monte Carlo Techniques) 등이 있다.

이러한 관리과학(管理科學)은 과학적(科學的) 방법(方法)과 수학적(數學的) 및 계량적(計量的) 모형구성(模型構成), 심리사회적(心理社會的) 측면(側面)보다는 경제적(經濟的) 기술적(技

術的) 측면(側面), 그리고 전체적(全體的)인 체제접근방법(體制接近方法)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체계적(体系的)인 접근(接近)과 도구(道具)로서 컴퓨터를 이용(利用)하여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서술적(敘述的) 모형(模型)(Descriptive Models) 보다는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s)을 지향(指向)한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理想的), 합리적(合理的)인 최적모형(最適模型)을 추구(追求)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¹⁾.

오늘날 사회(社會)가 복잡화되고 사회(社會)를 구성하는 각(各) 요소(要素)들 간(間)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 되어가고 있는 행정환경(行政環境) 속에서 점차로 더 심각 해져 가고 있는 자금난(資金難),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국민(國民)들의 주권(主權)의식 등으로 조직관리자들은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체계적(体系的)이고 깊이 있는 분석(分析)에 의해 얻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편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은 복잡한 모형(模型)들을 활용(活用)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조직행정과정(組織行政過程)에서 관리과학적(管理科學的)인 방법(方法)과 절차(節次)의 활용(活用)을 촉진(促進)시켜 주었다²⁾.

이러한 시점(時點)에서 본고(本稿)는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적용(適用)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행정문화(行政文化)와 기타(其他) 요인들을 검토하고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적용상의 문제와 전망을 고찰하는데 목적(目的)을 두었다.

2. 관리과학(管理科學)의 발전(發展)

관리과학(管理科學)도 대부분(大部分)의 학문(學問)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여러 학문적(學問的) 개념(概念)과 철학(哲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관리과학(管理科學)은 19세기 말 이후 기업경영(企業經營)에서 발전(發展)된 과학관리론(科學管理論)의 후예(Descendant)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과학적(科學的) 관리론(管理論)은 테일러와 그 추종자들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종업원의 기능을 분석(分析)하여 조직의 제반 활동 등을 계획하고, 개개 종업원의 과업(Task)에 대한 일련의 생활표준(生活標準)을 개발하여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 이윤추구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Arch W. Shaw는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체계계획(體系計劃)(System Planning)의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엔지니어였던 Gant는 작업계획과 그 완성(完成)에 소요되는 시간(時間)의 관계를 도면으로 작성(作成)한 Gant Chart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과학적(科學的) 관리론(管理論)은 문제의 해결에 수학적 방법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고, 조직을 하나의 체제(體制)(System)로서 보고 디자인하거나 관리(管理)하는 지식체계(知識體系)나 기법(技法)을 확립(確立)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第) 2차세계대전 중(次世界大戰中)인 1940년(年) 영국에서 군사문제(軍事問題)의 해결을 위해서 개발된 OR, 선

형계획 Game Theory와 전후(戰後)의 응용수학의 발달, Simplex method의 개발, 체제분석(體制分析)의 발전(發展) 및 컴퓨터의 발전(發展)에 따른 대량정보처리(大量情報處理)의 가능성(可能性)이 증대(增大)한 데 있다. 관리과학(管理科學)은 이와 같이 여러 기법(技法)들이 조직(組織)의 문제해결(問題解決) 및 관리(管理)의 문제(問題)에 응용하면서 생겨난 학문(學問)이며 접근법(接近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戰後)에 산업경영(產業經營)의 급속한 팽창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보다 새롭고 한층 더 어려운 문제들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問題點)의 해결(解決)은 고도의 새로운 과학적(科學的) 기법(技法)의 적용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기업경영 쪽에서 발전된 관리과학(管理科學)은 정부행정관리(政府行政管理)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重要性)이 강조되고 적용성이 고조되어 왔다3).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미국국무성의 PPBS의 채택과 RAND 연구소 등이 행정해결과 계획을 위해 과학적(科學的)인 분석방법(分析方法)을 사용(使用)하여 연구(研究)프로젝트들을 수행함으로써 행정(行政) 각(各) 기관(機關)에 널리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年代)에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個年)계획을 작성(作成)하기 위해 과학적(科學的) 관리법(管理法)을 사용(使用)하였고, 1978년(年)부터 1982년(年) 사이에 제(第)1차행정전산화(次行政電算化) 기본계획(基本計劃)이 수행되었으며, 1983년(年)부터 제(第)2차행정전산화(次行政電算化) 기본계획(基本計劃)이 추진됨으로써 정부(政府) 각(各) 기관(機關)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 활용(活用)하게 되었다.

3. 조직행정(組織行政)에 있어서의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중요성(重要性)

관리과학(管理科學)은 조직(組織)의 당면(當面)한 문제(問題)를 합리적(合理的)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효율적(效率的)으로 집행(執行)하며, 타당성(妥當性)이 높은 방법(方法)으로 평가(評價)하는데 필요(必要)한 정보(情報)를 산출(產出)하는 과정(過程)에서 응용되는 계량적(計量的)인 분석방법(分析方法)과 절차로서 이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을 이용(利用)하면 정확(正確)한 기술(記述)의 가능성(可能性)이 높아지게 된다. 과학(科學)의 목적(目的) 가운데의 하나는 현상(現象)에 대한 올바른 기술(記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과학(管理科學)의 기초(基礎)가 되는 수학과 통계학은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정확하고 능률적인 기술(記述)을 가능(可能)하게 해주는 기술적(記述的)인 언어(言語)이다.

둘째, 관리과학에 대한 방법(方法)의 적용은 관찰된 자료로부터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추론(推論)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결론과 추론은 관리과학에서 발전시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절차와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관리과학은 복잡한 사건(事件)의 뒤에 숨어있는 인과적(因果的) 요인(要因)들에 대한 통계적(統計的) 분석(分析)을 가능하게 해준다. 많은 사회현상들은 인과관계에 의하여 발생(發

生)되게 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들은 통계적(統計的) 실험(實驗)의 방법(方法)에 의하여 그 「베일」이 벗겨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네째, 관리과학(管理科學)을 이용(利用)하면 여러 가지 가능한 문제해결의 방안(方案)들 가운데에 최적의 행동대안(行動代案)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경우가 많다.

관리과학의 방법을 적용하면 많은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섯째, 관리과학은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理論的) 기초(基礎)를 제공(提供)해 준다. 다시 말하면 관리과학은 집행결과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타당성(妥當性)이 있고 신뢰성(信賴性)이 높은 방법(方法)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평가(政策評價)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4).

4.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적용과정(適用過程)

관리과학(管理科學)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조직의 특정(特定)한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이다. 관리과학은 조직의 전체 체제의 맥락 속에서 개별적(個別的)인 문제의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과학방법(科學方法)의 근본적인 제원칙에 입각한다. 관리과학에 적용되는 일반적(一般的)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Observation)이다. 이것은 조직이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문제점의 정의(定義) 및 규정(規定) (Definition of the problem)이다. 그것은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실질적인 여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개개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정의(定義)하고 규정(規定)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가설(假說)의 설정(設定)(Formulation of a hypothesis)이다. 이것은 가능(可能)한 해결책(解決策)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가정(假定)과 가설(假說)을 세워보는 것이다.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적용에 있어서 가설(假說)은 보통 수학적 모형이나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들의 관련성의 차원(次元)에서 기술하는 방정식(方程式)의 형식(形式)을 취(取)한다.

넷째, 실험(實驗)(Experimentation)이다. 이것은 설정된 가설(假說)이 타당한 해결책(解決策)을 제시(提示)하여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을 행하는데 목적(目的)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결정자(決定者)들이 수학적 모형을 가장 유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인위적(人爲的)으로 조작(造作)된 상황 하에서 가설의 타당성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다.

다섯째, 적용 가능한 해결책의 개발(開發)(Development of Operational Solution)이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理論的)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실제 상황과 관련하여 또 다시 검증해 보고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실제로 실시하는 것이다.5)

5. 관리과학(管理科學) 실용화(實用化)의 성패요인(成敗要因)

관리과학(管理科學) 실용화(實用化)의 성패요인(成敗要因)은 논의(論議)의 편이상 사기업부문(私企業部門)과 정부부문(政府部門)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요인(要因)과 행정(行政)에만 통용되는 고유(固有)한 요인(要因)으로 구분(区分)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요인(共通要因)

첫째, 조직관리자와 관련된 요인들을 보면 조직(組織)의 최고관리자가 평소(平素)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관리모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모형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철학(哲學)과 의지(意志)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의 형성(形成), 목표(目標)의 설정(設定), 대안(代案)의 작성과정(作成過程)에서 관리과학자(管理科學者) 또는 분석가(分析家)들과 자주 접촉하며 고무해 주는가? 또 관리자가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이고 쇄신(刷新)에 호의적이며 이를 수용(受容)하려는 태도(態度)를 보이고 있는가? 이 요인(要因)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을수록 관리과학의 실용화(實用化) 가능성(可能性)이 높다.6)

둘째, 관리과학의 실용화(實用化)가 그 조직의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문화(文化)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조직의 문화(文化)가 변하여 저항적일 때에는 관리과학의 실용화(實用化)는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7) 조직의 각급(各級) 관리자들의 관리철학(管理哲學)이 관리과학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거리가 멀 때, 조직 구성원들 가운데 관리과학의 실용화(實用化)로 자기(自己) 고유(固有)의 업무가 위협받고, 자기위치(自己位置)의 중요성(重要性)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조직변화에 대한 경직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관리과학의 실용화(實用化)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8)

셋째, 관리과학의 실용화는 관리과학자나 분석가(分析家)들 자신(自身)들의 행태(行態)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관리과학자 또는 분석가(分析家)들이 조직의 문제, 관리자의 문제와 정보(情報)의 수요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고, 이들을 토대로 올바른 행태(行態)의 문제를 형성(形成)할 수 있는냐의 여부가 관리과학모형(管理科學模型)의 실용화(實用化)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리과학자(管理科學者)와 분석가(分析家)들이 성공적(成功的)인 실용화(實用化)를 위한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리과학의 실용화(實用化)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의 하나가 된다.9)

네째, 문제의 성격(性格)이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실용화(實用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구조, 목표의 수, 목표가 기술되는 방법(方法) 등은 모두 문제의 성격을 구성하며 이들이 바로 관리과학(管理科學)의 모형작성과 그 실용화(實用化)에 결정적(決定的)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10)

다섯째, 관리과학모형 그 자체(自体)의 적합성이 또한 실용화(實用化)의 성패(成敗)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의 적합성은 여러 가지 차원(次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重要)한 것으로서는 이용가능성(利用可能性)의 차원(次元)과 자료(資料)의 차원(次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행정관리(行政管理)의 실무면에서 볼 때, 이용가능성(利用可能性)이 없고 부적합한 모형이나 자료의 부적합성, 자료수집에 지나친 비용과 시간소요는 중요한 저해요인(沮害要因)이며 이것을 어느 정도(程度) 극복해 갈 수 있으나 하는 것이 또한 실용화(實用化)의 가능성(可能性)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좋은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11)

나. 정부행정부문(政府行政部門)의 요인(要因)

정부부문(政府部門)에는 관리과학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作用)하기 보다는 오히려 실용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서는 정치적 및 사회적 민감성의 결여, 핵심적 변수의 측정 불능, 비용과 시간을 너무 많이 요(要)하는 성향 및 정부과업의 다목적(多目的) 성격(性格)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부부문에 관리과학모형을 실용화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현실상황(現實狀況)을 모형에 반영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充分)한 정치적 감각이 관리과학자나 분석가(分析家)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사실(事實)이다.12)

둘째, 관리과학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변수(變數)들이 주로 측정(測定)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견해(見解)이다. 따라서 분석가(分析家)들은 관리자가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형성하고 해답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13)

셋째, 관리과학모형을 활용(活用)한 연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點)이다. 어느 특정한 상황에만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대안(代案)을 작성(作成)하며, 모형(模型)을 형성(形成)하고 필요(必要)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적정대안을 탐색해 내는데 많은 경비와 시간(時間)이 소요된다면 의사 결정에 정보가 필요할 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리과학모형(管理科學模型)의 활용에 따른 장기간의 시간소요와 과도한 비용은 관리과학 실용화에 커다란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14)

네째, 정치부문에 있어서 관리과학 실용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정부과업의 다목적적인 성격이 사기업부문(私企業部門)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사기업부문의 관리과학모형은 금전적 변수를 목적함수로 하거나 또는 이 금전적인 변수를 대응변수(代用變數)로 사용(使用)함으로써 목적을 단일화(單一化) 할 수 있으나, 정부부문(政府部門)에서 취급(取扱) 하는 과업은 많은 목적을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모형작성이 어렵다. 또한 정부부문의 공공사업은 목적과 결과가 다차원적(多次元的)이기 때문에 효용함수(効用函數)의 설정(設定)과 효용의 개인간비교(個人間比較)가 어렵다.15)

6. 한국행정문화(韓國行政文化)의 실제(實際)

행정문화(行政文化)란, 일정(一定)한 행정행위를 유발케 하는 한 사회(社會)의 생활방식 전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社會)의 지배적인 가치(價值), 신념(信念), 태도(態度), 상징(象徵), 관습(慣習)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16)

그러면 한국의 행정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를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행정(權威主義行政)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풍토(政治風土)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권위주의적이라 함은 이미 밝혀진 사실(事實)이다. 우리의 행정문화 역시 이를 탈피(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의하달(上意下達)은 잘 되는데 반(反)해 하의상달(下意上達)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事實)에서도 볼 수 있다17)

둘째, 무사안일주의행정(無事安逸主義行政)이다. 이것은 행정상(行政上)의 어떤 변동(變動)이나 개혁(改革)을 싫어하고 현상유지(現狀維持)를 고수하려는 인습의 산물이다. 어떤 뚜렷한 업적이나, 획기적인 제도 같은 것을 창안하느라고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큰 탈없이 무사하게 지내려는 생각이다.18) 특히 창의성과 솔선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견관리층(中堅管理層) 이하(以下)의 공무원(公務員) 대다수(大多數)가 직업공무원제도(職業公務員制度)라고 하는 단일한 「베일」 속에 파묻혀 무사·안일을 일삼고 있는 것은 행정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할거주의행정(割拠主義行政)이다. 관료들이 자기(自己)가 소속되고 있는 기관, 부처·국·과만을 종적으로 생각하고 타국(他局), 과(課)·부처(部處)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과적으로 조정 협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다.19)

네째, 변화(變化)에 대한 저항이다.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성(保守性)을 갖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관료의 자기보존(自己保存)에 대한 위협, 불안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현상유지(現狀維持)에 집착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외부변동(外部變動)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변화(變化)에 낙후되기 쉽다.20)

7. 결어(結語) - 전망(展望)과 과제(課題)

관리과학(管理科學)의 활용(活用)과 중요성(重要性)은 시대적(時代的)인 요청이기는 하나, 제 아무리 지식(知識)과 능력(能力)이 겸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화(變化)에 저항이 많은 보수성이 강한 관료적 풍토하에서는 관리과학(管理科學)의 실용화(實用化)는 많은 시간(時間)이 요(要)할 것 같다.

그러나 80년대(年代)에 들어오면서 행정과학화에 대한 요청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고, 각종(各種) 행정사무의 자동화를 촉진시키는 기기(機器)의 개발 보급과 아울러, 컴퓨터의 대량보급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에 있어서도 일대(一大) 전환기(轉換期)를 맞게 되었다.

행정업무에 있어서 컴퓨터와 관리과학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고 있고 System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의 관리 과학모형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는 행정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관리과학모형들을 널리 개발 보급 시키고 나아가서 행정교육에 있어서도 이론만 치중하지 말고 관리과학분야(管理科學分野)에 비중을 높이고 행정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배양에 역점(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급(各級) 공무원(公務員)들의 재훈련기관에서도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병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비중을 높여 행정에 있어서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활용(活用)케 함으로써 행정(行政)의 과학화(科學化)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주(註) -

- 1). Herbert L. Lyon et alis, "management Science in organizations" (pacific palisades California, good year publishings co, 1976), p.3.
- 2). 노사준(盧仕俊), 행정계량분석(行政計量分析), (서울 : 법문사(法文社), 1985), pp.2-3.
- 3). 노사준(盧仕俊), 상계서(上揭書). pp.6-7.
- 4). Yehezkel Drov, "Design for policy Sciences" (New York : Elsuvier, 1971), pp.15-17.
- 5). Hervert L . Lyon et alis, op. cit., p.9.
- 6). Hugh J. Waston and Patrica Gill Marett "A survey of management Science Implementation problem", Interfaces, vol. 9. No. 4. (August 1978), pp. 124-125.
- 7). C. Jackson Grayson Jr.,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practice",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 August 1973), p. 44.
- 8). Waston and Marett, op. cit, pp. 124-126.
- 9). Grayson Jr., op. cit, pp. 47-48.
- 10). A. G. Lockett and E. polding, "OR/MS Implementation-A Variety of processes", Interface, vol. 9. No. 1. (November 1978), p. 46. : Allan Harvey, "Factors Making, for Implementation Success and Failure" management science, vol. 15. No. 6, (February 1970), pp. B-315-B-316,
- 11). 노사준(盧仕俊), 전계서(前揭書), p. 914.
- 12). Victor Thompson, Bareaucracy of Innovation, (Alabam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69), pp. 54 - 57.

- 13). Thompson, op. cit., p. 56.
- 14). C. Jackson Grayson Jr.,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practice :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73), pp. 41 - 48. : Bertram M. Gross, "The New system Budgeting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9, No.2 (March 1969), p. 128 : Aron Wildavsky, "Rescuing policy Analysis from PPB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9, No. 2 (March 1969), p. 191.
- 15). Aron wildavsky, "The political Economy of Efficien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6, No. 4, (December 1966), pp. 233 ~ 234.
- 16). 김봉식(金鳳式), "한국관료제(韓國官僚制)의 특징(特徵)" 윤근식(尹謹植) 외(外), 현대정치(現代政治)와 관료제(官僚制), (대왕사(大旺社), 1976), p. 474.
- 17). 윤천주(尹天柱), "한국정치체계(韓國政治體系)" 고려대학출판부, 1961, p. 249.
- 18). 김봉식(金鳳式), 한국행정학보(韓國行政學報) vol. 1, No. 2. 1968, p. 252.
- 19). 박동서(朴東緒), "한국행정론(韓國行政論)" 법문사(法文社), 1984, p. 231.
- 20). 박동서(朴東緒), 상계서(上揭書), p. 231.

참고문헌(參考文獻)

- 1). 백완기(白完基), 한국(韓國)의 행정문화(行政文化), 서울 : 고려대학출판부, 1984.
- 2). 박동서(朴東緒), 한국행정론(韓國行政論), 서울 : 법문사(法文社), 1984.
- 3). 김광웅(金光雄), 행정과학서설(行政科學叙說), 서울 : 박영사(博英社), 1983.
- 4). 김운태(金雲泰) 외(外), 한국정치행정(韓國政治行政)의 체계(體系), 서울 : 박영사(博英社), 1982.
- 5). 노사준(盧仕俊), 행정계량분석(行政計量分析), 서울 : 법문사(法文社), 1985.
- 6). 김봉식(金鳳式), "한국인(韓國人)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을 통(通)해 본 한국행정문화(韓國行政文化)", 한국행정학보(韓國行政學報). 제(第)1집(輯) 2호(號), 1968, pp. 341-354.
- 7). 류중해(劉鍾海), 김번웅(金繁雄), 김영섭(金永燮), 행정학(行政學)세미나, 서울 : 고시원(考試院), 1982.

북한(北韓)의 교육실상(教育實像)

유일체제의 도구화



편집실(編輯室)

1. 교육 정책

가. 교육 이념

북괴는 이른바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한편 노동당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마스-레닌주의 당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스-레닌주의가 그들의 이념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찍이 레닌은 1918년 8월 28일 소위 「교육활동 제1회 러시아 대회」에서 「우리들은 근로 피착취자들의 지배를 공공연히 선언한다.

이것은 국민교육의 분야에서도 똑같다. 부르조아 국가에서는 학교가 자본가들의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학교분야에서 우리들의 일은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똑같다. 생활에서 유리되고 정치에서 유리된 학교란 허위적이며 위선임을 공공연히 선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닌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후 소련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학교교육의 지침이 되었으며 북한의 교육도 이와 같은 이념 밑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 헌법 제3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자·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의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란 1968년 3월, 김일성의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 교양하자」에서 비롯되어 1969년 12월 「로동당전원회의 확대회의」 때의 김일성 「교시」로서 완성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즉, 북한이 마스-레닌주의와 이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체사상」을 그들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그들의 정치적 수요에 대응하여 제기되고 있다. 즉, 계급투쟁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인간」이 필요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술적 인간」이 요청되고, 전쟁승리를 위해서는 「체력이 튼튼한 인간」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국방체육이 북한교육 내용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나. 교육목표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소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 즉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등 혁명적 세계관에 투철한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사업을 강화」(〈로동신문〉'70. 5. 16)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따라 학생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교양하는데 첫째 가는 힘을 넣음으로써, 교육의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1980. 10. 13 <〈로동신문〉〉). 따라서 모든 학교에는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연구실」을 두고 「김일성의 혁명력사」를 암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아버지 수령과 영광스러운 당중앙(김정일)의 한없이 높은 은덕」을 꼭두각시처럼 외우게 하고 있다. (〈천리마〉 1982. 6월호)

북한교육의 장기종합정책지침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 전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하고,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사업의 원칙으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며, 주체를 세우고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며,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테제에서 학생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교원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그리고 학교를 「혁명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라 정의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교육목표는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 달성, 즉 폭력에 의한 정권탈취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지적 및 육체적능력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불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필요한 인간기계」를 제조하는데 있는 것이다.

※ 북한의 평양방송('84. 9. 1)은 북한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즉,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되는 교육은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을 다하는 참다운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2. 학제와 교육과정

북한의 현행 학제를 간추려보면, 2 년간의 유치원 과정과 4년간의 인민학교(우리의 국민학교), 6년간의 고등중학교(우리의 중, 고등학교), 그리고 4 ~ 6년간의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에 고등전문학교, 교원대학, 공장대학 등의 특수교육기관이 있다.

유치원 과정이 국가적인 제도로 크게 보급,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여성인력을 노동인력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인민학교의 연한(4년)이 짧은 것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인 것으로서, 이는 국가나 가정에 의존하는 소년기를 단축하고 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인 일꾼에로의 의식을 앞당겨 심으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여기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육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민학교는 주당 교육 시간이 1학년 25시간, 2학년 26시간, 3학년 26시간, 4학년 29시간씩 각각 배정되어 있으며,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국어, 수학, 체육, 도화, 음악, 공작, 위생 등 10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3 ~ 4학년은 이러한 10개 과목 외에 역사, 지리, 자연 및 실습 과목이 추가되어 총 1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습은 주로 학교에서 생산과 결부

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민학교 과정에서부터 1인 1기의 실기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민학교의 전 과목에 대한 총 배정시간은 3604시간인데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은 국어 과목으로 1700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학 850시간, 체육 272시간, 도화, 음악, 공작, 위생 등이 136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민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고등중학교의 교과과목을 보면, 국어, 문학, 영어, 로어, 역사, 지리, 생물, 물리, 화학, 체육, 도화, 제도, 음악, 위생,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음악시간이 없어지며, 4학년부터는 기술이론과목이 추가되어 점차 기술이나 실습과 관계되는 학과시간의 비중이 높아진다.

참고로 여기서 드러난 북한의 각급학교 연간 총교육 배정시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전 기간에 실시되는 “좋은 일하기 운동”에 동원되는 노력봉사시간이 제외되었음을 밝혀 둔다.

3. 교과별 내용

북한의 교과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① 김일성을 신처럼 찬양하고 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책 ② 인간존엄의 가치를 포기하도록 가르치는 반교육적 내용 ③ 우리의 역사를 멋대로 왜곡, 날조 ④ 인간의 자유의지와 창조적 사고를 인정치 않는 원시적 교화중심적 강제주입식 방법의 내용 구성 ⑤ 민족동질성 파괴 등으로 요약된다.

가.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그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기술한 책

모든 교과서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하여 하늘같이 높은 존경과 찬양, 그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맹종심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첫 페이지 전면에 김일성 사진을 싣고 그 위에는 과거 사진첩에서 사용하던 반투명의 흰종이를 끼워, 교과서에서 김일성 사진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표현했다.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인 「사회」 교과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교과서는 모두 80쪽의 분량으로 3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즉 제1과가 “김일성 원수님”, 제2과가 “만경대”(김일성이 태어났다는 곳) 등으로 시작되어,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제14과), “책을 사랑하신 원수님”(제19과), “원수님께서 주신 겨울옷”(제28과),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제30과) 등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의 말이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리하여 전체 80쪽의 교과서에 김일성의 이름이 83번이나 나오고 있어 1쪽당 한 번 이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교과서 맨앞에 모조지를 덮은 김일성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교과서 내용에도 총 삽화 41개 중, 김일성을 그렸거나 김일성과 관계되는 삽화가 17번이며, 나머지의 대부분도 어떤 형식으로도 김일성과 관련되는 내용의 삽화로 되어 있다. 이처럼 처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인

민학교 1학년 과정의 사회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 시켜 모든 분야에서 거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학문이나 교과내용과는 관계없이 김일성이라는 한 개인과 그의 집안을 과장, 미화, 우상화 시키는 내용의 교재가 학교의 정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교재는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 “김일성 원수 혁명력사” 등 학교 및 급별로 다양화되어 있다.

교재내용을 보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농업 등 모든 분야의 모든 활동이 오로지 김일성 개인이 생각해내고 창조한 방법으로 지도해 냄으로써, 북한이 세계 제일의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김일성을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미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색적인 표현,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표현 등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리」 과목의 경우에도 학습요점란에 반드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를 제시하고, 역시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조선지리 1에 있는 “머리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 9번이나 언급되고 있으며, “해방된 조국땅 위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발전시키시었다” 등의 우상화 작업이 곳곳에 시도되고 있다.

「역사」 과목에서는 현대사부분이 김일성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영도자로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 6. 25전쟁을 「미제의 침략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역사」 교과서에 계급투쟁의식과 지나친 개인 숭배를 주입시켜 아동들의 객관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있다. 또한 역사를 멀리하고

인격의 도야와 순화를 꾀하기 보다는 호전성과 적개심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국어」는 모든 내용과 소재가 김일성과 혁명과업에 관한 것들이다. 즉 김일성을 이상화 하는 내용이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실례〉

시 : “사령부의 방차대”,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

소설 : “포화 속에서”, “피땀의 원쑤” 등

희곡 : “피바다”, “승리의 기치따라”

수필 : “아버지의 뜻을 이어 열렬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언어학적 지식이나 문법에서도 김일성과 공산이념에 연결시키는 등 모든 것을 김일성이 만들었고, 그의 은혜로부터 가능해졌다는 식의 철저한 개인 이상화작업이 시도되고 있으며, 미국을 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김일성만을 신 이상으로 이상화 하였으므로 가족구성원 간의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따뜻한 인간애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서 불신감을 파생시키고 있다.

한편 고등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김일성 이상화 내용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례〉 김일성 이상화 내용

○ 세살난 어린이가 김일성 노래를 부름.

(고등중학교 2년)

○ 수령을 보고 싶은 생각에 아침밥 먹는 것도 다 잊었다.

○ 김일성과 로동당에 의해 우리 글이 쓰이게 되었다.

○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수령의 교시를 따라 생활한다.(고등중학교 3년)

○ 김일성의 가르침으로 모든 고난과 애로를 극복(고등중학교 2년)

「외국어」 과목에서도 김일성 이상화는 제외될 수가 없다. 영어는 기초단계이므로 이상화나 왜곡된 내용이 많지 않으나, 「로어」와 일본어교과서(조총련교재)에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일본어 교과서에는 각 과마다 “경애하는 수령”란이 있다.

「수학」 교재에서도 교과서내용 중 “김일성”이란 글씨는 모두 굵은 활자로 되어 있다.

머리말에는 김일성교시가 제시되고 있으며, 연습문제를 김일성과 관련시켜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인민학교 4학년 「수학」 교과서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장 기쁜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달력에서 찾아 보시오.”라는 식으로 김일성의 생일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유서 깊은 만경대로 학생336명이 견학을 갑니다. 버스 한 대에 48명씩 탔다면 버스가 모두 몇 대겠습니까?”와 같이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의 견학을 연습문제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배려로 새로 일떠선 학교에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듭니다. 꽃밭의 너비는 3m이고 길이는 xm입니다. 꽃밭의 면적을 60㎡보다 크게 하려면 길이를 몇 미터로 하여야 하겠습니까?”라는 연습문제를 내놓음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를 함께 진행시키고 있다.

음악, 미술교과서는 김일성 개인선전물인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개인이상화가 심하다.

고등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첫 페이지에는 김일성이 미술에 대해 말한 것을 하나의 교육목표 및 원리라며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르크스의 예술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절로서, 마치 김일성이 마르크스에 비길 정도의 어떤 예술철학을 가지고 지침을 제시한듯이 의도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화”나 “조각” 등 일부 영역에서도 엿보인다.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1학년의 경우 18개의 제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 9개곡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곡이었고, 나머지는 만경대, 평양, 백두산 등 북한을 상징하는 대상을 소재로 공산주의를 예찬하는 소재로 되어 있다.

음악교과서의 가사는 터무니없는 김일성 이상숭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1학년의 경우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애국가」보다 먼저 나와 있는가 하면, “보물동산 우리나라”라는 곡에서도 “땅속 가득 금돌 쇠돌, 자랑 많은 우리나라 원수님이 주셨죠”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김일성은 신과 똑같은 지위로 이상화 되어 있다

나.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비인간적, 반교육적 내용

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는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기꺼이 받쳐서라도 죽여 없애야 될 철천지 원수놈(미국놈, 지주놈, 자본가, 지배계급, 양반)들이 있고, 그 원수놈들의 각을 뜨고 골통을 부수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살인백정의 의지가 충만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남을 죽이지니 내 목숨인들 온전할 리 없다.

그러자니 “내 목숨으로 너의 목숨을 따겠다”는 살인마적 논리가 자연히 교과서에 반영된다. 가공할 반인간적 내용이다. 나에게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놈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과서의 야수적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이제 각 교과서별로 반미, 반일, 반한감정과 호전성을 고취시키는 반인간적 반교육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반미, 반일감정 고취

먼저 「사회」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해방 전의 자본가, 지주계급을 속된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테면 “미국놈은 우리의 원수”, “박살난 원수놈의 기차”, “지주놈”, “총알은 원수놈의 골통을 때렸읍니다”, “자본가놈을 죽쳐버렸읍니다” 등의 표현을 어디서든지 자주 볼 수 있다.

가령, 인민학교 사회교과서 24, 25쪽에는 “미제를 타도하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총칼로 미군을 잔인하게 찢러 죽이는 삽화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색적인 표현,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표현 등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남조선에 동지를 틀고 있는 미제 원수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쳐들어오려고 전쟁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대중은 일할래야 일할 자리도 없고,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없으며 배울 수도 없는 썩고 병든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이고도 폐쇄적인 교육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한 개인에 추종케 하는 수단적 도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지리」 교과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남강도 미제와 자본주의 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산들은 모두 벌거숭이 산으로 되고, 기름진 논밭이 군사훈련장으로 짓밟히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바,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반미·반일·반한감정



12. 미국놈은, 우리의 원수



고취를 위한 내용을 발췌해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례〉 반미·반일감정 고취내용

○ 남조선에서는 미국놈들이 자기나라에서 팔지 못하는 연료와 남은 기계들을 강제로 팔아먹기 위하여 수력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수력발전소조차 돌리지 않고 있다.

○ 남조선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보다 많은 자원을 약탈하여 가기 위하여 일제가 구분한 행정체제와 구역을 그대로 유지 강화하고 있다.

○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자연자원과 식량, 원료를 무제한하게 약탈하여 갔으며 동시에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공업이나 농업은 발전할 수 없었다.

○ 해방 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일제가 원료를 약탈해가며 식민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워 놓았던 빈약한 공장들이 있었으나 그것마저 미제에 의하여 3년간의 전쟁으로 모조리 파괴되어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다.

○ 미제가 약탈해가는 흑연채굴량은 1944년에 비하여 2배로 장성했으나 같은 해 공화국 북반부의 채굴량에 비하면 훨씬 적다.

○ 남조선에서 령락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제를 남조선 강토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조선사람

자신들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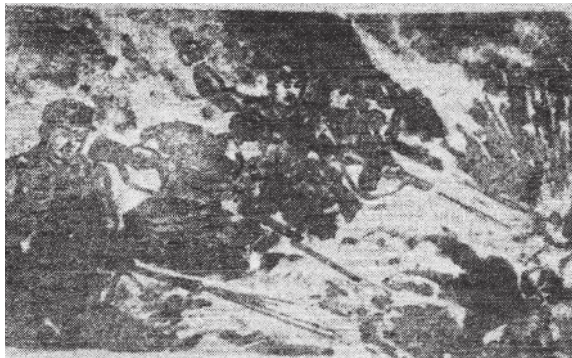
○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공업과 농업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남조선에서는 경제가 전례 없이 몰락하고 쇠퇴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경제가 이와 같이 락후한 원인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미제는 우리나라의 남조선을 강점하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남조선에서의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이상 고등중학교 3학년 「지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면서 중간 중간의 문단 도입부분에 김일성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고 하면서 그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역사를 지배계급의 착취와 이에 대한 인민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서술하여 호전성과 적개심을 기르고 있다. 세계사의 경우 종교, 문화부분의 내용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십자군전쟁」을 “반동의 두목 법왕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세력의 침략”으로, 「지리상의 발견」을 “부르조아적 식민지 략탈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학」 교과서의 연습문제는 미국에 대한 비난,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이 많이 등장한다. 소위 6. 25전쟁을 소재로 하여, 「인민군」이 「미제놈」을 살해 또는 포로로 잡은 예 등을 문제 예로 제시하여 극도의 반미·반일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조선인민군 아저씨들이 날강도 미국놈만 하여도 397, 543명을 죽이거나 사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397,543명을 4사5취하여 약 40만명이라고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것은 반미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습문제이고, “조선인민혁명군 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강도 일제놈 군대 420놈을 죽였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놈은 사로잡힌 놈들보다 120놈 더 많습시다. 죽은 놈과 사로잡힌 놈은 각각 몇 놈 입니까?”와 같은 것은 반일감정을 불어넣기 위한 연습문제이다.

고등중학교의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반미·반일감정 고취내용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민군대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승냥이 미국놈을 265놈 죽이고 나머지 157놈은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 승냥이 미국놈이 몇 놈 있었습니까?
풀이:
157놈+265놈= 422놈

〈실례〉 반미·반일감정 고취내용

○ 1938년 초에 항일 유격대의 한 분대는 행군 도중 120명의 일제 헌병무리와 불의에 맞다 들어 싸우게 되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배나 되는 적을 공격하여 놈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몽땅 잡았다. 이 때 놈들에게서 빼앗아낸 경기관총, 적탄통, 보병총, 권총의 개수 중에서 경기관총과 보병총의 합은 83, 적탄통과 권총의 합은 93, 무기들을 각각 몇 종(문) 빼앗았는가?

(고등중학교 2학년 대수)

○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날강도 놈들의 강점 하에 있는 한 공장에서는 원료 부족으로만 하여도 2년 안에 생산량이 84퍼센트 줄어 들었다. 매 해 평균 몇 퍼센트씩 줄어 들었는가?

○ 1954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날강도놈들은 100,000,000 달러를 남조선에서 략탈해갔다. 미제 날강도놈들이 략탈해간 것을 10의 루승근으로써 표시하여라.

(고등중학교 3학년 「대수」).

대부분의 북한학생들이 고등중학교과정부터 배우는 유일한 외국어는 「로어」이다.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로어」 이외에 영어 등을 배우기도 한다.

고등중학교 3학년 「로어」 교과서는 첫 단원부터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면, 영어과목의 「Black Jimmy」라는 단원은 미국에서 사는 흑인 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얘기로 두 장의 삽화를 싣고, 흑인들은 짐승의 우리와도 같은 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왜곡 기술해 놓고 있다.

즉, 「흑인은 열심히 일해도 벌이는 시원치 않다」는 내용으로 이 단원은 시작된다.

영어과목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김일성을 이상화한 내용은 적지만, 흑인에 대한 내용은 다루면서 백인의 차별대우를 남북전쟁 이전의 현실로 묘사해 놓고 있다.

특기할 점은 책내용은 미국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으로 차있으면서도 영어발음은 영국식이 아닌 미국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점이다.

(2) 호전성 고취

북한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어나 사회과목은 물론 수학, 음악, 미술 등까지 호전적이고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용어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철천지 원수놈」 등 상스러운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전투적인 용어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방법을 써서 적대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들의 교과서 집필 지침에 따라 기술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65페이지 「국어소조활동과 구연」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서도 이같은 지침은 명확히 나타나 있다.

「구연」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생동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러한 구연을 듣게 되면 지난 날 일제놈들과 자주 자본가놈들에 대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게 한다」고 설명해 놓았다.

고등중 2학년 국어교과서의 「말하기와 언어례절」에는 「원썬놈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키다리 미국놈」, 「미국놈의 대가리」, 「왜놈의 모가지」 등 낮잡아 이르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표현을 쓸 때는 「필요한 대목에는 감정을 넣고 운율을 살려 읽도록」 강조하고 있다.

「원썬」, 「○○놈」과 같은 욕설 이외에도 「피바다」, 「피땀 원썬」 등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 합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맹목적인 세뇌효과를 노리고 있다.

국어 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이 같은 호전적인 내용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이 수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령, 인민학교 4학년 수학교과서에는 「다음 표는 미제 승냥이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의 한 학교에서 학비를 내지 못하여 쫓겨난 학생수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꺾인 선 도표를 그리시오」라든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수류탄과 「자동보총」의 그림을 통해 수의 개념을 터득하도록 수학교과서는 꾸며져 있다(인민학교 산수도 북한에서는 수학으로 부른다).

나뭇섬은 전폭기인 「미그」기 편대를 그린 그림을 통해 배운다.

붉은 교과서는 이미 인민학교에 취학하기 이전 유치원과정의 전쟁놀이 등으로 친숙해진 전쟁 장비와 무기를, 기초적인 섬을 터득하는 매개물로 채택해 삽화까지 곁들여 놓고 있다.

섬법을 터득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승냥이 미제놈 땅크를 6대 까부셨습니다. 또 2대 까부셨습니다.

모두 몇 대 까부셨습니까」라는 문제가 나온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승냥이 미제놈들을 죽이는 인민군대 아저씨들을 도와 16,875상자의 탄알을 소년단원 45명이 날랐습니다.

한 명이 몇 상자씩 나른 것으로 됩니까」라는 문제는 나뭇섬 문제, 곱셈은 「미제승냥이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에서 3,200원하던 물건값이 또 그의 2.25곱으로 올랐습니다. 물건값이 또 몇 원이나 비싸졌습니까」하는 식의 문제를 통해 배우고 익힌다.

고등학교과정의 교과서는 수준은 높아지지만 교과서의 설명이나 제시된 문제는 비슷한 형식이다. 「기하」교과서의 표지는 전투기 그림이며 「대수」교과서의 겹표지는 대포의 탄도를 그려 놓았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파악하는 문제는 삼각형 중심부에 「미제놈」이라고 써 놓은 과녁을 세우고 학생들이 없드려 이를 겨냥해 총을 쏘는 삽화를 이용해 터득하게 한다.

삼각함수를 배우는 단계에서도 이해를 돕는 삽화나 설명은 전투적인 것으로 일관되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한 해안방어진지에서 원썬 미제의 간첩선을 단발에 명중, 격침시켰다. 이 때 진지높이는 150m, 내려보는 각이 8도였다. 진지로부터 간첩선이 격침된 곳까지의 수평거리를 구하여라 (10자리까지)」

그들은 전쟁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무기나 전쟁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한국 등을 터무니없이 헐뜯는 내용이 많다.

「남조선 한 마을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82명 있습니다. 담배를 파는 아이는 54명이고, 나머지는 구두닦이를 합니다. 구두닦이를 하는 아이는 몇 명입니까」

(인민학교 1학년 「수학」)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승냥이 미제놈들과 괴뢰군 놈들을 모두 15,130놈 잡았습니다. 그런데 승냥이 미제놈은 괴뢰군들보다 1,030놈 더 많습니다. 승냥이 미제놈과 괴뢰군 놈들을 각각 몇 놈씩 잡았습니까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오.」

(인민학교 4학년용 「수학」)

이처럼 수학의 기초적인 원리를 터득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등수학에 이르기까지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전술훈련 전투 등을 소재로 한 내용이 기술돼 있으며 한결같이 전투적인 용어가 구사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밑에서 과연 인간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더불어 살수 있는 관용적 인간들이 길러지겠는가?

그들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살인집단을 길러내고 있는 것 같다.

〈실례〉 호전성 고취내용

○ 400m 상공에서 미제 날강도놈들의 락하산이 남조선 무장유격대의 맹사격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명중된 때로부터 얼마후에 땅바닥에 떨어져 즉사하였겠는가? (t초 간에 물체가 지난 경로의 길이는 7.9m로 계산된다.)

○ 조국해방전쟁 때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인 용감한 조선인민군의 한 박격포 부대는 전선에서 옥실거리던 미제 날강도놈들의 머리 위에 불벼락을 퍼부었다. 이 때 포탄의 탄도는 $Y = 2X - X^2$ 이었다. 미제 날강도 놈들은 몇 킬로미터 앞에서 소멸되었겠는가? (여기서 X는 포탄의 수평거리, Y는 높이다.)

○ 조국해방전쟁때 비행기 사냥군조의 인민군 전사가 혼자서 싸 떨군 날강도 미국놈의 비행기 수는 우수라고 한다. 이 수와 다음의 큰 우수와의 적은 싸 떨군 비행기의 15배에 14를 가한 것과 같다. 싸 떨군 날강도 미국놈의 비행기 수를 구하여라.

○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썬인 미제 날강도 놈들의 비행기가 500m의 높이에서 220m/

초의 속도로 머리 위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다. 용감한 조선인민군의 한 사수는 미국놈 비행기를 올려다 보는 각이 47° 12'인 순간 총알과 비행기의 속도를 고려하여 올려보는 각이 65°30'인 점을 조준하여 발사한 결과, 명중되었다. 사수는 미국놈 비행기로부터 몇 미터 앞을 조준하여 발사하였겠는가?

미국놈 비행기의 동체의 길이가 11m라면 비행기 길이의 몇 배 앞을 조준하였겠는가? (이상 고등중학교 3학년 대수)

특히 인민학교 음악교과서는 호전성을 고취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인민학교 3학년의 경우, “몰아내자 미국놈을 우리 조선땅에서”라든가, 역시 3학년의 경우, “학교 앞도 못 가던 머슴군에게 원수님의 유격대복 입혀주셨네”라는 내용 등으로 유치원 때부터 전투에 임하도록 그 호전성을 고취하고 있다.

(3) 한국 사회상 왜곡

북한은 철저히 폐쇄된 사회이다.

언론자유, 여행통제 등으로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일 외에는 자기들 주변의 일도 거의 모르고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물며 한국의 참모습을 알 길이 없다. 그들은 오직 왜곡된 한국의 실상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치 솟는 물가」, 「세금지옥」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짓선전 내용만이 한국에 대한 「실상」으로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다.

〈실례〉 한국 사회상 왜곡

○ 미제 날강도놈들이 옥실거리는 남조선에서 1인당 평균세금은 21,500원이었다.

한 노동자가 세금을 물기 위하여 21, 500원을 월리 6푼으로 빌렸다. 빌린지 2년만에 복리법으로 계산하여 빚을 갚게 되었다. 얼마를 갚아야 되겠는가?

○ 남조선의 한 농민이 당장 굶고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리대금업자한테서 3만원을 빌려 왔다. 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놈은 4년 후에 년리 10할로 받아내려고 날뻐다. 가난한 이 농민은 얼마나 몰어야 하는가?

○ 남조선의 한 노동자가 집세를 반년째 치르지 못했더니 매달 5천원인 집세에 월리 10할로 리자가 붙었다. 리자는 얼마겠는가?

○ 남조선에서 한 어린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교섭비용으로 10만원을 빌려 소비하였다. 년리 9푼으로 3년 만에 빚을 갚으려면 얼마를 치러야 하겠는가?

○ 남조선에서 실업당한 한 노동자가 돈 5,000원을 겨우 빌렸다. 년리 6할로 3년만에 갚으려면 얼마를 치러야 하겠는가?

(이상 고등중학교 3학년 대수)

다. 역사를 멋대로 왜곡·날조

북한 교과서에서는 김일성을 내세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회」, 「조선력사」, 「조선지리」 등 사회교과서는 온통 김일성의 신격화, 계급투쟁, 사회주의혁명, 반미투쟁 등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조선력사」는 「관리놈들」, 「봉건 지주놈들」, 「절간 중놈들」과 이에 대항하는 「량인농민」과의 투쟁의 과정으로 왜곡,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후삼국시대의 「붉은바지 농민군」, 농민들이 「단결과 투쟁의 표식으로 붉은 바지를 입고 싸웠다」고 소개하면서 「지방관청과 지주놈들 집을 습격, 악질관리놈들과 지주놈들을 쫓아 놀리고 창고를 열어 굶주리고 헐벗은 인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려 때의 큰 반란인 묘청난과 정중부의 난은 「묘청은 평양 인민들로 대오를 편성, 기왓장과 벽돌을 던지면서 용감하게 적들(관군)을 죽이었다」, 「무신 량반놈들은 왕을 쫓아내고 문신 관료놈들을 모조리 처죽인 다음 정권을 틀어쥐었다」고 상스런 표현으로 장황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양 농민군」, 「공주농민군」, 「경상도 농민군」 등 「농민군」과 「토벌군」의 싸움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한 뒤 「용감히 싸웠으나 그 어느 하나도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농민들이 왕을 비롯한 봉건 통치배들이 모두 계급적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쟁과 내란의 설명에서는, 「죽였다」, 「쏟아놓았다」, 「까놓았다」, 「까부셨다」, 「쳐 죽이었다」, 「몽땅 녹아났다」, 「때려부셨다」는 등의 표현들이 수없이 나온다.

안시성싸움 부분에서는 「침략자의 우두머리 왕놈도 원눈에 화살을 맞아 외눈같이 되었다」는 등 상식적으로 교과서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말을 쓰고 있다.

고려의 문학예술부분에서는 착취자들을 놀고먹는 참새에 비유, 폭로한 것이라는 「참새새끼」, 「그물에 걸린 참새」 등의 민요와 「농군의 노래」, 「도토리 노래」 등 「지주놈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폭로한」 시가 있다고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청산별곡」, 「가시리」, 「파한집」, 「역용패설」 등 우리 귀에 익은 유명작품들은 제목만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한글에 대해서도 「리조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을 봉건통치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쉬운 글을 만든 것」이라고 하고 「반동적인 유교」는 「인민들의 계급투쟁의식을 흐리게 했다」며 문화유산을 계급투쟁에 관련시켜 거의 부정적인 평가만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왕과 지주놈들의 위신을 돋구며, 봉건유교도덕을 선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들만 골라 썼다」고 악평하고 있다.

우리 역사교과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역사상 첫 통일로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교과서는 고려를 첫 통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신라통일은 완전한 국토통일이 아니라고 해서 「령토 확장」, 「령토 남부의 통합」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갑신정변은 「1884년 부르조아혁명」, 위화도회군은 「위화섬 군사돌림」, 삼국시대는 「세나라시기」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

신미양요(1871)는 「미국 해적선 사만호사건」으로 명명, 「미제국주의는 이같이 1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온,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낄강도놈들」이라며 김일성의 증조할 아버지 「김응우 선생님」이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세계력사」의 경우, 종교 문화분야의 내용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10월 사회주의 혁명」(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 각 공산국가들의 「혁명투쟁」 소개와 「빨리불가담」(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 강제주입식 세뇌방법의 내용구성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제시방식을 보면,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완전 무결의 가르침인 것처럼 되어 있다. 거기에는 어떤 의심이나 사실여부에 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김일성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 너무나 위대하고 위엄 있게 파고 들어가 있어서 북한의 폐쇄사회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라면 그의 신성에 자연히 압도되도록 되어 있다. 원수와 동무로 갈라 놓는 막스-레닌의 세계관, “남조선을 강점한 철천지 원수 미국놈”, “해방되어야 할 남조선의 참혹상”, 이런 모든 것은 진실이며 사실로서 가르쳐진다. 그것은 교과서의 전체구성에 있어서 일관되게 되풀이되고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의 교시에 의해서 그렇다고 최상의 권위로 입증된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교과서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전체사회 조직과 신문, 라디오,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바로 이 점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북한의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교화되고 세뇌될 수 있다. 이 점이 공산주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용이 언제나 진리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낸 문제해결 가운데 최선에 가까운 것으로서, 우리의 창의와 슬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여,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서로 다른 해답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우리의 교육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구성에 있어서, 별다른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를 성전시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을 철저히 따라가는 판에 박은 기계적 인간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마. 민족동질성 파괴(언어의 이질화)

언어체계, 역사이해에 있어서 우리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민족동질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우려하게 한다.

교과의 많은 기본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달라지고 있음이 크게 주목된다. 두 음법칙을 무시하여 “령도”, “력사” 등 첫 음에 “ㄹ”을 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호상(상호), 밥공장, 원수(원수적) 등 우리에게 생경한 일상용어가 쓰이는 예는 허다하다. 교과별로 보면 이러한 이질화된 언어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감동사(감탄사), 직유(직접 비김) - 이상 국어, 돌물(용암), 지구마닥(지구내부), 주름운동(습곡운동), 땅끓임운동(단층운동), 달라진 바위(변성암), 쌓임벌(퇴적평야) - 이상 지리, 뒷샘(검산), 옹근수(정수), 데림분수(대분수), 팔메선(포물선) - 이상 수학, 김밖기(명암), 벽보(벽화보), 초본그리기(밀그림 그리기) - 이상 미술, 장단치기(리듬치기) 선물만들기(가락짓기) - 이상 음악, 이러한 학술용어 이외에 일상 용어로 “일떠서다”(일어서다), “마사지다”(부서지다), “알마춤한”(알맞은), “야장간”(대장간) 등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용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우리와 정반대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6. 25는 남쪽에서 먼저 도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쳐들어오려고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다”든가, “낄강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고 기름진 논밭이 군사훈련장으로 짓밟히고 있다”(지리교과서) 등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곳으로 남한실정을 왜곡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고대부터 완전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막스주의적 투쟁의 역사로 기술하고 있다.

4.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 교과서는 역사, 지리는 물론 국어, 수학, 예술과목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시키고, 공산주의 혁명가를 양성시키는 것이 그 기본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 아래 만들어진 북한 교과서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는 도구적, 굴종적, 맹목적인 인간상이 길러지기 쉽다는 점이다. 교육이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개인의 성장을 돕고, 그러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을 이끌며, 나아가서는 인류역사 발전을 돕는 것이 그 기본목표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공산체제 중에서도 지극히 폐쇄적인 김일성 개인집단을 위한 도구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독단적, 폐쇄적 성향을 띠게 되는 이러한 닫힌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계속된다면, 인간 정신의 발전을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 사상, 과학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6,000만 우리 한민족에서 2,000만이라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같은 반교육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역사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해치는 비극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두번째로는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에 역행하는 교육내용으로 심각한 민족의 이질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념적 체제 아래 그 문화와 사용하는 언어체계도 상당히 변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교과서가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 시키고, 계급투쟁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역사 날조로, 우리와는 다른 역사상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심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호전적, 투쟁적인 용어와 속된 표현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목표로, 창의와 자유를 기본으로 한 우리의 언어, 문화체계와는 상반되는 이 같은 교육이 북한지역에서 계속된다면,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이 과연 유지 존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왜 그랬어? ◇

L 대위는 화창한 봄날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위하여 C중위와 함께 고도 2만피트에서 F-5A로 Vertical Scissor 기동을 하던 중 약 70도 경사, 45도 상승률 자세에서 왼손으로 Throttle을 잡고 요기를 확인하던 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Throttle을 약간 미는 순간 딸가닥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요한 적막이 찾아왔음. 대위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놀라움을 참고 계기를 확인하니 두 엔진 모두 Flame Out되고 속도가 100KTS 이하로 줄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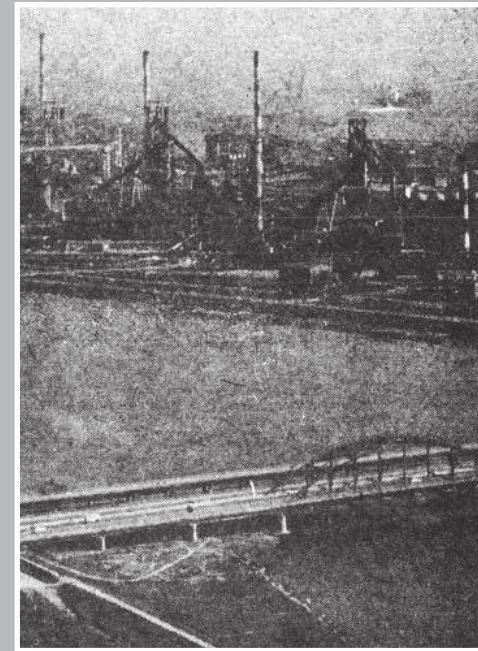
기수를 우선 낮추고 증속시키며 Throttle을 OFF 후 250KTS가 되는 것을 보고 좌측 Engine부터 시동을 걸고 잠시 기다리니 Radar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L대위는 소리에 대한 반가움을 새삼 깨닫게 되었음.

임무를 중지하고 말없이 귀환하니 요기 C중위는 왜 그럴까? 의심은 나지만 따라올 수 밖에 ……

올바른 이해(理解)를 위(爲)하여

- 국정(國政) 1문(問) 1답(答) -

편집실(編輯室)



이 자료는 경제(經濟) 주요관심사(主要關心事)에 대하여 국민(國民)의 궁금증과 오해(誤解)를 풀어주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認識)을 심어 주기 위한 해설 자료(解說資料)이다.

80년의 外債(외채) 200억불(億弗)이 84년에 430억(億弗)로 급증(急增)한 이유는?

○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하므로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위하여 부득이 대부분의 원자재(原資材)를 해외로부터 수입, 이를 상품화(商品化)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輸出)하는 정책(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 원자재(原資材)를 가공 수출(輸出)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업화(工業化)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많은 기계설비(機械設備)를 도입해야 하고, 또한 도로(道路), 철도(鐵道) 및 항만 건설이 필수적(必須的)으로 뒤 따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외채(外債)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 '79년말 204억 불이던 외채규모(外債規模)가 84년(年)말에 431억불로 급격히 증가된 주원인(主原因)은, '79년의 배럴당 13불(弗) 수준(水準)이던 원유(原油)값이 30불선(弗線)으로 폭등하였고 국제금리(國際金利) 상승(上昇)으로 인해 7.5% 이던 외채이자(外債利子)율이 10%가 넘는 선으로 상승한데 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추가된 외채부담이 원유(原油)값 143억불, 이자(利子) 40억불로 무려 183억불에 이른다.

○ 외채(外債)를 들여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라는 반론(反論)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벌어들인 돈만으로 원자재(原資材)를 사오고, 그 많은 공장(工場)을 건설하려 했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經濟成長)이나 우리 생활의 향상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 국내외의 많은 학자(學者)들은 우리 경제에 외자도입(外資導入)이 없었을 경우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은 기대할 수 없었음은 물론 아직도 후진국(後進國)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62년~' 83년 기간 중 외자도입(外資導入)이 없었더라면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은 8.2%에서 5.6% 정도로 낮아지고 연평균 취업자(就業者) 증가 29만명 중 외자(外資)에 의한 고용증대가 11만4천명이었음에 비추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 외채(外債)는 선진국(先進國)도 지고 있다. 일본(日本)은 2,000억불이 넘는 외채(外債)를 지고 있으나 외상 수출대금(輸出代金)이나 외화(外貨)보유로 받아야 할 돈이 외채보다 많기 때문에 채권국(債權國)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84년 말 총외채잔액(總外債殘額) 431억불에서 외상수출 대금이나 외환보유고(外換保有高) 등을 뺀 순외채(純外債)는 329억불이다.

급증(急增)한 외채(外債)를 어디에다 사용했나?

○ '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채(外債)가 급증(急增)한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은 '79년말 원유(原油價) 폭등(배럴당 13불(弗)-35불(弗))과 국제금리(國際金利) 상승으로 인한 외채(外

債) 이자율(利子率)이 인상(7.5→16~17%)으로 추가된 외채부담률이 183억불에 달한다. 지난 '80년 미증유의 혼란으로 인한 수출격감 및 농산물홍작(凶作) 등으로 5.2%의 마이너스 성장(成長)을 기록한데서도 그 원인(原因)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84년 현재 430억불(弗)의 외채(外債) 속에는 제5공화국 출범 이전의 누적된 외채(外債) 200억불(弗)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속에는 현지금융(現地金融) 59억불(弗)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현지법인(現地法人)과 외국은행(外國銀行)의 금융거래(金融去來)로서 국제관례상 외채산입(外債算入)에는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다.

○ 그러나 제(第) 5공화국(共和國)은 '80년 초의 극도의 혼란(混亂)과 무질서(無秩序)로 인한 국가존립(國家存立)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수습하고 우리 경제(經濟)를 안정성장(安定成長)의 궤도 위에 올려 놓았다.

항간에는 88고속도로(高速道路) 건설 이외에 외채(外債)를 들여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의문시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 제(第) 5공화국(共和國) 정부(政府)는 정치(政治), 사회(社會), 문화(文化) 등 모든 분야(分野)에서 자율과 개방, 성숙의 시대를 열어 국가(國家)의 활력(活力)을 진작시킨 것은 물론 특히 경제면(經濟面)에서 괄목(刮目)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이는 외채(外債)의 효율적(効率的)인 사용(使用)이 뒷받침한 성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 도입외채(導入外債)는 국토개발면(國土開發面)에 있어서 88고속도로(高速道路) 건설 뿐 아니라 광주권(光州圈) 개발사업 완공(完工), 전주권(全州圈) 개발사업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한강 교량(橋梁)(4개) 건설, 댐(8개) 건설추진 그리고 서울과 부산(釜山)의 지하철(地下鐵) 건설 추진 등으로 쓰여지고 있고 상하수도(上下水道) 건설, 수리시설(水利施設), 경지(耕地)정리, 발전소(發電所) 건설, 전화시설(電話施設) 확충 등 우리 생활편익(生活便益)을 돕는데 투자되었다.

○ 이같은 경제시책(經濟施策)에 따라 우리 경제는 80년의 도매물가(都売物價) 상승률 42.3%에서 ' 84년말 1.6%로 획기적 물가안정(物價安定)을 기한 위에 연평균 수출(輸出) 13.3% 증가, '84년도의 불과 14억불의 국제수지적자(國際收支赤字) (80 : 53억불), 그리고 ' 81년 이후 연평균 7.2%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새로운 도약단계(跳躍段階)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채(外債)를 상환(償還)할 능력(能力)이 있는가?

○ 우리나라의 외채(外債)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事實)이며, 과연 이를 갚아 나갈 수가 있는 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빚을 주는 사람이 빚을 지는 사람의 값을 능력(能力)을 고려하지도 않고 빚을 줄 리는 없다. 외국은행(外國銀行)이나 국제기구(國際機構)가 아직도 한국(韓國)에게 차관(借款)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상환능력(償還能力)이 있다는 것을 반증(反証)하는 것이다.

○ 외국(外國)이 빚을 줄 때는 채무국(債務國)이 외채(外債)를 얼마나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가 외채(外債)를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건설에 사용하고 있고 국민생활(國民生活) 편익을 증진하며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외채도입(外債導入)의 조건충족(條件充足)은 물론 상환(償還)의 능력(能力)도 인정받고 있다.

○ 400억불(億弗)의 외채(外債)는 이를 한꺼번에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元金) 일부와 이자(利子)를 매년 갚아 나가는 것이다.

외채(外債) 상환능력(償還能力)을 평가할 때, 벌어들인 외화(外貨) 중 몇 %가 원리금(元利金) 상환에 쓰여지는가 하는 소위 원리금상환(元利金償還) 부담률(負擔率)이 중요한 지표(指標)로서 사용된다.

외채(外債)에 대한 상환능력(償還能力)을 나타내는 원리금(元利金) 상환부담율(償還負擔率)(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수출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외채상환능력(外債償還能力)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 장기 원리금(元利金) 상환부담률은 15.7%로서 아르헨티나의 103%, 브라질 87%, 멕시코 59%에 비할 바가 아니며, 장기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15.3%로 전세계 평균치인 29.1%나 세계 12대(大) 채무국(債務國)의 평균치인 22.1%보다 크게 낮고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의 위험수위(危險水位) 평가기준인 20% 보다도 훨씬 낮으며 앞으로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展望)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외채(外債) 평균상환기간(平均償還期間)은 11.9년으로 세계 20개 고채무국(高債務國) 평균(平均) 8년(年)보다 장기(長期)이고, 평균이자율(平均利率)도 8.9% (20개국 평균 11.2%)로 좋은 조건으로 차입(借入)하고 있다. Int'l Investors가 추정하는 Country Risk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7개국 중 '80년 43위(位)에서 '84년 30위(位)로 낮아지고 있다.

○ 덴마크 노르웨이는 1인당 외채(外債)가 7,000불(弗)이 넘는 수준이며, 캐나다는 1인당 4,000불로서 외채규모(外債規模) 1,000억불(億弗)이 넘지만 아무도 그 나라들의 외채(外債) 상환능력(償還能力)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 외채(外債)가 많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國民) 모두를 위한 외채(外債) 사용(使用)이기는 했지만 외채(外債) 절감(節減)을 위해서 정부(政府)와 국민(國民) 모두가 노력할 때다. 정부(政府)에서는 외채절감(外債節減)을 위하여 제(策) 5차(次) 경제개발(經濟開發) 5개년계획(個年計劃)이 끝나는 '86년도(年度) 우리나라 외채규모(外債規模)를 당초 645억불(億弗)에서 470억불(億弗)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경상수지(經常收支) 적자폭(赤字幅)도 '82년도(年度) 26억불(億弗), '83년도(年度) 16억불(億弗), '84년도(年度) 14억불선(億弗線)으로 매년 개선시켜 나가고 있어 '80년(年)대 말이면 흑자(黑字)가 예상되고 있다.

○ 또한 기업(企業)은 새로운 기술(技術)을 개발하여 질 좋은 상품(商品)을 만들어 수출(輸

出)을 늘려 나가야 하며 국민들은 국산품(國產品)을 애용하고 과잉 소비풍조를 없애며 에너지를 절약하여 합리적(合理的)인 소비생활(消費生活)을 꾸려 나가는 등 외채절감(外債節減)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努力)이 필요(必要)하다.

많은 외채(外債)를 지고 있으면서 2천년대를 대비할 수 있는가?

○ 400억불 이상의 무거운 외채(外債)를 지고 있으면서 2천년대(千年代)와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일부의 비판(批判)도 있으나 이는 역사발전(歷史發展)을 위한 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 불확정(不確定), 불확실(不確實) 시대(時代)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기(世紀)를 위한 민족적(民族的) 대비(對備)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족(民族)의 영고성쇠(榮枯盛衰)는 가름 된다. 100년전 구한말(舊韓末), 나라의 장기설계(長期設計)가 없었기 때문에 국권상실(國權喪失)의 불행을 겪었던 경험(經驗)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 선진외국(先進外國)에서조차도 2000년을 대비하는 각종 연구(研究)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 문화재단(文化財團)의 「유럽 2000년」(77년), 미국(美國)의 「지구(地球)의 2000」(80년), 일본(日本)의 「2000년의 일본(日本)」(82년) 등이 그것이다.

○ 많은 외국의 학자(學者)와 전문가(專門家)들은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予見)하고 있고, 한국(韓國)은 그 주역(主役)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世界銀行)(IBRD)의 한 보고서(報告書)는 21세기의 한국(韓國)을 「산업화(産業化) 시장경제(市場經濟)」로 전망했는가 하면 미국(美國)의 저명한 경제학자(經濟學者) 「W. 로스토우」 교수는 「고도대중사회(高度大衆社會)라는 말로 2천년의 한국(韓國)을 표현한 바 있다.

○ 우리가 지고 있는 외채(外債)는 정부(政府)와 국민(國民)의 노력(努力)으로 갚아 나가야 하고 또 분명히 갚을 수 있다. 지금 외채(外債)는 오히려 국가발전(國家發展)의 밑거름으로 선용(善用)되고 있다.

○ 21세기 건설은 정권적(政權的) 차원의 구호(口號)가 아니라, 진정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온 민족(民族)의 이상(理想)이자 희망(希望)이며 실천적 목표(目標)인 것이다.

재벌기업(財閥企業)만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中小企業)이 도산(倒産)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과거 경제발전(經濟開發) 계획과정(計劃過程)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공장을 세우고 수출(輸出)을 늘리기 위해 정부(政府)가 대기업(大企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제(策) 5공화국(共和國) 출범 이후, 정부(政府)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보호와 육

성(育成)을 위해 82. 4월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中小企業振興長期計劃)」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대한 대출(貸出)을 규제하고 강력한 중소기업(中小企業) 금융지원(金融支援) 시책(施策)을 추진하고 있다. '84년 중 은행(銀行)의 총 대출증가액(總貸出增加額) 26,319억원 가운데 48.1%에 해당하는 12,661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책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기금(中小企業振興基金)에 정부(政府)가 매년 재정지원(財政支援)을 하여 '85년(年) 말에는 1,750억원의 기금(基金)을 조성 활용하고 중소기업(中小企業) 공제사업기금(共濟事業基金)에도 50억원(85)을 정부가 출연(出捐)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중소기업(中小企業)에 대한 의무대출(義務貸出) 비율을 인상하였고(시중은행(市中銀行) : 30% ~ 35%, 지방은행(地方銀行) : 50%~55%), 단자회사(短資會社)의 중소기업(企業) 대출비율도 높였으며(30%~35%),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조성자금(地方造成資金)이 서울로 역류(逆流)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정부(政府)는 대기업(大企業)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中小企業) 사업분야(事業分野)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즉 대기업군(大企業群)은 주력업종(主力業種)에 전념하도록 하여 대형(大型) 전문화(專門化)시켜 국제적 경쟁력(競爭力)을 갖춘 기업(企業)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독과점 품목(品目)에 대한 경쟁촉진(競爭促進)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대기업(大企業)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자율적(自律的)인 경쟁력(競爭力)을 배양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中小企業) 창업자금(創業資金) 190억원(85)을 지원하고 하도급(下都給) 등 모기업(母企業)과의 계열화(系列化)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公正去來) 차원(次元)에서 의 조정(調整)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종(固有業種)을 확대하여('84 : 205개 업종(業種)), 이에 대기업(大企業)이 임의(任意)로 참여할 수 없도록 보장(保障)해 주고 정부(政府) 및 공공기관(公共機關)에서는 매년 중소기업(中小企業) 제품(製品)을 구매토록 하였다 (84 : 32,666억원)

빈부격차(貧富隔差)를 해소(解消)하기 위한 정부시책(政府施策)은 무엇인가?

○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체제하(經濟体制下)에서 빈부(貧富)간의 상대적인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유경쟁(自由競爭)과 창의원리(創意原理)로 개인(個人)의 행복(幸福)과 나라의 부(富)를 증대시키는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체제의 장점(長點)은 지금 중공(中共)이나 소련(蘇聯), 심지어 북한(北韓)까지도 이를 도입(導入)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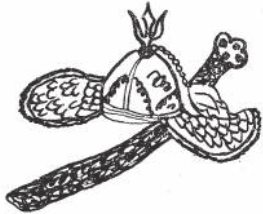
○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를 위해 지난 '60 ~ '70년대에 공업화(工業化)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빈부간(貧富間)의 격차(隔差)가 다소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國民所得) 2천불(千弗)시대(우리의 입장)에는 선진외국(先進外國)이

그러했던 것처럼 계층간(階層間)에 상대적 빈곤(貧困)의식, 소외감(疎外感) 등이 크게 높아진다는 현상(現象)도 있다.

○ 정부(政府)는 중산층(中產層)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의 혜택(惠沢)이 국민(國民)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相續稅), 재산세(財産稅) 등에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고 부동산(不動產) 투기(投機)에 대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강화하고 중산층(中產層) 이하의 세(稅)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세정책(租稅政策)을 통한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강화하고 서민층(庶民層) 공공주택(公共住宅)의 확대공급 및 서민 무주택가구(無住宅家口)에 중점 분양, 의료보험제도의 점진적 확대실시 등 복지시책(福祉施策)을 확충해 나가며 도서벽지의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확대하고 농가(農家)의 농외소득증대(農外所得增大)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中小企業)을 적극 육성하고 대기업(大企業)의 경제력(經濟力) 집중방지(集中防止)를 위한 관계법(關係法) 개정(改正)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를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을 평정(平定)한 최영장군(崔瑩將軍)



상승의 명장

정준귀
<교사>

최영장군은 고려의 명문 출신이었다.

그는 재상(宰相)을 지낸 최유청(崔惟淸)의 5대손이며 최유청은 무인의 난 때 문관들이 무더기로 학살당할 때에도 그의 덕망에 감복한 무장들의 비호로 화를 면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최영의 아버지 원직(元直)은 사헌부(司憲府)의 간관(諫官)으로서 검찰의 직을 맡아보고 있었다.

최영은 어릴 때부터 얼굴에 영기와 위엄이 있었고 기골이 장대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최영의 나이 16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임종 때 아들을 불러 놓고 「너는 마땅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타일렀다.

최영은 평생 이 유언을 빼어 사무치도록 새겼으니, 그는 이로부터 청렴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최영은 청년장교로서 양광도(揚廣道)(지금의 경기도) 도순문사(都巡問使) 휘하에서 왜구(倭寇)를 막는데 공을 세워 왕의 근위대원이 되었다.

그후 공민왕 원년(1352년)에는 다시 조일신의 역모(逆謀)를 진압하여 무명을 떨쳤고 3년 뒤 39세 때에는 벌써 대장군(從三品)이 되었다.

때는 아시아와 유럽에 군림하여 영화를 자랑하던 대원제국(大元帝國)이 마침내 낙조(落照)의 길을 더듬던 시기였다.

강남에는 홍건족의 반란이 불길처럼 퍼지고 있어 원나라 군사는 대토벌조를 남하시키는 한편 고려에 대해서도 조정(助征)군의 파병을 요청해왔다.

이에 고려에서는 명망 있는 장군 40여명이 2천의 정병을 거느리고 원정의 길에 올랐으며 원나라에 있는 고려인 2만명과 함께 원나라 군사의 선봉으로 각지에서 빛나는 무운을 세웠던 것이다.

이 원정은 최영장군의 일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원나라 군사보다 고려 군사가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원나라의 내정이 형편없이 문란·부패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반란군, 즉 후일 명나라 군사의 실력을 이때 몸소 체험하였다는 사실이다.

원나라의 승(丞)상이며 토벌군의 총수인 설설이 고우성(城)을 빼앗고 육합성을 포위했을 때, 후일의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육합의 서쪽 백리지점에 있는 강주에 있었다.

이때 주원장은 육합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격하고 있었으니 그곳 전진에서 최영은 주원장과 만났을지도 모른다.

이 원정에서 최영은 각지를 전전하며 뛰어난 무공(武功)을 세우고 몸에 몇 군데의 창상(槍傷)까지 입었던 것이다.

그러하여 이들 원정군의 환국(還國)은 그대로 고려 재건운동의 출발을 의미하였다. 원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긴 이래 90여년동안 여지없이 자주성을 잃었던 고려가 이제 내면에 간직하고 있던 독립에의 의지를 유감없이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었다.

최영은 동북방으로는 쌍성총관부(雙城總官府)의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한편, 고려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넘어 요(遼)양에 이르는 교통로를 제압하였다.

이어 그는 고려의 야전군 사령관이라고도 할 서북면 병마사가 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홍건족과 여러 곳에서 싸워 눈부신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 홍건적이 원군의 진출에 밀려 방향을 고려로 돌린 것은 그후의 역사의 진로, 즉 고려의 숙원인 자주독립운동을 교란시킨 하나의 역운이었다.

그러하여 이 땅에 침입한 홍건적 10만군은 개경을 함락하고 성안의 남녀를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함부로 자행하였던 것이다.

1362년 최영·이성계 등이 거느리고 고려군이 서울을 탈환한 다음 해 왕이 환도하게 되었을 때 재상(宰相) 김용(金鏞)이 행궁(行宮)을 습격한 역모(逆謀)가 있었다.

이 반란도 최영장군의 분전으로 진압되어 그는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지금의 국방부장관에 해당)가 되었다.

이에 원나라에서는 고려왕족 덕흥군을 반원적인 공민왕 대신 즉위시키려고 최유(崔滯)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입국하게 했는데 최영은 이를 일격에 무찔렀다.

이렇듯 다사다난했던 고려 말기에 그는 동분서주하여 백전백승의 무장으로서 나라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영도 인간인 이상 실수와 파란이 없을 수 없었다. 1365년 그가 동서강도 지휘사(指揮使)로 있을 때였다.

마침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왜구가 창릉(陵)에 들어와 세조의 초상을 훔쳐간 일이 있었다. 이에 최영을 미워하던 신돈(辛旽)은 우왕에게 모함하여 그를 계림군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나 최영은 이를 감수하고 부임하였던 것이다.

신돈은 다시 이 기회에 최영을 아주 없애 버리려고 최영이 상하의 이간을 꾀하였다. 하여 이 득림을 보내어 그를 고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합포만(合浦萬)소 정사도가 결사적으로 그를 옹호하여 최영은 겨우 무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374년에는 또 제주도에서 목호(牧胡)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제주도는 원래 정종 때 원나라의 군민총판자가 설치되어 감독관 「다루하치」를 두어 소와 말을 방목하던 곳으로 원나라의 영향이 짙은 곳이었다.

그때 친원파의 현지 목장 관사들이 반명적인 감정에서 반란을 꾸밀 기색을 보이므로 고려에서는 최영을 총수로 전함 3백 14척, 사졸 2만 5천 6백명의 대군을 편성하여 이를 토벌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엄준한 진압으로 이 반란은 평정되었는데 그는 이때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가차없이 죽였을 뿐 아니라 병사들이 함부로 소와 말을 잡아먹으면 용서없이 사형 혹은 팔을 잘라 군기를 엄하게 함으로써 추후도 민폐가 없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싸움에 임할 때마다 필승을 기하고, 일보라도 물러서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리곤 하였다.

그가 개선하였을 때에는 벌써 공민왕(恭愍王)은 암살되고 우(禰)왕이 즉위하고 있었다.

당시의 고려는 왜구에 말미암아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1376년 왜구는 충청도 연산 개봉사를 점령하고 원수(帥) 박인규는 패사하였다.

이 때 최영은 노구(老鰲)를 무릅쓰고 출진을 자원하였는데 출동명령을 받은 그는 쉬지 않고 강행군으로 연산에 도달하였다.

공주 근처에 이르렀을 때 최영은 삼면이 절벽으로 된 협소에서 왜구와 충돌하였는데 그는 사졸(士卒)의 선두에서 돌격하다가 입술에 화살을 맞았으나 태연자약하게 곧 그 격격자를 활로 쏘아 죽이고 왜구를 대파 격멸하였다.

왕은 논공시상(論功施賞)으로 그를 시중(侍中)(수상)으로 승진시키려 하였으나 최영은 시중(侍中)이 되면 쉽게 출격할 수 없으니 왜구를 모두 진압한 후로 미루어 달라고 사퇴하였다.

그에게는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 있을 뿐 모든 공명은 그의 뜻하는 바가 아니었다.

다음해 왜구는 또 예성강 어귀까지 쳐들어와 전함 50여척을 불사르고 다시 강화로 쳐들어왔다.

이와 같은 왜구의 위협으로 조정에서는 내지로 천도(遷都)하자는 주장까지 일어나 철원에 궁성(宮城)을 쌓자는 등의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최영은 극력 반대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1378년 왜구는 또다시 승천도에 침입하여 서울을 침입해 온다는 소문이었다.

이에 서울은 계엄상태에 들어갔고 도성의 장정은 총동원되었다.

왜구는 홍산(鴻山)싸움 이래 백수 최만소(최영)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최영의 군사를 격파하는 것이 승리의 첩경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부대는 돌아보지 않고 최영의 직속부대에 공격을 집중하여 한때 형세가 위급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의 인심은 흉흉하였으며 백관은 피난보따리를 싸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무렵 최영은 공세를 취하며 이성계와 합세하여 이를 전멸시켰다.

그 후로도 해마다 경상, 강원, 전라도에는 왜구의 침입이 그치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여 굶어 죽는 자가 많았다.

재상 중의 재상

최영은 장군으로서의 관록 뿐만 아니라 입상하여서는 타협을 모르는 강직·청렴한 재상이기도 했다.

그는 이인임의 청탁을 큰소리로 꾸짖고 물리쳐 신정군 마동수의 탐오(貪汚)를 적발하여 백여 대나 곤장을 쳐서 유배장에 죽게 하였다.

그는 또 정사에 관여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우왕의 유모 장씨를 우왕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참형(斬刑)에 처하였으니 공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엄격한 그였다.

이렇듯 최영은 그 시대에 있어서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오랜 연륜의 공훈에 대하여 왕은 철승을 내려 표창하였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간곡한 대목이 보인다.

지금 장수들 중에서 역전의 도수와 공로가 많기로는 오직 경(卿) 한 사람 뿐이다.

또한 재상으로는 충의를 다하고, 위로 왕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보살핌이 더할 나위 없으니 재상 중에도 참된 재상이로다.

전토와 노비(奴婢)로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경의 청백은 천성이 그러하니 반드시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다만 철권을 내려 왕으로 축(軸)을 삼아 특례의 표창을 한다.

최영은 또 지성을 다하여 방당한 우왕의 행실을 간(諫)지 하였으며 그는 이에 부심한 나머지 가끔 철석 같은 의지로서 곤잘 눈물을 짓기까지 했다. 또한 청렴한 최영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상인들이 모리(謀利)에 급급함을 보고 모든 물가를 공정화하고 설인을 찍어 매매시키되 세인이 없는 물품을 거래하는 자는 등에 갈고리를 찍어서 죽일 것이라고 하여 큰 갈고리를 시장에 걸어 놓아 상인들을 벌벌 떨게 하였으니 여기서도 그의 엄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387년 고려의 사신 장방평 등이 요동에 이르렀을 때 명나라로부터 요동통과가 거부되어 그대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 국교단절과도 같은 비상사태의 돌발은 고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로써 대명 관계는 험악하게 되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민왕은 명나라 황제가 즉위한 후 곧 반원 친명으로 전환하였으니 이것은 대세를 통찰하는 선견의 명이 있음과 동시에 고려왕조 자체가 원나라와는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져 있는 관계로 보아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이같이 공민왕이 친명정책을 쓴 것은 친명을 위한 친명이 아니라 태조 왕건 이래의 고려의 북진주의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즉 고구려의 옛 강토인 만주를 합치는 것이 고려의 자주독립을 위한 숙원이었으며 이는 고려 시대를 일관하여 내려온 북진정책의 저유였다.

원상국이 낙조의 기세가 짙은 이때에 강토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명나라와 손을 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명나라의 요동 경로는 의외로 신속하였으니 그들은 해로로 요동반도·해항에 상륙하여 급속히 요동에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고려에서는 이성계 등으로 하여금 1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환인(桓仁)의 우라산성을 공략하고 많은 민소를 압록강 이남으로 옮겼으며 이어 요동의 요충인 요양을 함락시켰다.

그러나 성을 함락할 때 과실로 인해 창고가 타 없어져서 군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엄동설한에 대단한 곤란을 받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출병은 요동정세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처음 대도 함락 이래 원나라 황제는 멀리 한북으로 달아나고 요동에 대한 통제력은 땅에 떨어져 원장은 군용할거의 형세였으며, 그들은 남으로 고려와 협력하여 명나라의 동진을 막고 만주를 원나라 중흥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이리하여 요동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고려는 북진의 외원으로 명나라와 동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동지방의 한인출신인 요양성 평장 유익(劉益)은 요양성이 고려군에게 함락되자 명나라 군사에게 투항하였다.

유익(劉益)의 투항은 요동에서의 명나라의 세력을 약화시켜 정세는 일변하게 되었으니 고려 북진의 당면의 적은 원나라가 아니라 바로 명나라가 된 것이었다.

그 후 고려는 원나라 장수와 손을 잡고 명나라의 동진을 방해하여 반원친명책은 반명으로 역전하였다.

국내에서는 친원파의 세력이 부활되고 명나라 또한 고려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일변하여 견제하려 하였다. 명나라의 황제는 누차 고려의 표리부동한 처사를 힐책하고 사절을 비롯하여 내왕하는 고려인에게 정담의 혐의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민왕 12년 12월에는 장문의 선론을 내려 나하추군의 우가장 습격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핑계하여 고려사절에 요동 경유의 왕래를 막고 정벌 운운으로 고려를 위협하였던 것이다.

우가장 사건이란 명나라의 요동 경략사상 최대의 오점이니 원나라 군사의 기습으로 명나라는 10만여석의 군량과 5천여명의 군사를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명관계의 악화로 다시 북원의 연호를 쓰고 북원과의 국교를 재개하였으며 북원은 요양의 협공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명나라의 황제도 고려에 압력을 가하고자 과중한 세공액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병 수십만으로 정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하여 고려는 1384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밀린 5년분의 세종조로 금 5 백근, 은 5만냥, 배 5만필 말 5천필을 바쳐 우선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도 명나라 황제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러한 명나라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이 공갈외교로 고려를 견제함으로써 고려의 북진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본래 만주는 땅은 넓고, 인구가 드물었으며 또한 당시 압록강은 결코 피아의 국경이 아니었다. 강 양쪽의 주민은 성분도 비슷하고 경계라는 관념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 교역하며 매양 서로 친하게 지내며 통혼까지 하는 사이였다.

그러므로 우국은 서로 개발의 원동력인 민소의 확보에 힘써 경제적으로 상대방 민호를 초무하며 도강(渡江)을 원하는 자에게는 각기 양식을 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려측 공작의 기지가 바로 강계(지금의 만포진)였으며 강계는 또한 북원 및 명나라와 접촉하는 관문이었다.

그런데 강건너 환(桓)인평야 일대와 요양일대는 고려로서는 그들의 옛 강토로 여겨오던 고장이었다.

그것은 이 지방이 고구려 발상의 땅일 뿐만 아니라 전날 몽고와의 전쟁 때 고려의 피난민들이 북상하여 이곳에 많이 정착하였으며 원나라도 이곳에 고려 군민총관부를 두는 한편 그것을 심왕부(瀋王府)로 승격시켰다.

그 이후 고려 왕족을 심왕에 임명하였고 그들은 민정의 실권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요반(遼瀋) 일대는 고려인이 집단거수하는 특수지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고려는 이곳을 영토확장의 첫 대상으로 하여 쌍성총관저(영흥 이북의 함경도 지방)와 같이 아직 명나라의 지배력이 약한 이곳을 먼저 점령하여 기정사실로 만들고 그 후 적절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한편 명나라로서는 이 때 당면의 적은 북원이었으니 그들의 요동 경략의 목적이 사실은 요동지방의 점령유지가 아니라, 북원의 좌익을 이루는 북만주에 있는 원나라의 유력한 장영나하추군과 고려와의 연락을 끊는데 있었다.

그런데 1387년 6월 나하추가 명나라에 항복함으로써 명나라는 포로 20만명과 많은 노획물을 얻는 등의 전과를 올렸으며 이로써 동북방면의 위협이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정로대장군(征虜大將軍) 남옥(藍玉)은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출하여 동고 경략에 열중하게 되었으니 이에 만주, 특히 요동방면에 명나라의 병력은 비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는 고려를 자극하였으며 이러한 고려의 동향을 견제하려는 명나라의 공작도 노골화해 갔다.

이러한 정책의 첫 표현이 장방평등에 대한 요동 폐쇄였던 것이다.

질어 가는 전운

고려는 이에 적극책과 소극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왕의 뜻도 북진에 있었고, 북방정세에 정통한 최영장군 역시 북진주의의 강경파로서 그들은 이러한 나라의 우환을 못 본 채 축(蓄)때에만 정신이 갈려있는 권신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 등을 주살 혹은 유배하여 민심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북진주의 실현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것이다.

우왕은 최영의 고사를 무릅쓰고 최영의 딸을 영비로 삼았고 이로써 최영과 고려왕실은 한집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로부터 조야를 놀라게 한 중대 보고가 들어왔다.

최원지의 보고는 명나라 요동도사는 이은경 등을 보내어 압록강에 이르러 방문을 붙였는데 그 내용인 즉 명나라 황제 명으로 철진 이북과 동북·북서는 원래 원나라의 개원에 속하는 땅이므로 그 관하의 고려인과 한인 및 여진인·몽고인 등은 요동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철령은 우리의 강원·함경도 경계상에 있는 안변의 철관을 의미함이 분명한 것이다.

이 명나라 황제의 시달은 확실히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즉 철령의 서쪽이라 하면 우리의 평안도도 포함되는데 평안도는 원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대 통첩에 접한 고려는 곧 수상 최영이 주재하여 중신회의를 열어 정요위(正要)를 공격하여 명나라에 일격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요구에 응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그 결과 일단 외교교섭을 해본 연후에 결정짓자는 데에 합의하여 우선 사절을 출발시켰다.

그러나 견명사 조립 역시 요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자 명나라에 대한 감정은 더욱 격앙되었다. 이에 최영은 우왕과 요동정벌을 은밀히 의논하는 한편 명나라의 철령 이북과 이어 회수의 철회를 교섭하는 진청사로 밀직제학 박선중을 명나라 서울로 보냈다. 이때 또 최원지로부터 두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그 내용인 즉 요동도사에서는 천여명의 병력과 지휘관 두 사람을 강제로 파견하여 철령위를 세우고 관원을 임명하여 모두 요동에 도착했으며, 또 요동으로부터 철령에 이르기까지 70개의 역참(驛站)을 설치하고 각 역참마다 백소를 두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원지의 제2차 보고는 대세를 결정적으로 격화시켰으며 우왕은 비통한 목소리로 「군신이 나의 정요의 계책을 듣지 않아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도다」 하고 전국의 병사를 소집하였다.

우왕은 최영과 황해도로 가서 이성계를 불러 요동정벌군의 지휘의 임무를 맡기려 하였다. 그런데 사태를 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원지의 보고는 사실이 과장되고 날조된 것이었다.

명나라의 기록을 보면 명군은 강제 서쪽 황성에 와서 민호를 초무하였을 따름이며 병사를 끌고 도강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 최원지의 이 자극적인 보고가 있는 직후 명나라는 철령위의 치소를 요양 동북 80리 지점에 있는 봉집현에 정하고 있었으니 이 원격한 곳에서 철령 이북의 땅을 다스리려고 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최원지는 최영의 심복으로 반명감정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실을 날조한 것이고 철령위 설치 문제는 치소를 봉집현에 둬으로써 사실상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명나라 황제가 1387년 12월 중에 고려의 사절 설장수(契將帥)에게 전한 자문(咨文)에는 철령 이북의 회수건과 고려의 명나라에 대한 모욕과 정탐을 힐책하는 귀절과 아울러 금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말라는 강경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 진의는 요동의 확보를 위하여 고려의 북진 기도를 진압 견제하고자 일부터 고려가 탐내는 요동지방은 물론 나아가서 고려 내지까지를 명나라 영토로 회수하겠다는 협박외교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공갈은 명나라 황제의 상투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실로는 명나라에 간 주청사 박의중의 동향을 들 수 있다. 그의 주청이 성공하였는데 그 원인은 박의중의 청령에 명나라 황제가 감동한 때문이라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한낱 미화된 전설이거니와 철령위 문제가 요동공략의 출병에 앞서 치소를 봉집현에 둬으로써 결말을 보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명나라 황제의 협박은 고려 북진파에게 역이용을 당한 셈이었다.

좌절된 북진주의

이때의 정요군의 상황을 보면 우왕으로부터 요동정벌의 책임을 맡리게 된 이성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여러 번 그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소국으로서 대국에 거역함이 첫째, 불가요, 원정군이 출동하면 왜구가 그 허를 노릴 것이 둘째, 불가요, 여름철 출진이 셋째, 불가요, 지금은 장마가 들어 활의 아교가 녹아 못쓰게 되며 장마철이라 질병이 걱정되니 또한 불가하다.

그러나 이성계의 이와 같은 「사불가론」은 도군 이후에 조작된 것이고 이성계가 그 때 실제로 주장한 것은 여름철 발병의 한조목 뿐이었다. 그러나 최영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가 한편으로는 출병시기를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이성계의 저의를 의심하면서도 출동을 서두른 것은 다음과 같은 피치못할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첫째, 요동의 명나라 병력이 모두 몽고방면에 출동하고 있어 방위가 소홀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고, 둘째, 요양지방에는 고려인과 더불어 여진인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도 여진 땅에서 자란 이성계의 성망이 크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요동출병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우군도통사 이성계는 약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 중간의 위화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때는 1388년 5월 작우군도통사는 재차 회군을 상신하였다.

지금 장마철이라 강물이 불어 도강할 수 없어서 위화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기가 오면 앞길에는 큰 내가 많으니 진군이 곤란할 것이 걱정이고 또 서우에 활이 녹아 싸움에 불편하며 군량보급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기술도 매우 서툴렀으며 오직 활에만 능하였다.

활은 중국 것보다 우수하였지만 우중에는 불에 쪼여야 하므로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유일한 무기인 활을 장마철이라 쓸 수 없었으니 야전군의 이와 같은 건의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군중에는 도로가 막혀서 벌써 군량보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출정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도망병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정세를 살핀 남은(南問) 조인옥(趙仁沃) 등은 회군할 것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할 것도 밀모(密謀)하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이성계는 회군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회군의 이유는 공요(攻遼)가 출정시기로 봐서 부적당하여 승산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으나 그 직접 동기는 군량부족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명실록(明實錄)」에 보면 1388년 8월 초에 고려 천호(千戶) 진경래(陳景來)라는 자의 투항과 그가 제공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 즉 회군 이유는 오직 「양식이 모자라서 돌아간다」로 밝혀져 있다.

회군하는 이성계군의 행군 속도는 신속하였다. 그들은 개경 근방에 이르러 왕에게 최영의 파직을 요청하였다. 우왕은 이를 거부하면서 전(前) 밀직부사(密直副使) 진평중(陳平仲)을 보내어 서면으로 제장(諸將)을 논시(論示)하였다. 이서한은 궁지에 몰린 왕이 병력을 거느린 장령들에게 보낸 것인만큼 그 성절 상 내용에 거정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유사에서 왕은 명령에 반하여 회군하였음을 책하고 회군의 이유를 물었다.

「옛 강토의 회복은 조종의 유지(遺志)이니 어찌 쉽사리 내나라의 땅을 남에게 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땅을 지키려 하여 제장에게 의논하였던 바 제장은 모두 옳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어찌하여 전약(前約)을 어기었는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성계의 「사불가론(四不可論)」은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혁명군과 정부군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이다.

우세한 이성계군에 대하여 최영은 노구를 이끌고 분전하였다. 비록 시정인(市井人)으로 급편된 방위군이기는 하였으나 용장의 분투 아래 능히 류만수군(柳曼殊軍)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성계가 친히 지휘하는 부대(部隊)가 저항을 물리치고 선죽교(善竹橋)를 건너자 자남산(子男山) 위에 진을 친 최영장군의 마지막 방어선도 무너졌다.

이성계는 패주(敗走)하는 부대(部隊)를 쫓아 물밀듯 만월대 위의 궁궐안으로 돌입하였다. 최영은 우왕과 눈물로 작별하고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최영 휘하의 심복 장병들은 속속 처형되고 최영은 처음에 고봉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합포(合浦)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대가 이룬 공로(功勞)가 크나 사대(事大)의 예에 어드워 독단으로 공요(攻遼)의 군사를 일으켜 천자에 득죄하고 하마터면 나라를 망칠 뻔하였으니 전공(前攻)이 대명(大明)에 대한 반

역죄를 덮을 수 없다.」 이성계는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그를 참형에 처했다. 이 때 그의 나이 73세(才)였고 형(刑)에 임하여서도 그가 처형되는 날 도성인(都城人)은 일제히 문을 닫고 조의(吊意)와 항의의 뜻을 표하였으며 가동항부(街童巷婦)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렸다 한다.

고독(孤墮)한 인간(人間) 최영(崔瑩)

요동정벌의 목적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을 점령한 다음 환인(桓仁) 일대의 남만주 일부를 장악하고 나당(羅唐)의 고사를 따라 적당한 정치적 해결을 기도해 보자는 것이었다.

비록 그 시기가 전략적으로 부적당한 점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여건은 시기가 불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누구보다 북방정세에 정통한 최영이 무모한 짓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은 장안 사람들의 그에 대한 지극한 애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 말기의 사실에 대한 조선왕조사료는 믿을 수 없는 점이 많다.

즉 회군의 정당성,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려사는 40여년에 걸쳐 몇 번이나 뜯어 고쳐야 했던 것이다.

요동정벌에 반대하고도 회군을 제일 먼저 주장한 남은(南問)이 최영 당시보다 훨씬 요동에 있어서의 명나라의 기반이 확립되었을 태조 6년에 새 왕조 제일의 실력자 정도전과 더불어 요동정벌을 결심하고 그 계획과 준비에 온 정력을 기울인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태조 6년 6월 판(判)의흥삼군주사로서 병권을 쥐고 있던 정도전은 「오진(五陣)도」라는 병서를 올렸던 바 태조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후 훈도관을 두고 전국의 절제사 및 서반(西班牙) 각 품관에게 교습시켰다. 이에 정도전 등은 흥병출경을 건의하고 태조를 움직여 거국적으로 출사 준비에 착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8월에는 진도훈도관이 각 도와 각 진에 파견되었으며 서울 시내에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행하여졌다.

태조 7년 8월에 이르러서는 외방 제진(諸鎭)의 절제사로서 진도(陣圖)를 습련(習練)하지 못한 자를 장벌(杖罰)하는 한편 정도전, 남은은 매일같이 태조를 만나 요동공략을 권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사연을 보면 태조 6년 4월 설장수(契將帥) 등이 가지고 온 명나라의 예부자문에는 정도전의 「화원(禍源)」이란 말이 있었으며 7년 5월에 명나라 황제는 다시 전지(箋之)에 속이는 내용이 있다 하여 전문의 제술 연루자인 정도전의 입조를 요구하였고, 정도전은 병을 핑계삼아 황제의 명에 불응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여 병법훈련에 열중하게 되었다고 「태조실록」에는 적혀 있다.

이미 1393년(태조 2년) 5월 명나라 사신이 가지고 온 명황제의 수소에는 고려 말 때와 다른 없는 협박적인 내용이 보인다.

즉 조선의 사절은 두 절(浙)강민으로부터 소식을 정탐하여, 요동에는 사명을 빙자하여 사람

을 보내어 변장(邊將)을 유인하고 여진인 5백명을 설유하여 도망케 하였다고 힐책하는 한편 장명동사하여 조선에 대해 설분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새 왕조에 들어와서도 고려말기 이래의 복진의 기세를 멈추지 않았고, 명나라의 협박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98년 5월에는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하중량(下仲良)이 상소를 올려 「우리는 사대에 성의를 다하는데 명나라에서는 정탐운운으로 협박하고 있으니 우리는 부당한 명 나라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강경한 태도로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긴장된 대명관계와 요동 공략론은 최영 당시를 방불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회군이 공요를 반대하는 명분론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도전 등이 계획한 요동정벌은 최영의 요동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잘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영은 청렴 강직하기가 비할 데 없었으니 평생 험소하고 누추한 집에서 살았으며 살림은 검소하기 그지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관리(官吏)로서 잘사는 사람은 짐승같이 여겼으며 남의 불의를 보면 깊이 그것을 미워하여 배척하였다.

싸움마당에 나가서는 어떤 싸움에서든 무적의 용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시석(矢石)이 좌우에 날아들어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는 부하에게는 엄준한 무장(武將)이었으나 전진중(戰陣中)에서는 가끔 시(詩)를 짓는 풍류를 잃지 않았다.

언제나 도당(都堂)에 나가서는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찬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홀로 흐느껴 울었다.

그의 철석 같은 심정으로서도 국가를 걱정하는 외로운 고충만은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는 일찍이 “나는 나라 일을 밤새 생각하고 아침에 동료(同僚)들에게 이야기 하면 한 사람도 나와 뜻을 같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인물이 그의 생애(生涯)를 건 요동공략의 웅지(雄志)는 혁명파의 야심으로 좌절되고 나라 위해 평생을 바친 겨레의 스승은 오히려 참형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날의 국민들의 슬픔과 노여움을 우리 무속(巫俗) 속에 연면하게 살아 있으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 최영에 대한 추모는 앞으로도 길이 우리 겨레와 함께 할 것이다.



역사(歷史)의 인물(人物)

거란(契丹)의 침략(侵略)과 양규장군(楊規將軍)

김 건 석(金建錫)
작가(作家)



고려(高麗)와 거란(契丹)의 잦은 충돌

양규(楊規)는 고려 목종(穆宗)때 장군으로서 당시 왕실은 부패되고 내정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거란의 성종(聖宗)이 우리나라를 침범, 그때마다 양규(楊規)는 군인답게 끝까지 거란군(契丹軍)과 싸우다 전사한 용장이다.

이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나라를 방위하겠다는 투지와 용맹은 곧 고려가 남긴 고려군의 상징이었다.

양규(楊規)장군은 애전(艾田)에서 큰 공적을 세우고 전사하였으나 그의 힘이 없었더라면 이때 거란(契丹)군을 미리 파멸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죽은 뒤 왕은 그의 공로에 대하여 공부상서(工部尚書)의 칭호를 주었고 양규장군의 부인 홍씨에게는 종신토록 양곡 1백석과 왕이 손수 적은 교서를 하사하였다.

아들 대춘(帶春)에게는 교서랑의 벼슬을 주었고 이어서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의 호를 내렸다.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고려의 거란(契丹)간의 접촉은 이미 태조(太祖) 왕건(王建) 때부터 비롯한 일이었으나 고려는 중국의 송(宋)나라와 친교를 맺고 송나라의 적인 거란(契丹)에 대해서는 한낱 이를 이적(夷狄)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란(契丹)은 고려를 좋지 않게 생각하였고 자칫하면 옛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북으로 뻗쳐오는 고려의 정책과 동쪽으로 밀고 나가려는 거란(契丹)의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곤 하였다.

그러던 993년(성종(成宗) 12) 윤10월 소손녕의 군사는 압록강을 건너와서 태천(泰川)과 구성(龜城) 사이의 봉산군(蓬山郡)을 치고 고려의 선봉군사 급사(給事) 중(中) 윤서안(尹庶顔) 등을 사로잡아 갔다.

이때 서희(徐熙)가 군사를 이끌고 봉산군으로 달려가자 소손녕은 우리 대요(大遼)가 이미 고

구려의 옛땅을 탈환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가 대요(大遼)의 강역을 침탈하므로 정벌하는 것이」하면서 연거푸 글을 보내 「대요(大遼)는 천하를 통일했다.

그런데도 아직 귀부(歸附)하지 않은 자는 기어이 소탕할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하였고 또 「80만명이 출동했는데 이 대군(大軍)이 강을 건너도 항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빨리 항복하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때 소손녕이 별로 공세를 취하지는 않으면서 것처럼 글로써 공연히 위협하기만 한 것은 그가 거느린 병력이 실제로는 얼마 안 되고 또 고려의 군사력을 상당히 두려워한 때문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서희(徐熙)는 그러한 소손녕의 태도를 보고 돌아와서 성종(成宗)에게 화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아뢰었다.

거란(契丹)의 1차(次) 침입(侵入)

성종(成宗)은 예빈소경(禮賓少卿) 이몽전(李蒙戩)을 거란군 진영에 보내어 이번 침입의 이유를 물게 했다.

그리하여 이몽전이 곧 거란 측에 가서 침입한 까닭을 묻자 소손녕은 「고려에서는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삼가 천벌을 행하는 것이다. 회령을 구하려고 한다면 빨리 항복하라」 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몽전이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자 성종(成宗)은 즉시 어전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했다.

이때 대신들의 의견은 화친을 맺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그중에는 「왕께서는 돌아가시고 중신(重臣)들이 항복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서경 이복의 땅을 내주고 자비령을 경계로 삼자」하는 의견도 나왔다.

광종(光宗) 이래로 문약(文弱)에 기운지 반세기도 채 못되어 고려의 투지는 이미 이렇게까지 쇠퇴했던 것인가, 아니면 거란군(契丹軍)의 규모가 정말 80만 대군(大軍)이었기 때문인가, 앞의 주장은 그저 화친을 맺고 적군을 돌려보내려는 술책이었고, 뒤의 주장은 일찍이 태조가 서경을 중시한 것이나 역대 제왕이 복진정책을 써온 것을 일시에 저버리는 것으로 여처구니없는 소리였다.

여기서 성종(成宗)은 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란(契丹)에 서경 이복을 내주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그러나 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서경의 창미(倉米)만은 적군에게 넘겨주기 아깝다 하여 백성들을 불러 나눠주고 그래도 남은 것은 대동강물에 버리라고 했다.

이때 서희(徐熙)가 「먹을 것이 족하면 성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으며 싸움에도 이길 수 있소, 대체로 이기고 지는 것은 강한가 연약한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아 잘 움직이는데 달린

것이요, 그런데도 곡식을 왜 그냥 버리겠소, 곡식은 백성의 명맥이요 비록 적에게 이용된다 할지라도 강물에 내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맞지 않을 것이요」하고 성종(成宗)에게 간하였다.

그러자 성종(成宗)은 그 말이 옳다 하고 곡식을 강에 버리라고 한 말은 취소했다.

서희(徐熙)는 다시 「거란의 동경(東京)(요양(遼陽))에서 우리 안북부(안주(安州))까지 수백리의 땅은 모두가 여진(女真)이 살던 곳이었으나 광종(光宗)이 그 일부를 빼앗고 가주(嘉州), 송성(松城) 등지에 성을 쌓았소. 지금 거란군(契丹軍)이 온 목적은 바로 그 두 성을 빼앗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들이 고구려의 옛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협박하는 수작일 뿐이요. 지금 그들의 군(軍)세가 대단한 것을 보아도 서경 이복을 내주는 것은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니오. 그들은 삼각산(三角山) 이복이 다 고구려 옛 땅이라고 하여 한없이 요구할 것이니 어찌 그걸 다 들어 주겠소. 하물며 지금 땅을 베어 주면 실로 만세(萬世)의 치욕이 될 것이요. 요컨대 왕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신 뒤에 신(臣)이 한 번 싸워보고 나서 다시 항복을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요」하며 한 번 싸울 것을 주장했고 전민관어사(前民官禦事) 이지백(李知白)도 항복을 반대하였다.

구설(口舌)로서 공(功)세운 서희(徐熙)

거란(契丹) 장수 소손녕은 고려측의 항복을 재촉하기 위해 공세를 취하여 안용진(安戎鎭)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중랑장(中郎將) 대도수(大道秀)가 낭장 유방(庾方)과 함께 적을 물리쳤으므로 소손녕은 다시 진군할 엄두를 못 내고 사자를 보내서 또 항복만을 재촉하였다.

이에 성종(成宗)이 지통사(知通使)로 각문사인(閣門舍人) 장영(張瑩)을 거란 진영에 보냈더니 소손녕은 「대신(大臣)은 우리 진영 앞에 보내오면 대면(對面)하겠다」하므로 성종(成宗)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누가 거란군(契丹軍) 진영에 가서 구설(口舌)로써 적을 돌려세워 만세(萬世)의 공(功)을 세워 보겠는가」 그러나 신하들 가운데서 언뜻 나서려는 자가 없었는데 서희(徐熙)가 나서서 그 어려운 일을 가로 맡았다.

그는 곧 국서(國書)를 받들고 소손녕의 진영에 가서 역자(譯者)를 시켜 상견례(相見禮)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소손녕은 「내가 대조(大朝)의 귀인(貴人)이니 너는 마땅히 뜰에서 절을 해야 한다」라고 군신(君臣)의 관계나 되는 것같이 말하였다.

이에 서희(徐熙)는 머리를 내젓고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는 밑에서 절을 하는 법이지만 두 나라 대신이 서로 만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하여 소손녕과 서희 사이에는 두 세 차례나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다.

그래도 소손녕쪽에서 굽히려 하지 않으므로 서희(徐熙)는 화를 내며 숙소로 돌아가서 누워 버렸다.

그러자 소손녕은 서희(徐熙)를 달리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철회하여 당(堂)에 올라서 상견례(相見禮)를 행하고자 했다.

서희(徐熙)는 그제서야 영문(營門)에 나타나 말에서 내려 소손녕과 함께 분정(分庭)에 들어가서 당에 올라 예를 행하고 동서(東西)로 마주보고 앉았다.

이때에 소손녕이 서희(徐熙)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는 신라땅에서 일어났으며 고구려 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네는 우리 땅을 침식(侵蝕)하고 또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잇달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다 건너편의 송(宋)나라를 섬기고 있어서 오늘의 군사행동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신네가 땅을 갈라 바치고 조빙(朝聘)을 닦으면 무사할 것이다」 했다.

「아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터에 섰으므로 고려라 이름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던 것이다. 만일 땅의 경계를 따진다면 상국(上國) (료(遼))의 동경(東京)(요양(遼陽))도 모두 우리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니 우리가 침식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압록강 안팎의 땅도 우리 영역인데 지금은 여진(女真)이 그곳에 몰래 들어와 살면서 그동안 갖은 완활(頑黠) 변사(變詐)를 다 부리므로 길 다니기가 바다 건너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다. 바꾸어 말하면 그 동안에 조빙이 통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여진(女真)때문이었다. 만약 지금이라도 여진(女真)을 몰아내어 우리의 옛땅을 도로 찾고 그곳에 성보(城堡)를 쌓아 도목을 열 수 있다면 어찌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 장군(將軍)이 만일 이 말을 당신의 나라의 황제에게 아뢰면 황제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시리라 믿는다」

서희(徐熙)의 이러한 대답에 소손녕은 더 이상 강요하려 들지 않고 서희와의 교섭 경과를 자기네 황제에게 알렸다.

거란(契丹)의 성종(聖宗)은 「고려(高麗)가 이미 화(和)를 청했다면 군사를 철수하라」 하였다.

북방(北方) 여러 곳 성(城)쌓아 방비(防備)

거란(契丹)측은 일단 고려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소손녕은 서희(徐熙)의 인격을 존중해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려 했으나 서희는 「우리 나라가 비록 잘못은 없지만 상국에서 이처럼 수고롭게 멀리 오게 하였으니 상하가 모두 황황해서 병기를 손에 쥔 채 들에 서 있는 판인데 어떻게 차마 연악(宴樂)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소손녕은 「두 나라 대신이 만난 터에 어찌 환호(歡好)의 예(禮)가 없겠느냐」 라고 굳이 청해서 서희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주었다.

그리하여 서희(徐熙)가 거란군(契丹軍) 진영(陣營)에 간지 7일 만에야 돌아오는데 소손녕은 그에게 낙타 10마리, 말 1백필, 양 1천두, 금기라환(錦綺羅綉) 5백필을 주었고 성종은 매우 기뻐하며 강가까지 마중하러 나왔다.

이때 서희(徐熙)는 성종에게 소손녕과의 회담 경위를 그대로 보고했거니와 소손녕은 이듬해 2월에 보내온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희와의 협약을 다시 확인하였다.

「선명(宣命)에 비추어 압록강 서리(西里)에 5성(城)을 쌓기로 하여 3월 초에는 성(城) 쌓는 곳에 갈 예정이고 또 수축(修築)을 시킬 예정이요. 바라건대 대왕(大王)(성종(成宗))께서는 미리 지휘하여서 안북부(安北府)로부터 압록강 동쪽까지 2백 80리에 걸친 전지(田地)가 될만한 곳을 살피고 지리(地理)의 원근(遠近)을 헤아리고 또 역부(役夫)들을 보내 성을 쌓게 하는 동시에 이번에 쌓을 성의 수효를 속히 알려 주시오. 이것은 차마(車馬)가 서로 통하게 하여 책근(責覲)의 길을 열어서 길이 우리 조정을 받들게 하기 위함이오……」 이렇게 거란(契丹)은 중원의 송(宋)나라를 대신하여 종주국의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고려는 이때부터 거란(契丹)의 통화(統和)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려 측에서 이상과 같이 조공을 약속하고 거란(契丹)의 연호를 채택한 이유가 실제로 사대(事大)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손녕과 그의 군사를 좋은 말로 철수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그해 4월 거란(契丹)에 시중 박양유(朴良柔)를 보내어 그쪽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도 6월에는 원욱(元郁)을 송(宋)나라에 보내서 거란(契丹)에 보복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송(宋)나라에서는 그때 겨우 북변(北邊)이 평온함을 얻었으므로 함부로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 하여 원욱(元郁)을 그냥 돌려보냈다.

이에 고려는 송(宋)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말았다.

이같이 서희(徐熙)의 능숙한 외교전(外交戰)으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란 것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여진(女真)을 몰아내고 장흥(長興)·귀화(歸化)의 두진(鎭) 및 곽주(郭州)·구주 등지에 성(城)을 쌓았으며 그 이듬해에도 군사를 일으켜 다시 여진(女真)을 몰아내고 안의(安義)·흥화(興化)·선주(宣州)·맹주(猛州)에 성을 더 쌓았다.

따지고 보면 거란(契丹)의 1차 침입은 오히려 고려에서 서북(西北) 일대를 경략하는데 큰 도움을 준 셈이었다.

거란(契丹)의 2차(次) 침입(侵入)

고려는 이같이 서북 일대에 성(城)을 쌓아 방어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으나 성종(成宗)의 다음인 제 7대 목종(穆宗)왕 때에 고려왕실에는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태가 연이어 일어났다.

당시 서북면도순검사(西北面都巡檢使) 강조(康兆)는 어지러운 왕실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개경(開京)에 들어와 목종(穆宗)의 퇴위를 청하여 대량원군(大良院君)을 내세워 왕을 삼으니 이가 곧 현종(顯宗)이다.

이러한 사태를 관망한 거란(契丹)왕 성종(聖宗)은 왕을 폐립한 강조(康兆)의 죄를 묻겠다는 부질없는 내정(內政) 간섭의 구실을 내세워 고려를 침공하였지만 사실은 거란(契丹)의 야망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고려의 세력이 점점 서북(西北)쪽으로 뻗어 나가 마침내 거란(契丹)과 직접 인접하게 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거란(契丹)은 고려의 힘을 빨리 꺾어 놓아야겠다는 속셈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거란(契丹)이 강조(康兆)의 변란을 트집잡았던 것도 첫째로 고려는 앞서 소손녕에게 송(宋) 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약속한 일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미 994년 6월 거란에 보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송(宋)나라에 원병을 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사신의 왕래를 끊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목종(穆宗) 2년 10월에는 다시 이부시강 주인소(朱仁紹)가 송(宋)나라에 가서 황제를 알현하고 「고려에서는 모두들 화풍(華風)(중국풍(中國風))을 사모하고 있으나 거란(契丹)이 이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그 실정을 말하며 고려의 거란(契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돌아왔다.

그것은 여전히 송(宋)나라를 사대(事大)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다.

목종(穆宗) 8년에는 송(宋)나라 온주(溫州) 출신 문사(文士) 주저(周伋)가 건너오자 예빈주부(禮賓注簿)에 임명하여 고려에서 살게 해 주었다.

기록에 나타난 것 만도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송(宋)나라와의 교섭이 그 몇 배 더 많았을 것이니 북(北)쪽의 거란(契丹)이 몰랐을 리 없다.

고려와 송(宋)나라와의 관계는 먼저번에도 거란(契丹)에 자극을 주어 침략의 구실이 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것은 침략의 구실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고려에서는 전부터 여진(女真)을 동(東)·서북(西北) 양면에서 몰아내고 있었는데 현종 초에 상서좌사낭중(尙書左司郎中) 하공진(河拱辰)이 또 그들을 몰아 내려다가 오히려 패배하였다.

이에 원한을 품은 화주방어낭중(和州防禦郎中) 유종(柳宗)이 여진인(女真人) 95명이 조공하려 화주관(和州館)에 온 것을 보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자 여진(女真)이 거란에 가서 강조(康兆)의 정변을 고해 바쳤다는 소식이 들리므로 고려에서는 1010년 5월에 하공진(河拱辰)·유종(柳宗) 2인을 섬으로 귀양보냈으나 당시의 여진(女真)은 강조(康兆)의 정변 외에 다른 일까지 들어서 거란에 고려를 모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40만 대군(大軍)은 압록강 건너고

세째로 거란에서는 먼저 침입때부터 공식적으로 상국(上國)의 행세를 하여 이미 성종(成宗) 15년에 책왕사(冊王使)를 보내온 일이 있고 목종(穆宗) 10년 2월에도 책왕사를 보내온 일이 있다. 그에 의하면 한낱 무신에 불과한 강조(康兆)가 목종(穆宗)을 제멋대로 폐위시키고 새 임금 현

종(顯宗)을 세웠다 함은, 그것은 인륜을 어긴 것이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거란(契丹)의 조치를 뒤엎은 도덕적인 행위라 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1010년 초에 마침내 거란(契丹)에서 군사를 일으켜 강조(康兆)의 죄를 묻는다는 소식이 오더니 그해 7월에는 급사중(給事中)·양병(梁炳), 대장군 나진윤(那津允)이 와서 전왕(前王)을 폐위 시킨 까닭을 물어보고 돌아갔다.

그 뒤 고려는 8, 9월 두 차례에 걸쳐 거란(契丹)에 사람을 보내어 변명하는 등 다시 화해를 구했으나 실패하고 10월에는 결국 거란(契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즉 참지정사(參知政事) 강조(康兆)를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 상장군 안소광(安紹光)을 행영도병마사(行營都兵馬使), 소감부 최현민(崔賢敏)을 좌군병마사(左軍兵馬使), 형부시랑 이방(李昉)을 우군병마사로 각각 임명하여 군사 30만을 이끌고 통주(通州)에 나가게 하였다.

그러자마자 거란에서는 급사중(給事中) 고정(高正), 함문인진사(閤門引進使) 한기(韓杞)가 와서 출병을 고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참지정사 이예균(李禮均), 우복야 왕동현(王同顯)을 거란에 보내 화친을 청하고 그 다음 달인 11월 1일에는 기거량 강주재(姜周載)를 보내서 다시 화친을 청했으나 거란의 성종(聖宗)은 기어이 장군 소응을 보내서 친정(親征)한다는 것을 알리더니 그 달 16일에 의군천병(義軍天兵)이라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오자 먼저 홍화진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이때 홍화진에는 도순검사(都巡檢使) 양규(楊規)가 진사호(鎭使戶) 부낭중(部郎中) 정성(鄭成), 부사 장작주부 이수화(李守和), 판관 늑희령 장현영(張顯嬰) 등과 함께 성(城)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거란(契丹)의 성종(聖宗)은 몇 번이나 공격을 가했지만 번번히 실패에 돌아가고 그때마다 막대한 손실을 입으니 홍화진에 글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다.

「전왕(前王)이 거란(契丹)조정을 섬긴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역신(逆臣), 강조(康兆)가 그 왕을 죽이고 나이 어린 자를 새 임금으로 세웠다고 하므로 짐이 친히 정병(精兵)을 이끌고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가 강조(康兆)를 잡아서 짐의 눈 앞에 데려오면 곧 군사를 돌려 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경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너희 처자를 다 죽일 것이다」 하였다.

화살에 꽃아서 성문으로 날려 보낸 글에도 역시 강조(康兆) 등의 죄인을 토벌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 나머지는 다 살려준다고 하였다.

이에 양규(楊規) 등이 답서를 보내서 이번 침입의 이유를 시인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성종(聖宗)은 곧 금의(鎗衣)·은기(銀器) 등의 답서를 보내며 다시 강조(康兆)를 비난하며 항복을 권하므로 양규(楊規)는 다시 회답을 보내 먼저 철군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규(楊規)의 전략(戰略) 앞에 속수무책

거란(契丹)의 성종(聖宗)은 대군으로 시도한 공격이 양규(楊規) 전략 앞에 거둬 실패로 돌아가지 할 수 없이 홍화진의 포위를 풀고 군사를 둘로 나누어 20만명은 린주의 동쪽 무로대(無老

代)(지금의 의주 지방)에 주둔시키고 그 나머지 20만명을 이끌고 통주(通州)를 내려왔다.

이때 통주(通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조(康兆)는 통주성(通州城) 남쪽으로 나아가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물을 사이에 두고 세 곳에 진(陣)을 쳤다.

즉 일부는 통주 서쪽의 세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진(陣)을 치게 하고 강조(康兆) 자신이 그 속에 자리 잡았으며 일부는 근처의 산에 진을 치게 하고 나머지 일부는 통주성에 붙어 진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는 검차(劍車)라는 것을 벌여 놓았다가 거란병(契丹兵)이 쳐들어오면 그 검차를 중심으로 해서 총 반격을 가하여 번번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강조(康兆)는 곧 적군을 업신여기게 되어 사람들과 바둑을 즐겼다.

그 사이에 거란병(契丹兵)의 선봉야율본노(先鋒耶律盆奴)가 곧 상온 야율적로(耶律敵魯)를 이끌고 통주 서쪽의 고려의 진지를 격파했으므로 그곳 진주(鎭主)가 급히 위급을 고하였다.

그러나 강조(康兆)는 말을 믿지 않고 「입 안의 음식처럼 적군도 적은 것은 좋지 않다. 많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어라」 하더니 얼마 후에 「거란병(契丹兵)이 많이 들어왔다」 고 재차 위급을 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야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알았다」 하였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거란병(契丹兵)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강조(康兆)를 묶어버렸다.

이때 강조(康兆) 외에도 행영도통부사 이현운(李鉉雲), 행영도통판관 노전(盧戩), 감찰어사 노의(盧顛), 양경(楊景), 이성좌(李成佐) 등도 잡혀갔는데 이때 거란(契丹) 성종(聖宗)이 강조(康兆)의 포박을 풀어주면서 「너는 나의 신하가 될 생각은 없느냐」 하니 강조는 선뜻 「내가 본래 고려인인데 어떻게 너의 신하 노릇을 하겠느냐」 하더니 다시 물어보아도 같은 대답만을 했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이현운(李鉉雲)이 거란(契丹) 성종(聖宗)에게 「두 눈이 이미 새 일월(日月)을 보게 되었으니 한 마음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랴」 하고 배신하는 말을 하자 강조는 버럭 화를 내며 이현운을 발길질하고는 「네가 본래 고려인인데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꾸짖어 고려인의 기백을 과시했다.

한편 강조(康兆) 등이 그렇게 잡혀 가서 살해되니 부하들은 크게 혼란을 일으켜 무질서하게 쫓기다가 거란군(契丹軍)이 계속해서 수 십리를 추격하는 통에 3만여명이나 살해되고 내버린 군량·장비 등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가 1010년 12월의 일이다.

야습(夜襲)으로 적(敵) 모두 사살

통주(通州)에서 강조(康兆)를 격파한 거란군은 계속 남하할 기세를 보였으나 전좌우기군장군(前左右奇軍將軍) 김훈(金訓)·김계부(金繼夫)·이원(李元)·신영한(申寧漢)이 완항령(緩項嶺)에 복병을 배치해 놓고 있다가 얼마 안 되는 군사로서 적군을 기습하여 물리쳤다.

이에 거란병은 북(北)으로 다시 물러가서 속임수로 강조(康兆)의 글을 꾸며내어 흥화진으로 보내고 다시 항복을 권하였다.

그러나 도순검사 양규(楊規)는 「나는 우리 왕의 명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강조의 명을 받고 온 것은 아니다」 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거란군(契丹軍)은 다시 통주성(通州城)에 대해서도 항복을 권유해 보았으나 성(城)을 지키는 군사들은 더욱 합심하여 성을 고수하였다.

거란군(契丹軍)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이해 12월에 곽주(郭州)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그곳의 방어사 조성유(趙成裕)는 어둠을 틈타서 도망쳐 버렸고 이 성을 지키던 여러 장수들은 다 목숨을 잃고 결국 성(城)은 함락되었다.

거란군(契丹軍)은 군사 6천여 명을 남겨 두어 곽주(郭州)를 지키게 했는데 양규장군(楊規將軍)이 흥화진(興化鎭)에서 군사 7백여명을 이끌고 또 통주(通州)에서 강조(康兆)의 부하를 1천 명을 수습하여 밤에 곽주(郭州)의 거란군(契丹軍)을 습격해서 거의 다 죽이고 성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구출해서 통주(通州)로 데려갔다.

그 사이에 거란군(契丹軍)의 주력(主力)은 곽주에서 남하하여 청수강(淸水江)(청천강(淸川江))에 이르러 안북(安北) 도호부(都護府)(안주(安州))를 위협하였는데 이곳 도호부사 공부시랑(工部侍郎) 박섬(朴暹)이 먼저 성을 버리고 달아나니 주민(州民)은 일시에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이때 거란군(契丹軍)은 거란인 유경(劉經)을 서경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했으나 듣지 않고 중랑장 지채문(智蔡文)은 군용사(軍容使) 최창(崔昌)과 함께 고관(故官)의 남랑(南廊)에 진을 치고 있었다.

거란(契丹)의 대군(大軍)이 서경에 접근하자, 성 안의 관민이 몹시 동요하므로 지채문이 성(城) 남쪽에 나가서 진을 쳤는데 겨우 대장군 정충절(鄭忠節)만이 따라 나섰다.

이때 갑자기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卓思政)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합세하므로 지채문 등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거란군(契丹軍)은 곧장 서경으로 달려와 성을 에워쌌고 거란(契丹)의 성종(聖宗)은 성 서쪽의 절간에 자리 잡았다.

이때 탁사정(卓思政)이 휘하의 장군 대도수(大道秀)에게 「너는 동문으로 나가고 내가 서문으로 나가서 차례로 협공(挾攻)하면 이기지 못할 리 없다」

하고 곧 어둠을 틈타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항복해 버렸다.

이에 그 부하 장수들도 거의 다 흩어져 달아나고 성(城) 안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통군록사(統軍錄事) 조원(趙元)이 스스로 병마사(兵馬使)로 추대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다시 성(城)을 굳게 지켰다.

서경의 수비군은 비할 수 없는 대군(大軍)에 둘러 싸이면서도 필사적으로 서경을 방위하였으므로 거란군(契丹軍)은 패전을 거듭하였다.

연달아 공격을 가해도 빼앗지 못한 거란(契丹) 성종(聖宗)은 중흥사(中興寺) 탑을 불지르고 근처의 숙주(肅州)를 먼저 공략하고는 곧 서경의 포위를 풀어 더욱 남하를 서두르고 있었다.

양규장군(楊規將軍)의 통쾌한 섬멸전

거란군(契丹軍)의 주력(主力)이 개경으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논의를 거듭한 결과 강감찬장군(姜邯贊將軍)의 의견을 좇아 전라도(全羅道) 나주(羅州)로 환도하기로 하였다.

현종(顯宗)은 그날 밤으로 후비와 신하, 그리고 50여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개경을 떠나 남쪽 전라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경기도 양주에 이르렀을 때 하공진(河拱辰)이 왕 앞에 나타나 대책을 아뢰었다.

「거란(契丹)은 본래 역적을 치러 나온 것이요. 이미 강조(康兆)를 죽였으니 우리가 만약 사신을 보내어 화의를 청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군사를 돌이킬 것입니다」 라는 하공진(河拱辰)의 상주에 따라 왕은 거란(契丹)과의 화친할 것을 결의하고 하공진(河拱辰)을 적진에 보내게 했다.

왕의 중대한 임무를 맡은 하공진이 거란(契丹) 군(軍)의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그 선봉(先鋒)은 아무 대항도 받은 일 없이 일사천리로 개경에 난립하고 말았다.

거란(契丹) 성종(聖宗)이 텅 빈 개경에 들어온 것은 현종(顯宗)이 떠난지 이틀 후인 정월 초하룻날이었다.

잔인한 살해와 약탈이 감행되고 태묘(太廟)와 궁궐은 물론 일반 민가까지도 거의 다 불살라 버리고 귀중한 국재와 보물이 일시에 다 재로 변해 없어졌을 뿐 아니라 태조(太祖) 이래 목종(穆宗)까지 7대에 걸친 주요 사적(事蹟)이 다 없어진 것이다.

이같이 약탈과 방화를 일삼던 거란군(契丹軍)은 개경에 들어오긴 하였으나 원래 명분 없는 침략을 감행하였고, 텅 빈 수도는 불에 타 폐허가 되고 보니 더 이상 현종(顯宗)을 찾아 남하한다는 것은 우선 어려운 문제였다.

뒷 전선에서 항복시키지 못하고 두고 온 고려 군사의 끈덕진 기습작전이 위협을 줌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엄동설한에 그 많은 군사들의 군량 조달도 어려워 지탱 못할 곤경에 빠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돌연히 하공진(河拱辰)이 찾아와서 고려와 거란간(契丹間)의 화친(和親)을 청하는지라 기다렸다는 듯이 하공진의 화친에 응했고, 화군을 약속하였다.

개경에 들어온지 열흘째, 원정군을 끌고 나온지 약 3개월 만에 거란군(契丹軍)은 개경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적이 통과한 전선지방에서 고려의 군사는 철군하는 거란군을 맞아 곳곳에서 통쾌한 섬멸전을 전개하였다.

의주(義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별장 김숙흥(金叔興)은 중랑장 보량(保良)과 더불어 거란군을 요격하여 1만여명을 베어 죽였다.

한편 흥화진(興化鎭)을 근거로 삼고 근방 각지의 거란군(契丹軍)을 소탕하던 양규(楊規)는 의주(義州) 남쪽의 무로대(無老代)에서 거란군을 쳐 2천여 명을 베었고, 적에 사로잡혔던 남녀 3천여 명을 이 작전에서 구출하였다.

부하와 더불어 장렬(壯烈)한 전사(戰死)

양규장군(楊規將軍)은 또 이수(梨樹)에서 싸우다가 석령(石嶺)까지 맹렬히 추격을 가하여 그곳에서 2천 5백여명의 거란군(契丹軍)을 사로잡았고, 남녀 1천여명을 구출하기도 했다.

또 여러참(餘里站)에서도 과감히 싸워 1천여명의 적을 죽이고 사로잡혔던 남녀 2천여 명을 구해 주었다.

이날 즉 정월 22일에는 양규장군(楊規將軍)이 세 번 싸워 세 번 다 이긴 막대한 전과(戰果)를 거두었다.

이에 뒤이어 양규장군(楊規將軍)은 거란군(契丹軍)의 선봉(先鋒)을 애전(艾田)(지금의 맹산 지방)에서 요격하여 적 1천여명을 베고, 계속 거란군(契丹軍) 깊이 들어가 공격을 가했다.

이때 거란(契丹) 성종(聖宗)이 거느린 대병력(大兵力)이 밀어 닥치니 양규장군(楊規將軍)은 수백명의 적(敵)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양규장군(楊規將軍)은 종일토록 역전분투하다가 화살이 떨어지고 부하들도 사기가 떨어져 온갖 힘을 다하여 싸워 보았으나 할 수 없이 그의 부하와 더불어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다.

이같이 막대한 대군(大軍)을 상대로 사력을 다하여 싸운 그의 투혼은 고려 군사의 사기를 높여 주었고 적개심을 최고도로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양규장군(楊規將軍)의 요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거란군(契丹軍)을 향해 고려군은 필살의 공격을 감행하였고 거란군(契丹軍)은 곳곳에서 막심한 손실을 맛 보아야만 했다.

또 때 아닌 큰 비를 만나 군마(軍馬)가 쓰러지고 병기를 잃어버린 채, 압록강을 건너 가는 등 거란군(契丹軍)의 진중에는 큰 혼란을 빚었다.

그때 거란군(契丹軍)의 뒤를 쫓아 최후까지 추격을 늦추지 않던 정성(鄭成)은 양규장군(楊規將軍)의 서전 진사(鎭使)인지라 주장의 원수를 갚고자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거란군(契丹軍)이 반쯤 강을 건널 때에 이르러 크게 공격을 가하니 강물에 빠져 죽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창과 칼과 화살에 맞아 죽는 자 또한 적지 않았다.

이리 하여 압록강을 건너 갈 수 있었던 거란군(契丹軍)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양규장군(楊規將軍)은 거란군(契丹軍)과 싸우다가 중과 부족으로 할 수 없이 장렬하게 전사할 때까지 10여일 간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모두 이겼다.

그동안 무찌른 거란군(契丹軍)의 수효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을 뿐 아니라 적(敵)에게 사로잡혔던 동료를 구한 것 만도 3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 외도 거란군(契丹軍)에게서 군사기지를 빼앗은 것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공(功)은 탁월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서북방(西北方)의 여러 성(城)은 다시 회복되었으나 3개월 가까이 걸친 수많은 격전에서 입은 희생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었다.

특히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꾸준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양규장군(楊規將軍)과 그 부하의 죽음은 거란의 대군(大軍)을 몰아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라의 위기를 건져낸 그 투혼은 바로 고려 무사(武士)의 기백을 표시한 것이고 이 정신은 그 후에도 거듭 닥쳐오는 국난(國難)을 극복하는데 고려인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고려 조정은 양규장군(楊規將軍)의 공적을 높이 포상하여 만인의 귀감으로 삼았다.

〈 충 고 〉

황희 정승의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농부에게서 얻은 교훈이 있다. 황희 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황정승은 그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그래 그 두 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오?」

이렇게 묻는 황정승의 말에 농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황정승은 혹시 농부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해서 더 큰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얼마 뒤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 황정승 옆으로 가까이 다가서더니, 황정승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서,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하지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황정승은 농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그래서야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하여도 잘못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아니오? 그러니 소들이 듣지 못하도록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이오.」

이 말을 듣고 황정승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가 정사를 하는 데도 늘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법률상식(法律常識)

가계수표사범(家計手票事犯)

해설(解設)

편 집 실(編輯室)



이 자료는 공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가계수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시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1. 서언

근래에 당 군 소속 장병들도 가계수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가계수표제도는 간편한 지급수단으로서 편리함이 많은 반면, 부도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계수표 사범을 사전에 근절하여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계수표가 부도 처분된 경우의 형사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유형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 대월한도 초과발행으로 인한 부도 처분

가. 가계수표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당좌대월 약정의 한도액은 금 30만원인 바, 이러한 약정대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이 수표는 부도처리되고, 거래은행은 부정수표단속법 제 7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있음.

나. 이 경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제 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3.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가. 거래은행과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가계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금융기관과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부도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남아 있는 가계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면, 예금잔고에 관계없이 처벌받는 것임.

나. 처벌내용은 전 항과 같음.

4. 가계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가. 가계수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는 것임.

나. 이 때 타인의 가계수표용지를 절취하여 타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면 가계수표 위조죄의 이와 같은 형량 외에 절도죄에 해당하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산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임.

5. 가설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가. 자기의 가계수표용지가거나 타인의 용지가거나를 불문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1항 제 1 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임.

나. 이 때에도 타인의 가계수표용지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면 절도죄의 형이 가산되는 것임.

6. 금융기관에 허위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예컨대 자기가 제대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면서도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실하였다거나 또는 도난당하였다고 거래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나. 이 때에는 거래은행에서 당해수표를 지급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 4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임.

7. 결론

가계수표는 그 부정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당좌수표, 또는 자기앞수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계수표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발이 있는 경우 관련자는 형사입건 되어 군법 회의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가 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장병들은 가계수표의 사용에 있어 약정 당좌대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록 항상 주의하는 한편, 가계수표용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또는 분실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각급 지휘관 등은 장병들의 가계수표 사용에 있어서 무지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교육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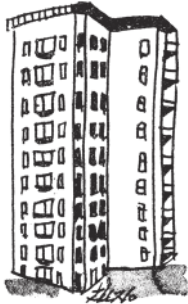
◇ 최초의 언어 ◇

인류학자에 의하면 네안델타인은 인후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현대의 언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고, 그 언어 능력은 원숭이라든가 아기들과 흡사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원전 4만년경의 크로마농인은 효과적인 음성관이 있었다.

1944년 12월 구마니아의 모르스하(河) 유역의 타아탈리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다뉴브문화의 정토 명판(銘版)은 기원전 5000~4000년경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판 위에는 궁시와 문(門) 그리고 빛의 표상이 새겨져 있다.

1970년에는 기원전 3500년의 것이라고 하는 이일람어의 원형을 전하는 문자판이 이란 남동부에서 발견되었다. 미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마샤크에 의하면 파리 교외의 국립고대미술관에 있는 기원전 3만년의 크로마농인의 69개 표시가 된 뼈는 멧대로 그어진 선이 아니고 달의 만삭이라든가 태양이나 달의 주기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화(對話)의 필요성(必要性)



장 재 화
(서기관 : 내무부)

옛날부터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달걀이 먼저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개인이 먼저 있었는가 아니면 사회가 먼저 있었는가」 는 문제도 성립된다. 개인이 먼저 있었다면 그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사회가 먼저 있었다면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된다.

만일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회가 없는 개인이나 이웃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자아를 생각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버려두면 자기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의 본능이기도 하며 또 우리들의 경향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굶주린 이리떼들이 서로 해치며 잡아먹는 것 같은 비참을 되풀이 하겠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끈질긴 자기중심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이 생존에의 본능과 결부되면 이웃과 타인을 불행으로 몰아넣고라도 나는 즐겁게 잘 살고 싶다는 힘의 행패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개인의 생활이나 민족 간의 갈등과 암투를 역사적으로 회상해 본다면 그 때문에 빚어진 비참과 파멸의 기록은 얼마든지 있다. 전쟁을 비롯한 힘의 정복도 같은 내용의 비극이며, 개인간의 질투와 살상도 예로부터 계속되어 왔다. 현재에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켜 가면서 살아온 선배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질투와 싸움이 본능인 것 같아도 사랑과 봉사의 정신도 그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와 사회가 유지되어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와 같이 이기적일 수도 있으나 천사와 같은 선(善)의 실천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어느 편을 택하며 어떤 인생관을 갖는가 함에 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노력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편을 선택하며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직장과 사회가 새로운 방향을 택하게 된다.

우리 사회를 악마의 고장인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양심이 빛나는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생활을 위한 가장 고귀한 뜻과 교훈은 어떤 것인가. 물론 그 대답은 하나로 낙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최초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가」 함에 달려 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 나라에 대해서는 충(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 때도 있으며, 효(孝)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반이라고 가르친 사람도 있다. 법이나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정의의 질서가 무엇보다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덕가나 종교가들은 인(仁), 자비, 사랑 같은 개념을 내세워 인간애의 정신을 강조해 오기도 했다. 정의와 사랑의 질서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자신이 직장과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귀중한 인간관계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또 어떤 덕목(德目)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천적인 방법을 동반하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의 것이 되겠는가. 성서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 고 말했다.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지적했다. 확실히 귀담아들을 교훈이다. 우리들 모두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남에게 향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사회는 하루 동안에 낙원으로 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 밑에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쳤다.

성서의 이야기를 윤리적인 규범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칸트의 주장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것의 하나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이해의 필요성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의 기본적 조건이다. 상호간의 이해의 줄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일체의 사회생활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이해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이해라는 한문자는 이성적으로 풀어진다는 뜻일 것 같다. 이해관계나 권력관계가 아닌 가장 바르고 합리적으로 서로를 알아주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태도일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해라는 말은 언더스탠드(understand)라는 말로 표현한다. 내가 낮으네 선다는 뜻이다. 사람은

높은 곳에 설수록 낮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쉬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이해는 서로의 환경과 생각에 욕망을 바꾸어 가지는 마음의 작용이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며 상대방의 생각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해의 길은 쉽게 트인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최초의 방법이다.

그러면 생각과 뜻을 바꾸어 가지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선의의 대화를 갖는 일이다. 옛날부터 우리는 웅변과 침묵은 얘기해 왔으나 선의의 대화는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대화교육을 장려해 왔고 서독은 히틀러 때 파괴된 사회를 재건하는 정신적 방법으로 대화운동을 활발히 일으켰다. 그리고 대화가 끊어졌던 일본이나 한국에 대화의 장소를 위해 아카데미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우리도 모든 인간관계의 건설적인 개선을 위해 폭넓은 선의의 대화를 상하관계나 횡적 관계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것은 이해를 더해 주며 이해는 객관적 가치와 협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눈

편 집 실(編輯室)



여름 날 파초 앞에 비가 드는 소리처럼 정갈스러운 시원함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

후드득 꾸밈도 없는 투박한 소리, 거기에 밤꽃 냄새 같은 흙냄새가 피어오르면 여름 소나기의 정취는 한결 더한다. 세상 모르고 뜨거움 태양을 마음껏 육화(肉化)시킨 파초의 탐스러운 성장에서 우리는 싱그럽고 풍성한 생명의 신비를 찬탄한다. 그 위에 무심히 내려 닿는 빗방울은 생명들이 주고받는 교감(交感)과 비밀스러운 조화를 느끼게 한다. 생명의 합창, 생명의 고동, 우주의 숨결에 실려 오는 공명의 선율을 듣는다.

어쩌다 산사에 머무는 밤에 소나무, 자작나무 숲 속을 지나는 바람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넓어지고 백지처럼 바래져 간다. 실오라기가 지나는 발자국 같은 가느디 가는 바람소리에 우리 가슴이 가늘게 표백되어 간다. 잡다한 티끌들이 말끔히 가시고 나는 한결 순결해진다. 뜻을 두고 솔바람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무딘 가슴에도 연상(联想)의 파도가인다. 이대로 출렁이다 어느 날 숨이 다하면 말없이 가는 것인가.

어느 날 몸에서 나간 호흡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저 청산에 낙엽지 듯 그 자리로 갈 것인가. 세상에 와 묻은 때가 얼마인가.

그러기에 이토록 짐스러운 보따리를 안고 언덕길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 와진 빛이 얼마이기에 이처럼 죄스럽고 미안한가. 낙엽을 굴리는 바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영혼이 산사의 조용한 밤을 깨어 뒹굴다 새우고 만다. 소낙비와 파초가 엮는 진통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진혼의 음악이라면 산사의 밤에 누어서 듣는 솔바람 소리는 우리의 혼을 관욕(灌浴)시키는 신묘한 법음(法音)에 비기고 싶다.

그보다 더한 선경(仙境)은 풍성하게 첫눈을 맞은 산이다. 천하가 잠든 밤을 몰래 내린 첫눈에 덮인 산은 산이 아니라 그림이요 영혼의 나래를 감싸는 보랏빛. 눈으로 채색된 산은 그대로 자연의 캠퍼스다. 참으로 있는 것은 있음이 없이 있는 것이라면 참그림은 그림이 없이 그려진 그림이 아닐까.

어떤 의도나 계획이나 작위가 끼어들지 않는 그 무위(無為)가 참으로 있는 것의 구도요 모습 이 아닐까. 여기에 어떤 의식이 발동하거나 에고(Ego)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참을 깨뜨려 버린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한다. 생각이 없는 생각이다.

첫째,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다면 세상이 모두 아름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고 싫증나고 괴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기수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탐욕스러운 이기의 숲에 갇혀 나는 순수를 보고 참 모습을 볼 눈을 잃은 것이다. 내 눈은 이미 참 모습을 볼 능력을 잃은 것이다. 그것은 대상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경으로 채색된 내가 만든 내 모습을 대상에 투사하여 내가 꾸민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시력은 내 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내 감수(感受)능력과 수용의 능력은 내가 지닌 예지의 저울대를 넘어설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참을 보려면 내가 참되어야 한다. 어떤 선입견도 어떤 자의식도 참을 가려 버리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불가(佛家)에서는 무아를 가르치며 보는 주체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고 무심(無心)을 가르치며 보는 마음을 따로 갖지 말 것을 말한다. 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마음이 가난해야 참을 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함도 한 가지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마음의 가난은 곧 무사무아다. 어떤 세상의 구더기가 끼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둘째는 꾸미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다. 꾸며서 아름다운 것은 조형미요 우리가 나름대로 설정해 본 불완전한 이상(理想)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격이란 꾸밈없이 사는 삶의 자세다. 주어진 자기 몫의 삶의 배역을 잘 치루어가는 삶의 모델을 인격이라 할 것이다. 꾸미면 생명이 죽는다. 만들면 참 모습이 사라진다. 설명하면 진실을 그르치고 만다. 그래서 선가(禪家)에서는 개구즉착(開口即錯)이라고 하지 않는가. 논리화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참실재와는 거리가 먼 제2의 우상을 만드는 격이 된다.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꾸미지 않는 마음자리를 유지하느냐에 귀착된다. 어떻게 해서 꾸밈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꾸밈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있다. 설경이 아름다운 것은 내리는 눈도 꾸밈 의도가 없었고 받는 나무들도 조작(造作)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든 것은 그래서 죽은 것이다. 조화(造花)는 그래서 생명이 없다.

술발을 흐르는 바람도 바람 그대로 이기에 우리가 자기순화의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비를 맞는 파초가 파초일려는 의도도 소낙비 일러는 자아의식도 없기에 우리의 혼을 빗질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세째, 서둘지 말라는 생각이다. 서두는 것은 조급하다는 말이요 조급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다. 서두는 것은 인위요 욕심이다. 무욕한 사람에게는 자족(自足)의 낙이 따른다. 자족만큼 가득한 만족은 없다. 지혜는 자족을 터득함이 최상의 지혜다. 본질에서 보면 욕심이란 참된 내 생명의 소산이 아니다. 원래 근본 생명은 이미 만족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즉, 구족(具足)의 상

태가 생명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심을 내는 것은 불만의, 부족의 시작을 여는 문이 된다. 서둘러 가면 자기 울동을 잃는다. 분에 맞지 않는 서두름은 조급이요 조급은 생명의 흐름에 이상울동을 가져온다.

그래서 조급은 생명의 파장에 혼선이 오고 그래서 생명은 제자리에 복귀하려는 반동이 일어나고 이 생명의 난기류가 곧 불만이다. 불안은 생명의 리듬에 병을 가져온다. 불안은 생명의 신장(伸張)을 가로막는 암이다. 현대인은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오고 너와 나를 대립시켜 적대관계에 이른다. 생명에는 일정한 울동이 있다. 그 울동의 두 줄기가 기다림과 참음이다. 성숙에는 기다림이 있고 결실에는 참음의 질서가 함께 있다. 이 생명의 질서, 우주의 대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질서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다. 서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은 왜 행복한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인 적정의 자리에 돌아간 탓이다. 조급하지 않으면 왜 행복한가. 우리가 생명의 질서인 참음과 기다림의 두 울동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무위(無為)와 무위(無為)란 말씀이 있다. 무위란 힘이 없이 한다는 말이다. 자국을 남기지 않고 함을 말한다. 조작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함(작위(作為))이다. 그러므로 무위(無為)란 앎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목적을 설정하고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무위가 아니다. 일에 매임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이다. 무위란 곧 질서요, 무위란 가장 완전한 행위다. 완전한 작위다.

우리는 이제 파초의 무위(無為)와 술바람의 적정(寂靜)과 첫눈의 무위에서 몇 개의 삶의 교훈을 얻는다.

먼저 우리는 동화하려고 하지 말자. 동화는 자기의 상실이다. 대인은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말이다. 전체적으로 동화되되 각각의 성품은 오히려 싱싱하게 지켜 전체를 위해 기여하고 같은 듯하나 전체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 두 개의 상반된 경우를 말한다. 꼭지점을 위해 하나이면서 개별 특성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자꾸 남을 추종하고 유행을 쫓는 것은 꼭지점 없는 막연한 집합으로 개성만을 상실한 것이다. 문화의 주류가 전파매체로 주종을 삼고, 기계조작의 기술이 문화의 본령으로 알려, 감각적 만족이 예술의 광장으로 오인하고 있다. 갖가지 정보에 포만하여 인간은 참된 문(門)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삶의 준칙이 타인이 되고 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외재율(外在律)이 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

남이 준 정보에 묶여 참 나의 샘에서 솟는 생명의 정수를 못 마시고 산다. 기존의 Rule에 묶여 포박되어 있다.

소속감을 갖고 동일보조로 단체목적의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성의 상실, 자아의 매몰이어서는 안 된다. 온갖 나무가 어울려 숲과 산을 이루면서도 각각 자기 개성, 자기 생명은 잃지 않는 저 산의 나무를 보라!

또 하나 조작(造作)하지 말자는 말이다. 남의 흉내를 내서 내 모습 아닌 조작 장식의 미술사가 되어 인생을 얼마나 허구 속에 살고 있는가. 개성을 담아야 한다. 자기 냄새가 풍겨야 한다. 자기 모습이 살아 있어야 한다. 자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결코 전체에서의 이탈이 아니다. 본질을 지향하는 각각의 “채널(Channel)”이다. 우주는 다양한 요소의 통일적 집합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하나는 그가 지닌 각각의 기능이 있다. 유행에 동화하는 것은 자기 기능의 포기다. 자기에게 지워진 인생의 직무유기다. 각각의 그것들이 전체의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야 한다. 일미평등이다. 기계에 각종 부속이 고유의 기능을 다하여 전체의 기계가 움직이는 이치와 같다.

조작은 자기가 죽은 것이다. 내 목소리 내 숨씨로 살아야 한다. 선전 전시용, 상업용이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개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구도 같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한 대로 제 것을 만들자.

절대우수의 표준품은 없다. 각각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제품이면 다시 노력하라. 사상도, 언어도 모조품이어서는 안 된다. 원점을 통하는 직선은 무한히 있는 법이다. 밖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 본질의 표현이다. 내가 만든 것, 내가 표현한 것은 내 혼의 표현이어야 한다.

또한 세련을 위해 자기를 마멸시키지 말자. 세련은 오히려 위장이다. 지나친 세련은 자기의 교살이다. 오히려 세련때문에 세상의 비극은 증가된다. 세련은 모방술을 동원한 자기과시다. 자기를 다듬어 모나지 않게 함과 세련은 다르다. 자기의 치기(稚氣)를 떨고 만인 공인의 행동양식, 생활습속이나 문화의 공통 표준을 따르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세련이라는 이름 앞에 인간성이 표백되고 세련이 개성의 평준화를 가져오고 세련이 순수 인간성의 퇴화로 치달고 있음을 안타까워함이다. 세속과 시류에 흠뻑 젖는 것이 세련이어서는 안 된다. 세련은 원숙이어야 한다. 혼의 승화여야 한다. 세련이 저속과 저질화여서는 안 된다. 고고하게 자기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예지가 성숙한 인격으로 몸에 배어 들 때 그것이 세련이 아니겠는가! 세파에 단련되고, 염치가 무디어지고, 감성이 둔화되고, 양심의 촉발이 둔감해지고, 약삭빠른 상업성과 대중적 취향에 마비된 사람, 시속(時俗)에 줄타기를 잘하는 기능사가 세련된 사람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성을 팔고 약삭빠른 이재(利財)의 기술, 권문에 접근하는 기술, 비도덕적 축재의 기술을 세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기의 좁은 골목을 벗어나 참예의 수련을 쌓는 것이 세련이다. 생활의 공동규범을 익혀 소아적 아집을 청산한 것을 세련이라고 보아야 한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 내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깨우친 인격을 세련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끈질긴 에고(Ego)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세련되었다고 해야 한다. 자기로부터 탈피하여 더 큰 나를 본 사람을 세련된 사람이라고 일러야 한다.

첫눈이 만든 저 자연의 숨씨가 참 세련이다. 모방하지 않는 저 파초의 빗소리가 참된 소리임을 들을 줄 아는 가슴이어야 한다. 저 산사의 솔바람 소리에 가슴 저리는 참예의 향수를 지닌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다.

세련이 세상의 흙탕물에 채색된 인격을 말하는 세상이라면 아직도 우리 세대에 구원의 불빛은 요원한 것이다. 세련을 잘못 이해하여 깨끗한 나를 얼마나 때를 묻혀 놓았는가 보자. 전혀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아닌 것들을 구사하여 자기를 탈바꿈시키고 있는가. 잘못 세련의 길을 찾다가 속물이 되고 자기를 상실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세련은 그 속에 살면서도 그 속을 떠나 사는 셋별 같은 인격이다. 숲 속의 백합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살자. 무사평등한 자연의 섭리에 눈을 떠 보자. 좁은 나의 성벽을 뚫자. 자신이라는 성벽, 사상이라는 성벽, 종교라는 성벽, 파당이라는 성벽, 예술이라는 성벽, 권위라는 성벽을 뛰쳐나와 저 창공을 춤추는 첫눈을 쳐다보자. 씻어내자. 아상(我相)의 묵은 때를 씻어내자. 자연은 스승이다. 부처요, 예수요, 노자요, 공자다. 자연이 육신의 옷을 입을 때 바로 성자인 것이다.



■ 건강코너 ■

산성식품(食品)과 알칼리성 식품(食品)

의학(醫學)



김 용 직
(고려대학교수)

「산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질이 극성화되어 건강을 해친다」 또는 「알칼리성 식품은 건강에 좋다」 등의 영양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흔히들 듣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식품을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關心)만을 갖는다는 것은 영양 문제에 대하여 개개인의 개체는 생각지도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만 건강의 초점(焦點)을 맞추어 왔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식품의 산성·알칼리성으로 체액상태(体液狀態)가 어찌될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큰 착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몸 안은 언제나 산·염기(塩基) 평형(平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는 혈액이나 각종 체액은 강알칼리성을 가지게끔 조절(調節)되어 있다.

그래서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면 산증(酸症)이라 하여 호흡곤란(呼吸困難)이 생긴다든지 심(甚)하면 혼수상태(昏睡狀態)가 일어나기도 한다.

반대로 체액이 지나치게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지면 알칼리성이라 하여 진신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기타(其他) 체액의 지나친 PH의 변화는 각종 대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PH라는 뜻은 용액의 산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체액은 약 7.4정도이고 PH가 7보다 크면 알칼리성이라 하며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한다.

생체 내 PH를 조절(調節)하는 물질이 혈액이나 체액 내에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타(其他) 산·폐기능도 조절기관으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糖尿病)을 치료치 않고 방치하였을 때 중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 체내에는 케톤체의 축적이 늘어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산성의 산상(酸狀)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기전(機轉)에 의(依)하여 호흡(呼吸)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알칼리성 으로 되

기도 하며 또는 심(甚)한 구토(嘔吐)가 있을 때도 알칼리성으로 되어 건강을 해치는 수도 있다.

체액 중에는 위액같이 PH가 1.5~2.5 정도의 강한 산성인 것이 있는가 하면 체액(体液) 같이 PH 8.5 정도가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조절(調節)하기 위하여 뇨(尿)의 PH는 보통 PH 4.5~7.5로 비교적 넓은 폭(幅)으로 되어 있어 체액 조절(調節)에 큰 역할(役割)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을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식초(食醋)나 살구같이 산미(酸味)가 강한 것이라고 해서 산성식품은 아니다.

식품의 산성·알칼리성의 판정(判定)은 식품을 300°C~500°C의 고열로 완전 연소시킨 뒤 남게 되는 재(이 중에는 각종 광물질(鈹物質)이 남게 됨)을 물에 용해시켜 그 PH를 측정하여 산·알칼리 성을 구분하고 있다.

즉(卽) 타고 남은 재 속에 있는 광물질(鈹物質) 중에는 용액 내에서 산성이 되는 것도 있고 알칼리성이 되는 것도 있어 어느 것이 많으나에 따라 그 식품의 산성·알칼리성을 결정한다.

예컨대 살구같은 산미(酸味)가 있는 식품 중에는 알칼리성 광물질함량(鈹物質含量)이 높아 알칼리성식품이 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식품에는 각종 과실 야채류(野菜類)가 해당(該當)되며 우유(牛乳) 및 그 제품도 알칼리성 식품에 속한다. 그러나 각종 육류에는 유황(硫黃)이나 산성식품이며 쌀도 인함량(燐含量)이 높아 강한 산성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식품을 우리가 섭취(攝取) 하였을 때 과연(果然) 우리 체액이나 혈액의 산도를 어느 정도 변경(變更)시킬 수가 있을까? 사실은 이들 식품의 섭취(攝取)로 체액의 산도를 변화시켰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실험적으로 쇠고기 1kg을 먹었을 때 체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산과 동량의 약품을 건강한 성인에게 매일(毎日) 투여(投與)한 바 체액의 PH는 7.35 정도로서 정상범위(正常範圍) 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약물 투여(投與)를 중지하면 2~3일(日) 내에 다시 정상치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야채(野菜)나 과실을 전혀 먹지 않아도 체액이 산성으로 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영양소의 균형(均衡)이 깨지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양소의 균형(均衡)이 제대로 잡힌 식사를 할 경우에도 체내에서는 알칼리성 물질의 약 10배 이상의 산성물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은 체내에 존재하는 산(酸)·염기(塩基) 조절기구(調節機構)에 의(依)하여 너끈히 교정(矯正)하고 정상치를 유지(維持)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알칼리성 식품을 다량 먹어야만 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는 산성식품을 먹거나 알칼리성 식품을 먹거나 체내의 산성·알칼리성의 균형조절(均衡調節)은 언제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성식

품을 많이 먹으면 체질이 산성화되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은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정당(正当)한 식생활을 오도(誤導)하기 쉬운 「무서운 미신(迷信)」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기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품의 산성·알칼리성보다도 5가지 종류의 기초(基礎) 식품군(食品群)을 제대로 균형(均衡) 잡히게 잘 먹는 것이 건강유지(健康維持)의 첩경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쩌서 이와 같이 미신(迷信)같은 것이 우리 식생활을 제대로 오도(誤導)하게 되었는가? 돌아켜 보면 식품을 산성·알칼리성으로 문제 삼았던 전례의 역사가 있다.

즉(卽) 19세기전, 그러니까 비타민의 발견이 있기 전 영양소 연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1889년 스위스의 과학자 Bunk 박사(博士)가 육류는 체내에서 완전 산화되면 유황(硫黃)이 남게 되고 이것은 체내에서 산성물질로 변하여 체질을 산성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황(硫黃)이 체내에서 그 일부가 산성물질로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곧 체질을 산성화 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즉(卽) 중화를 위하여 알칼리성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체내에서 중화에 사용되는 물질(완충제(緩衝劑))은 식품으로 섭취(攝取)하여 저장되는 물질이 아니다.

예컨대 산(酸)·염기조절(塩基調節)에 체내에서 크게 작용하는 중탄산사만 하여도 체내에서 각종 유기물질이 산화되어 생기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유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腎)에서 뇨(尿)로 산배설(酸排泄)에 필수물질(必須物質)인 암모니아만 하여도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미노산 대사산물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볼 때 육류소비증대(肉類消費增大)는 식품공급(食品供給)에 큰 문제가 제기(提起)될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국가정책상 육류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오도(誤導)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쌀 위주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육류·지방섭취(脂肪攝取)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결핵환자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와서 영양문제가 건강·장수·정력과 어느 사이에 연결이 되어 갑자기 제대로의 영양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연한 어떤 사실을 과장 표현하거나 그것을 정당화시켜 사람의 약점(弱點)을 이용 선전하고 있다.

산성·알칼리성 식품에 대하여도 인체의 적응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체액을 수도 물로 오인하는 등 잘못된 인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백미는 마치 해식품(害食品)인양 지나치게 말하기도 하고 있으나 5천년

동안 그것에만 의존하여 영양을 유지(維持)한 우리로서는 지나친 오도(誤導)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요즘 영양학의 연구가 전문화되고 많은 영양학전공자가 나오고 있는 반면 아예 영양학의 지식을 제대로 갖춘 바 없는 사람들이 서당 강아지 3년에 풍월을 한다는 식으로 어깨너머 듣거나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간되고 있는 각종 웃지 못할 내용의 서적을 한두 권 읽고 마치 영양학자·식품학자나 된양 전문가를 뺨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라디오, TV, 신문 등에서 소름이 끼칠만큼의 잘못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국민의 영양학 지식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전문가들이 아무리 시정을 촉구하여도 아직 일부에서는 「40대 이후에는 채식(菜食)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느니 「육류나 지방식품(脂肪食品)은 인체를 금세 병자로 만든다」는 등의 말만을 믿는 이들이 많아 웃지 못할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경향(傾向)이다.

그와 같이 역설적인 이론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이나 지방식품(脂肪食品)의 섭취(攝取)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動脈硬化)환자가 구미인(歐美人)에 비하여 적은 수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 갑자기 성인병 예방대책이라하여 난데없이 지방(脂肪)이나 동물성 식품을 먹지도 못하면서 피하려 야단이고 산성식품 섭취(攝取)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혈압원인은 85% 이상이 소금섭취과다에서 기인되는 것이지 결코 동물성 식품이나 지방섭취(脂肪攝取)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소금성분인 Na(소다)는 알칼리성 식품 중에 다량으로 들어 있는 것이고 지나친 알칼리성식품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식품 중의 광물질(鈹物質)이 시험관 내에서와 같이 단순(單純)한 반응을 정시(呈示)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생체내 반응을 너무나 단순(單純)하게 생각한데서 기인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어찌되었던 최근 학설로는 식품의 산성, 알칼리성이 체내 PH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부정(否定)되고 있다는 것이며 식품은 제대로 골고루 섭취만 하면 우리 몸은 잘 적응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비처럼 꿀벌처럼

편 집 실(編輯室)

이 글은 전호명 수필집 꽃밭일기에서 발췌한 글로서 인간의 참된 삶은 박쥐와 개미와 같은 생각은 버리고 꿀벌이나 나비와 같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분류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것이다. 박쥐와 같은 인생, 개미와 같은 인생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인생으로 말이다.

○ 우리들의 생활 주위에 박쥐와 같은 인생이 있다.

빛나는 햇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활동하기를 기피하고 어두운 밤이나 구름, 안개로 뒤덮인 습지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박쥐다.

침침한 동굴 속에서 기분 좋지 않은 눈빛을 번쩍거리며 훤히 나르는 박쥐의 무리들이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몸둥이보다도 더 긴 날개를 펼치고 이리저리로 날고 있다.

맑고 부드러운 대지 위에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동물들과 비교해서는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박쥐는 그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지만 만약에 사람의 생활이 그렇다면 이상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도 그런 부류가 있다.

거짓이 없는 흠과 더불어 자연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어느 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처박혀 있다가 캄캄한 밤이 되어야만 활동의 무대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도둑의 무리가 그것이고 사기꾼이나 날치기의 무리도 마찬가지다. 노력의 보람도 아닌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힘들여 모아 놓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쉽게 가지려는 나쁜 사람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가는 도둑들이다. 사람 해(害)치기를 예사로 하는 살인자(殺人者)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필요(必要)가 없다. 없을수록 사회가 안정이 되고 생활에 불편이 줄어든다. 정말로 박쥐와 같은 무리들이다.

○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아주 작은 몸집을 가진 개미가 여름 날 무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자기의 몸보다도 훨씬 더 큰 물체를 굴리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부지런한 그들로 하여금 게으른 우리들의 일상이 부끄러워진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무리가 모여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그들의 목적지까지 옮겨 가고 있다. 어느 동물보다도 협동심이 강하고 부지런하다.

이웃이나 친구가 잘되면 배알이 뒤틀려서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비교해 볼 때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나 개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기 위한 작업 뿐이다.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강한 개미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자신들만 챙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개미가 없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없고 개미가 있다고 잘 될 일도 없다.

우리들과 더불어 사는 데도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자신 만을 부지런히 챙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다. 남이야 죽던 말던 이웃이야 살던 말던 내 하나 만을 위해 꾀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근면(勤勉)이라는 조건으로는 본받을 만 하지만 다른 이유로서는 소외시키기 쉽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부류에 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인류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필요(必要)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먹을 것이나 찾고 자기 한 몸 챙기는 것이 고작이래서야 되겠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보람스럽다.

○ 그리고 꿀벌과 나비가 있다.

나비는 꽃피는 강산을 이리저리 날아가며 춤을 춘다. 그 모습이 보기에도 좋다. 하얀 날개를 팔락거리며 꽃밭에 날아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 아름다운 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생활이 부드러워지기도 한다.

나비는 꽃과 꿀을 넘나들면서 꽃가루를 문힘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는 일도 한다. 하나님이지으신 자연의 섭리(攝理)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보람된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무성한 식물이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번식이 되지 않는다. 식물의 번식이 없이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먹고 살 양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양식이 되는 일을 즐기만 하는 것 같은 나비가 하는 것이다. 꽃가루를 옮김으로써 씨방이 결실을 갖게 된다.

꿀벌은 나비와 똑 같은 일을 하고 꿀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꿀은 달고 맛이 있다.

사람이 먹으면 좋은 양식이 되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 나비와 꿀벌은 인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는 하지를 않는다. 좋은 일, 보람된 일만 한다.

내 주위에는 나비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남을 해롭게 하는 박쥐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 한 몸만 챙기는 개미와 같은 사람도 아니다. 이웃이나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이들이다.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해 나가고 돕고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꽃의 향기보다 진한 인격의 향기를 내어 뿜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비처럼 꿀벌처럼 산다면 싸움이 필요 없고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실상으로 옮겨졌을 때 다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理想)이 아니겠는가!

못마땅해서 토닥거리기 보다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보다는, 더러는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나비처럼 살자, 꿀벌처럼 살자,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너와 난데 이해하면서 살자, 부드럽게 살자.

명언(名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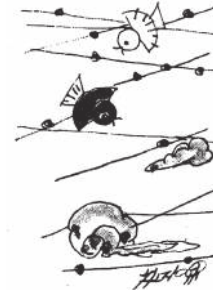
덕(德)이 있는 사람은 말도 또한 훌륭하지만, 말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덕이 있지는 않다. 인(仁)한 사람은 용기가 있지만, 용기(勇氣)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인(仁)한 것은 아니다.

유덕자필유언(有德者必有言) 유제불필유덕(有諸不必有德) 인자필유용(仁者必有勇) 용자불필유인(勇者不必有仁)

- 공자(孔子) -

잊혀지지 않는 추억(追憶)

권광주
(사무관 : 문교부)



동네 개구장이 하나가 솜사탕을 소중한 듯 높이 치켜들고 골목길로 들어서고 부러워하는 표정의 조무래기 멧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혹 불면 푸른 하늘을 향해 한없이 마냥 떠올라 어디론가 사라질 솜사탕의 빛은 그지없이 희고 밝다.

이 솜사탕을 보자 망각 속에 까맣게 묻혔던 차돌할머니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작달막한 키에 허리가 꼬부라져 몸은 아주 왜소하게 보였다. 흰머리는 때묻은 헌실 같이 윤택을 잃고 있었지만 노인답지 않은 활력(活力)이 있었다. 주름살로 뒤덮인 쪼그라진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기 분수를 안 지족(知足)의 생활이라고 할까, 대천명(待天命)의 철학을 투철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체념(諦念) 속에 자신을 안정시키고 있는 철인(哲人) 같기도 했다. 수중다리에 천식으로 병들어 활동이 부자유한 아들 그리고 귀먹은 며느리와 큰손자 차돌이와 바우 두 손자의 뒷바라지며 우리 집 일을 돌봐 주기에 실 틈 없이 바빴다. 아무 것도 잘 할 줄 모르는 귀먹은 며느리가 손자들을 보게 해 준 것만이 고마운 일이고 대견한 일이라고 며느리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노인에게 베풀 일이겠지만 짜증을 내거나 골 내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지금 생각해봐도 차돌할머니의 쑥 들어간 눈은 선의(善意)와 인자(仁慈)로 빛나고 있었고, 직심(直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심스러운 몸가짐, 입가에 언제나 피어 있는 조용한 미소. 이것은 타고난 천품도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가다듬은 결정(結晶)에 틀림없다고 생각되며 차돌할머니는 수도자(修道者)였던 것만 같다.

우리 집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며 일들을 보살펴 주었지만 차돌할머니가 가장 신망(信望)이 두터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도 이 차돌할머니가 무척 좋았다. 어른에게 종아리를 맞을 때 내

대신 용서를 비는 이는 으레 차돌할머니가 도맡았다. 그래서 무서운 회초리를 면하곤 했었다.

남 대신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차돌할머니의 핏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것 같다.

차돌할머니의 간절한 평생소원은 서울구경이었다.

당시 우리 집은 서울에서 출근 살아오다가 나의 증조부(曾祖父)가 경기도 양평으로 낙향해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차돌할머니는 서울의 대궐의 크기, 전차나 기차에 대한 호기심이며 전기 불에 대한 궁금증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다 어느 해 서울 외가로 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되어 차돌할머니의 간절하고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졌다.

자동차를 처음 타보는 차돌할머니의 표정은 민족과 의아함으로 어려 있었다. 이윽고 차가 움직이자 차돌할머니는 앞소매로 눈을 닦았다. 또 아들 생각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머칠이 지났다.

나는 차돌이와 함께 정거장으로 마중을 나가게 되었다.

차에서 내리는 차돌할머니의 얼굴에는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안도와 반가움이 뒤섞인 착실한 눈물이었다.

차돌할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에게 다가와서 젓가락 같은 대(죽(竹)) 두 개를 손에 꼭 쥐어 주었다.

나는 차돌할머니와 차돌이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대 두 개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가를 궁리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 온 집안은 웃음바다가 되어 버렸다.

차돌할머니가 서울 갔던 선물로 솜사탕을 두개 샀다는 것이다. 솜사탕은 녹는 것이니 사지 말라고 말렸으나 막무가내더라는 것이다. 솜이 녹다니 될 말이나고 하며 시골의 목화솜을 생각한 모양이었다. 솜사탕은 오는 도중 졸아들고 녹아 없어져 대만 남고 말았지만 그 대를 버리지 않고 내 손에 쥐어 주기까지 한 것이다.

가족들은 차돌할머니의 직심(直心)이 낳게 한 이런 일을 웃을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나는 그 솜사탕의 대가 소중스러워 그것을 필통 속에 연필과 나란히 넣고 다녔다.

세월은 흘렀다.

그때와는 모든 것이 아주 변모해버린 오늘 차돌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다시 서울을 보여드리고 뒤늦게야 깨달아 보는 어리석음이 없는 인생(人生)을 살아가고 싶다.

회한(悔恨)의 누적(累積)없이 살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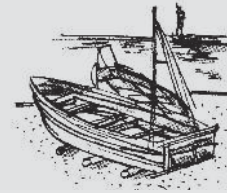
그리고 가식(假飾)없는 직심(直心)의 흐뭇한 이웃 속에 끼어 살았으면...

차돌할머니가 다시 보고만 싶다.

시(詩)

기 도(祈禱)

박 재 삼(朴在森)
〈시 인(詩人)〉



밤, 고요한 밤, 그 속에서
 흰 사물(事物), 붉은 알록달록한 사물들이
 뒤엉켜 하나의 정적으로 고양(高揚)됩니다.
 당신이 얻고 당신이 거두어 들이는 많은 것에
 나를 부디 인도해주소서.
 내 가슴은 아직도 너무 심하게 빛과 함께 노는 것일까요?
 대관절 내 얼굴은
 대상인 사물로부터 언제나 꺼림칙하게 여겨질 것인가요?
 내 손을 보고 판단해 주소서.
 저기 있는 연장이나 물건처럼 내 손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손에 끼인 반지까지도 소박하지 않으며
 빛은 믿음을 가득 담고 내 손 위에
 마치 어둠 속에서 처럼 빛을
 발하며 갈라지는 길과도 같이
 내려쬐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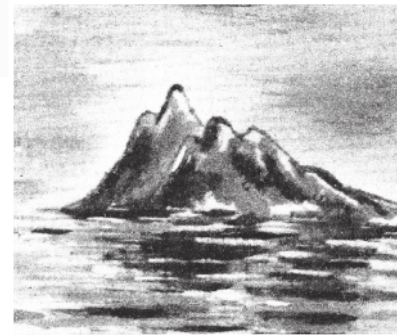
한해가 저물며

편 집 실(編輯室)



한해가 저물며 깊은 마음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속으로 침잠한 자에게
 조망(眺望)은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새로운 조망(眺望)이 파괴되지 않은 채—
 아무도 그대의 운명을 점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이 잘 되어갈 것인지, 어떤지를 묻지 않는다—
 상처의 가장자리 장미의 둘레—
 때늦은 여름의 광활한 조망(眺望).
 그대를 풀었다가 그대를 비껴어 매네
 그대를 감싸주고 그대를 벌거벗기네—
 장미의 둘레, 상처의 가장자리
 스스로 풀어져 나가는 마지막 조망(眺望).

석 양(夕陽)

김 영 희
〈소설가〉

가볍게 두 개의 글라스가 부딪쳤다.
 「정말 오랜 만에 만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5백 70톤급 원양어선, 양산 103호의 제 1항해사 최달수가 미소를 지은 채 엷은 호박색의 액체가 찰랑거리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적도의 태양을 위로하고 선장 김용선은 브리지의 창에 기댄 채 목줄기를 타고 흘러 들어가는 위스키의 기분 좋은 자극을 즐겼다. 나른한 햇살이 목덜미로 내려앉아 한층 목이 굵어 보이는 김선장은 글라스를 내려 놓고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번쩍이는 금줄의 소매며 건장이 달린 산뜻한 흰 제복이 이 초로의 역세고 호탕한 전형적인 뱃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삐이—

금속성의 인터폰 소리가 햇빛을 부수며 울렸다.

「뭔가?」

「통신실 윤기삼입니다. 지금 곧 라디오를 틀어 보십시오. 태풍 정보입니다.」

「음, 알았네.」

모처럼 맞은 만선의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김 선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라디오를 틀자 감정이 배제된 듯한 아일랜드식 악센트가 강하게 섞인 영어가 흘러나왔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9일 오전 8시 현재, 태풍 마리호가 북위 153도, 동경 13도 해상에서 발생, 뚜렷한 진로를 나타내지 않은 채 거의 정체상태에 있으나, 중심기압 9백 30mb에 최대 풍속 초속 50m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근해에 있는 선박들은 급히 대피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 오전 8시 현재……」

김 선장은 무거운 어조로 현위치를 물었다.

최달수는 해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지금 우리 위치는 바로 이 지점, 북위 1백 72도 3분 동경 05도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떨까, …… 그물을 건지 않아도 될까?」

「글쎄요, ……아직은 안심이긴 하지만, 정체상태에 있는 태풍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
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물을 건고, 다음 기착지인 서사모아의 아피아로 가는 것이 좋겠군요.」

「으음 → 그렇다면 할 수 없군. 만선을 포기하는 수 밖에. 108호와 연락해서 그물을 건으로
고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산 103호와 양산 108호를 트롤식으로 연결해 쳐 놓았던 그물이 건어 올려졌다.

정오쯤,

윤 기사의 보고로는 태풍은 북서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개시했다는 것이었다. 보고를 받고 난
김 선장은 만약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최단거리의 나우루섬으로 가서 태
풍이 멈출 때까지 며칠이고 휴식이나 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14시 20분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잠시 흔들리더니 기관이 멈추었다.

「기관장 박명호입니다. 기관이 파열됐습니다. 과열로 인한 것 같습니다.」

김 선장은 낭패한 표정이 되었다.

「이거 큰일 났구만, 언제쯤이나 정상 가동되는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대여섯 시간은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예비기관을 모두 가동시키고, 최선을 다해 빨리 수리하십시오! 태풍이 다가오고 있
나……」

「죄송합니다. 선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력이 시속 30노트에서 8노트로 푹 떨어져 버렸다.

「할 수 없다. 108호를 먼저 아피아로 보내고 우리는 나우루 섬으로 향한다!」

비록 기관은 고장이지만 상황은 그다지 절박하지는 않았다.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루쯤은
지나야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설 것이고, 그 때면 이미 기관을 수리해서 약 4백여 km 밖에
떨어져 있지 있는 나우루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배는 헐떡이듯 그렇그렇 소리를 내며 나우루를 향하여 둔중한 용체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
었다.

16시. 불운한 뉴스였다.

태풍은 급작스레 배쪽 방향으로 진로를 돌려 시속 15km의 속도로 초특급 위력을 가지고 밀
려들고 있으며, 중심기압이 955mb를 넘어서고 최대풍속 55m로 점점 더 상승하는 추세라는

뉴스였다.

물결이 눈에 띄게 거세져 갔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회돌이치고 있었다. 서서히 태풍의 영향
권에 접어들고 있음이 분명했다.

김 선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6시 30분.

「기관실! 어떻게 됐나?」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두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박 기관장의 소금기 배인 마른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이미 태풍은 우리 쪽을 향했다. 기관이 살아나지 못하면 끝이야.」

하늘은 온통 흉물스런 먹구름으로 뒤덮여지고, 광란의 태풍이 불기 위해 울리는 전주곡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불굴의 투지를 지닌 김 선장도 보조엔진만으로 털털거리는 이 상황에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조금만 심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녀며 배의 상태를 점검했다. 태풍이 진로를 다시 바꿔 주
기를 기다리며 ……

18시. 윤 기사의 보고는 그들을 무거운 긴장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1천 50mb를 넘어섰고 시속 70km의 맹렬한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
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라면 해안의 빌딩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지닌
것이다.

비바람과 파도는 더욱 드세어져 선장은 갑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혹이라도 사람을 날려버
리는 바람과 이미 갑판 위로 떨어지는 파도에 휩쓸려 갈까 해서였다. 이젠 기관이 살아난다 해
도 태풍의 세력권 내에서 쉽게 빠져 나오기란 불가능했다. 최 달수는 윤 기사에게 S. O. S타전을
치라고 명령하는 순간, 언젠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느꼈
다. 그것이 무엇일까……. 확연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저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허우
적거리며 빠져나와 의식의 세계로 용기하려 하고 있었다.

21시 30분이 가까워져야 기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배에서는 환호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상
황은 급박해져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그 술한 고난을 치워왔던 우리가 아닌가. 삼각파도
에나 걸리지 않는다면…….

주엔진과 보조엔진을 모두 가동시킨 양산 103호는 여태껏 내본 적이 없을 정도의 속력으로
칼날처럼 희뻑이며 덮쳐오는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기 시작했다.

최달수는 아까 타전한 S. O. S가 무효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선장을 올려봤다.

그의 얼굴은 늠름하고 씩씩한 역전의 용사처럼 투지와 생기를 되찾았으며 뒤늦게 조리장이
가져다 준 햄버거를 씹으며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최달수는 깊은 감명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태풍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순간순간 두려운 긴장의 시간이 흘러갔다.

30일 새벽 02시.

전 선원에게 구명대를 차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파도는 이미 배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으며 배전을 강타했으며 그럴 때마다 양산 103호는 시계추 마냥 기우뚱거렸다. 노련한 김 선장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솜씨로 파도를 피해가며 배를 몰았으나, 모두들 기력과 전의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배가 갑자기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최달수는 현기증을 느꼈다.

<걸렸다. 드디어 삼각파도에 덜미를 잡혔다.>

배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바다에 다시 내동댕이쳐졌다. 양산 103호 총 53명의 선원들은 아우성을 쳐대며 깊은 공포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다. 최달수는 그 때 묘하게도 편하고 여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 다시 배가 두 개의 거대한 물기둥에 의해 솟구쳤다. 선체 중심부, 기관실에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전원! 배를 버리고 탈출하라!, 탈출하라!」

브리지의 창유리가 깨지며 파도가 밀려들어와 선장의 몸을 때렸다. 혼란 속에 뛰쳐나온 선원들이 수십 만 톤의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시커먼 바다로 사라졌다.

최달수가 갑판으로 나왔을 때 배는 비스듬히 누운 채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구명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툭날 같은 아가리를 벌린 거대한 파도 앞에 열 몇 명이 타고 있던 구명정은 바람에 종이조각처럼 날아가 버렸다.

두 번째 구명정이 로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내려졌다. 최달수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구명정으로 헤엄쳐 갔다.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가까스로 구명정에 올라탔을 때 김 선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는 귀기 서린 모습으로 구명정을 묶어 둔 로프를 도끼로 찍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배의 중심부에서 오렌지빛 섞인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폭발했다.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들이 울부짖으며 기를 쓰는 모습이 보였다.

파도가 허연 이를 드러내고 처참한 물골의 양산 103호를 집어 삼켰다. 팻발서린 눈동자로 모두들 자신들의 무력함을 원망하며 묵묵히 노를 저어가는 동안, 검푸른 물결위로 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빨간 구명자켓의 김 선장이 보였다. 최달수와 동료들이 그를 간신히 건져올렸지만 그의 머리는 심하게 부서졌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파도가 구명정을 들어올려 구명정은 수직이 되다시피 곧추섰다가 핑그르 돌며 곧두박질쳤다. 몇 사람의 선원이 노를 놓치고 시커먼 바다로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이 보였다.

정신차릴 여유도 없이 또 한 차례 거대한 파도가 흰 이를 드러내고 덮쳐 왔다. 최달수는 시꺼먼 물벽을 쳐다보는 순간 몸을 내려치는 수백 톤의 수압을 느끼며 의식이 떨어져 갔다. 진공의

세계로 몰입되는 느낌이었다.

세상의 마지막 자락이 이차원의 세계처럼 보여지는 그의 귀에는 무수한 총성과 폭음이 32년간의 시공을 초월하여 들려왔다.

아 — 최달수는 짧게 신음했다. 가려진 무의식의 세계가 화산의 폭발처럼 튀어 오르고 있었다.

「집합! 3소대는 전원 집합하라!」

3소대장 이근철 소위는 굳은 표정으로 피곤에 지친 행한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소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겨우 스물두 명의 병력으로 무자비한 적 탱크를 막으라니…… 더구나 그 중에 넷은 이제 갓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아닌단 말이다…… 하지만 로케트포 2문에 57mm 대전차포가 1문 있으니 화력은 막강하다. 어쩌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명령이 하달되었다! 복귀군 64사단 8연대 병력 8백여명이, 놈들이 점유하고 있는 783고지에서 현재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564고지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다. 놈들은 일곱 대 정도의 탱크를 앞세우고 17번 도로를 따라 이동 중인데, 우리 소대의 임무는 바로 적 탱크를 저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564고지를 사수함과 동시에 승세를 잡아 783고지를 탈취하라는 것이 사단사령부의 지시다. 다행히 17번 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놈들을 박살내든 날아가게 하든, 그건 자유다. 단 놈들보다 우리가 먼저 쓰러져서는 안 된다. 지금 시각 17시 20분.

놈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앞으로 세 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우리는 녀석들을 마중나가 매복해 있다가 수류탄으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연다. 구체적인 작전지시는 매복지역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상……. 뭐 질문있나?」

「시간이 급박하다……. 자, 출발!」

그들은 일어섰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명령은 기필코 이행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에 그들은 떠나가고 있었다.

산등성이 위 구름사이로 저물어가는 태양의 햇살이 금실처럼 뻗어 나가 황홀하게 빛났다. 노을은 크리스탈 주황빛과 바이올렛 빛이 뒤섞여 환호의 갈채처럼 그들의 모습 위에 질게 드리워가고 있었다.

핏빛처럼 붉은 달이 새벽바람에 쫓겨 날아가고 있었다.

10인승의 구명정 A3호는 단 세명의 선원만을 태운 채 은빛 껍질을 나선처럼 드러내고, 허공의 빈 구석을 찾아 흩어지는 바람따라 부유하고 있었다.

최달수는 배 안을 둘러보았다. 표류 사흘째, 남은 물이 약 2갈론, 비스킷 2봉, 전쌀이 반 되 가량, 그리고 빨간 구명자켓 한 개가 그들이 구조될 때까지 견디어야 할 모든 것이었다.

어둠이 차차 견혀가며 뿌옇스름한 새벽의 여명이 밀려 들었다.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었으며 구조에의 희망이기도 했다. 최 달수의 무릎 아래 의식 불명의 김 선장이 셔츠를 찢어 만든 봉대

를 머리에 감고, 거무죽죽하게 피가 말라붙은 몸으로 경련을 계속 하고 있었다.

실습항사 선우경은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로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사흘? 나흘?」

「글쎄, 남은 것을 아껴 먹으면 1주일간은 버틸 수 있을 걸세.」

「그 이후에는 어떡하죠?」

「배를 버리기 전 구조신호를 보냈으니 지금쯤 우리를 찾고 있을 게다.

또 108호도 우리 사정을 잘 알 테니까 그전에 구조되겠지.」

최달수는 말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우선 지금의 위치를 알 수 없었으니까.

태풍에 얼마나 밀려 나왔을까.

또 위치를 알 수 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 자루의 노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찌 할 수 있단 말인가.

산뜻한 청량감을 안겨주던 태양이 고도를 더해감에 따라 점점 고통으로 변해 갔다. 서리처럼 내린 머리칼을, 셔츠를 찢어 만든 봉대 밑으로 드리운 채 창백한 물골로 누워 있던 김 선장은 이제 더 이상 경련하지 않았다.

배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고 있던 선우경은 자조적인 패배가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신음처럼 내뱉 듯 말했다.

「그렇게 용감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인생이란 무의미하군요. 흐흐흐... 우습고 씁스름하기 짝이 없군요.....」

최달수는 김 선장의 두툼한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누런 반지를 빼내며 선우경을 돌아 보았다.

「무의미한 인생이라? 우습고 씁스름한가?」

선우경은 문득 6개월 전 부산 해운 연수교육장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외항면허증을 손에 넣고 기뻐하던 일이 스쳤다. 「그렇게 원했던 바다였는데.....」

「이제 우리 둘 뿐이군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달수는 대답 대신 김선장의 시신을 안아 올렸다.

「전원 전투대기하라!.....」

취색의 어둠 속에서 이 소위는 주위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좌측에 보이는 낮은 구릉 사이 17번 도로로 적 탱크가 돌아 다리를 건너갈 때 일제히 공격한다. 1분대는 57밀리 대전차포로 제 1번 탱크와 4번 탱크를, 2분대는 로켓으로 2번과 5번, 3분대는 3번과 6번 탱크를 각각 맡는다.」

「남은 7번 탱크는 모두 함세하여 파괴하고, 명중이 되지 않았거나 명중되었더라도 움직이는 탱크는 가능한 한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까 넣는다. 나와 1분대는 여기서, 2분대는 우측에 보이는 나무 밑 옆 바위에, 3분대는 구릉위에서 대기하라. 특히 3분대는 탱크 공격이 끝나는 즉시 적 보병들을 집중 사격한다. 일단 탱크가 파괴되면 각자 요령껏 탈출하여 저 산등성이 너머로 집합

한다. 질문사항 있나?」

「.....」

「좋아, 절대 기도비닉에 유의하고 각 공격조는 분대장이 재편성하도록. 자, 그럼 살아서 다시 만나기를 빌겠다.」

「소대장님, 조심하십시오. 살아남기만 하면 일계급 특진은 맡아 놓은 겁니다.」

1분대장이 혈관 속으로 퍼져가는 흥분속에서 멧쩍게 웃어 보였다.

「알았다. 각자 조심해라. 그러나 우리가 훈장이나 일계급 특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좋다.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만나자. 자 원위치로!」 지리하고 녹녹한 공기가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최달수는 들쭉날쭉 씹으며 탱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름한 내음이 정액처럼 화사하게 가슴에 시려왔다. 모두가 허황했다. 인생도, 이데올로기도, 꿈도, 이상도,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스운 허상일 뿐이었다.

M1 소총 한 자루와 몇 발의 수류탄에 목숨을 걸고 흠뻑을 뒤집어쓰고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체험인양 멀게만 느껴졌다.

다만 그는 뼈를 흐물거리게 하는 육체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었다. 헤어진 군화 사이로 돌멩이가 들어가 걸을 때 마다 불편함이 그랬고, 동공을 피로 물들이는 듯한 졸음과 위장을 찢어내는 듯한 배고픔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그는 곧 자신에 대한 타인으로 돌아왔다. 전쟁의 포연으로 말미암아 순수했던 감수성이 현실에의 괴리감과 반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스물 두 살의 찬란한 젊음.

19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최달수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내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놈들이 나타날 것이다. 한 방씩 한 방씩 멧지게 먹여 주리라.

녹진녹진한 바람을 타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탱크의 소음이 들려왔다.

「로켓포로 장전하라!」

최달수는 짧게 소리쳤다.

입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 담배, 담배.

17번 도로를 따라 너댓 명으로 보이는 적의 침병대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으흐흐..... 이 놈들을 그냥.....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너희가 아니다.)

탱크의 라이트가 보였다.

하나, 둘, 셋..... 모두 여덟 대의 탱크가 육중한 몸체를 험뻑이며 천천히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다. 적 보병들의 시꺼먼 군상들이 불빛에 어른거렸다.

최달수는 전신을 휩싸는 흥분과 긴장감에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다.

「로켓트 발사준비!」
 (그래, 오너라. 맛을 보여 주마……)
 첫 번째 탱크가 다리 중간쯤 건너왔을 때 총성이 울렸다. 공격개시 신호였다.
 「발사!」
 어둠속에서 오렌지 불꽃이 피어올랐다.
 「콧— 콧— 콧양—」
 모두 명중이다. 요란스레 총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터져 나왔다.
 새끼들. 가슴에 놀라 아무데나 쏘아대는 것이 틀림없다.
 「침착해라! 2탄 발사준비! 빨리 해라! 우리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
 「콧— 양!」
 다른 분대에서도 연이어 2탄을 발사했다. 탱크가 화염 속에서 버둥거렸다.
 「뛰어라!」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최달수는 경험과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파괴된 줄 알았던 1번 전차가 그렇그렁 소리를 내며 포탑을 돌리며 진전하는 것이 보였다.
 (제기랄, 어둠 때문에 제대로 맞지 않은 모양이군. 하지만 또 간다.)
 그는 단숨에 탱크에 뛰어올라 해치를 열어 제졌다. 놀란 승무원의 눈동자가 눈에 들어왔다.
 「먹어라, 개새끼들아!」
 획 수류탄을 던져 넣고는 해치를 닫으며 뛰어내렸다.
 「평—」
 둔탁한 굉음이 들려왔다.
 탱크는 기우뚱하더니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하나………)
 우왕좌왕하는 군상들을 향해 뛰어가며 최달수는 사격을 해댔다.
 그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4번 탱크에 올라 타 있는 이 소위의 땀에 번들거리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해치를 열려고 했으나 문이 잠긴 모양이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어디선가 수류탄이 날아 들어 탱크 위에 떨어졌다. 철모가 폭발음과 함께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4번 탱크는 포신을 천천히 돌려 3분대가 매복해 있는 구릉쪽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바위가 튀어오르며 보라빛 섞인 핏빛 불기둥이 솟구쳤다.
 최달수는 엎드린 채로 기어가 수류탄을 캐터필러 밑으로 굴러 넣었다.
 허공을 찢는 소리에 탱크는 주저앉아버렸고, 해치를 열고 튀어나오는 적이 보였다. 최달수는 한 명씩 한 명씩 천천히 쏘았다.

[분대장님— 분대장님—]
 신병이었다. 양 손에 로켓트포와 포탄을 들고 철모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왼뺨 위로 선혈이 흘러 내렸다.
 「적 포탄에 맞았습니다. 이 일병은 전사 하였고, 저는 쓸 줄을 몰라서………」
 「알았다. 이리 내, 포탄 들고 따라 와!」
 그는 로켓트포를 단단히 거머쥐고 포탄을 장전시킨 후 신병과 함께 후미로 뛰었다. 구릉 위로 도망치는 적병은 3분대에 의해서, 논 쪽으로 도망치는 적병은 1분대에 의해서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대의 탱크는 건재했다. 포탄을 들고 뒤따라 오던 신병이 가슴을 움켜쥐며 고꾸라졌다.
 최달수는 엎드려, 신병에게로 기어가 손을 잡았다.
 「야, 임마! 정신차려! 야—」
 절규에도 아랑곳없이 피가 강처럼 흘러나와 최달수의 옷을 적셨다.
 언젠가 녀석은 전쟁이 끝나면 대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라벨의 찌가느와 바하의 「샤콘느」를 연주했을 녀석의 손은 보드랍고 따듯했다.
 「그래, 어차피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 무슨 아쉬움을 남길 게 있다구. 자—식 잘 가게.」
 피처럼 진한 짙은 액체가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서 폭음이 울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탱크 위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는 적의 눈빛이 보였다. 그는 일어섰다.
 왼쪽 어깨가 따끔했다. 그는 흐르는 웃음을 뺐어냈다.
 로켓트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선 채로 방아쇠를 당겼다.
 「콧—양」
 기관총을 쏘아대던 적이 튕겨나가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남은 한 대는 미친 듯이 뒤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이 깔려 갔다.
 최달수는 어지러웠다. 저 무수한 굉음들 사이로 온몸이 해체되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적의 탱크를 향해 천천히 로켓트포를 들어 올렸다.
 산등성이 너머로 별뚱이 긴꼬리를 그으며 떨어져 내렸다.
 「콧—양」
 탱크의 포탑이 몸체와 분리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최달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다리가 걸려 있는 계곡 밑으로 좀 더 내려갔다.
 빨려 들어갈 듯한 코발트블루의 하늘이 보석처럼 뿌려진 별들과 함께 지고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적들이 구릉 쪽으로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좌측 가슴에서 마지막 남은 수류탄을 빼 들고 포복으로 다리를 향해 기어 갔다.

다리에서 10m쯤 가까이 갔을 때 수류탄을 던졌다.

비산된 파편이 그의 철모 위로 떨어져 내렸다.

최달수는 눈을 떴다.

선우경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있었다.

(가여운 놈이다. 이제 배를 탄 지 6개월이 채 안 됐을 텐데.....)

문득 아들녀석의 모습이 늙은 아내와 며느리의 모습과 함께 떠올랐다.

심장이 파열하는 듯한 아픔에 두 손을 꼭 움켜쥐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온 몸을 찢어누르는 고통으로 그를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여 갔다.

(현재 위치는 대체 어디쯤일까. 태풍이 밀어버린 것은 어느 정도일까. 태풍이 밀어버린 것을 가산하고 적도역류에 실려 흘러 나왔다면 표류 닻새체인 지금은 적어도 뉴우기니섬 북부 5~6백 km쯤에는 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빠르면 사나흘, 늦어도 일주일이면 뉴우기니섬 북부 해안에 닿을 수 있다.

또 운이 좋으면 그 전에 다른 선박이나 우리를 찾고 있는 항공기에 의해 구조받을 수도 있다. 그래, 희망은 있다.....)

날치떼가 수면 위로 튀어 올라 날렵하게 수 미터를 날아 다시 물 속으로 곤두박질했다. 오늘 먹을 것이라고는 물 두 모금과 찢살 한 줌 뿐이었다. 사정없이 내리찍는 강렬한 햇볕에 벌겍게 단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일주일 내로 탈수증과 일사병에 걸려 죽고 말텐데..... 아, 무얼 좀 먹었으면.....)

심한 갈증과 굶주림에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그였지만 이상스럽게도 눈빛만은 맑았다. 인간은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최달수는 현위치를 다시 한 번 계산했다. 자신의 판단이 그다지 틀리지 않는다면 이 적도역류를 따라 비즈마크해에 도착하기까지는 사흘이면 될 것이다. 비즈마크 해는 선박들의 왕래가 많으므로 어쩌면 훨씬 빨리 구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날치라도 한 마리 잡혀 준다면.....)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날치를 잡아 볼 요량으로 손을 뻗쳐 보았으나 배가 잠시 기우똥 거릴 뿐 허사였다.

그때 선우경이 급작스레 외쳤다.

「물이 들어와요!」

절망이었다. 며칠 간만 건디어 주면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데.....

최달수는 옷을 벗어 물이 스며들어오는 틈을 막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틈이 점점 벌

어저가며 배 밑창으로 물이 고여 갔다.

최달수는 초점을 잃은 듯한 안스러운 눈으로 무정한 하늘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최달수는 어둠 속에서 풀을 씹어대며 누워 있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소대장을 포함하여 열 네 명의 전우를 잃었다. 아무런 감각도 감각도 슬픔도 느끼지 못한 채 그들은 피곤에 지쳐 몸뚱이를 대지 위로 눕혀 놓고 있었으며 한 구석에서 통신병인 임일병만이 무전기로 열심히 본부를 불러내고 있었다.

「여기는 짱구 쓰리. 고박사 나오라.....」

여기는 짱구 쓰리. 고박사는 응답하라.....」

무전기는 한참을 뻑뻑거렸다.

「여기는 고박사. 짱구 쓰리 반갑다..... 여태껏 소식 기다렸다.」

「나왔습니다!」.

임일병이 밝아진 얼굴로 수화기를 들이댔다.

최달수는 무거운 눈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수화기를 입에 가져갔다.

「여기는 짱구 쓰리.....」

「여기는 고박사다. 어떻게 됐나?」

「... 적전차 8대 모두 파괴. 적사살 수십명..... 임무는..... 완수했다.」

「수고했다. 귀관은 누군가?」

「2분대장 이등 중사 최달수다. 소대장을 잃었다. 잔여 인원 8명..... 부상자는 구하지 못했다.....복귀해도 좋은가? 모두들 피곤에 지쳐 있다.」

「잠깐 계속 그곳에 대기하라. 소대장을 비롯해 많은 희생을 낸 데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귀관들의 희생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다. 우리는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정말 수고했다. 우선 그곳에 계속 대기하라. 잠시 후 다시 명령을 하달하겠다.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한다. 이상-」

잠시 후 음어로 하달된 명령은 ‘적 64사단 예하 8연대 병력의 주공인 탱크를 격파함에 따라 기선을 잡았으니 적 8연대 수중에 있는 783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07:00를 기해 개시한다. 그런데 783고지 정상에 있는 적의 버거는 기관포 3문을 보유하고 있어 아군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격개시 시각 07:00 이전까지 적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파괴하라’는 내용이었다.

최달수는 맥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시계를 들여다봤다.

04시 30분, 783고지까지는 현위치에서 60분 거리이다. 침투하여 파괴까지의 행동시간은 한 시간 반, 그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아군의 피해는 심해질 것이다. 최달수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왼쪽 어깨를 감싸 쥐고 일어서며 말했다.

「새로운 명령이다. 우리 또 한 번 사지로 들어가야 한다. 목표는 적 783고지 정상의 병커이

다. 작전완료 시각은 07시, 그 때까지 우리는 783고지로 침투, 병커를 파괴해야 한다. 병커의 위치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07시까지는 병커속의 기관포 3문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이젠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사나이로 태어나 한 번은 죽게 되는 것. 까짓거 한 번 멋지게 죽는 거다. 질문 있나?]

어느 덧 그의 말투는 소대장을 닮아갔다. 1분대원이었던 강 일병이 투덜대며 말한다.

「한번 멋지게 죽는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본부에 있는 녀석들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아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지도상의 숫자와 화살표로 표시되는 우리에게는 하지만, 지금 막 전투를 끝내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온 우리에게 더 이상 무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구나 우리 모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최달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래, 네 말대로 우리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화살표와 숫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또 어떻다는 건가?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생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더욱이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쓰러져 이름 모를 꽃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상의 명예가 아니냐 말이다. 어차피 이제나 저제나 죽음 앞에 서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 대한 기만을 죽음인들 용서할까?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투를 포기하는 것은 생애 대한 기만이다. 왜 포기하려 하는가! 역사의 굵고 긴 실타래 속에서 우리는 한낱 티끌도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적어도 역사에 참여해서 자기 생애 대한 진실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 또한 이 길은 우리 겨레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가는 길이 아니냐! ...」

그는 악을 썼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이기도 했다.

「자, 시간이 없다. 잠시 후면 날이 밝는다. 지금 곧 출발한다. 출발!」

그들은 걸으면서 잠을 잤다. 정말이지 이제는 전투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한 순간만이라도 잠을 잤으면 싶었다.

아, 그 한없이 무겁게 내리누르던 눈까풀을 밀치고 783고지가 가까이 보였다.

하늘 저 편에서 여명이 밝기 시작하며, 산등성이의 공제선으로 적들이 보였다. 서둘러야 한다.

「산개하라. 각자 알아서 행동하라! 만약 발각되면 놈들을 유인하여 기만하도록 한다. 산개!」

그들은 천천히 산개했다.

새벽은 우유빛으로 안개비가 뿌려지고 있었다.

최달수는 어쩐지 이번 일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대병력 대 여덟 명의 무모한 싸움이였다.

15m쯤 전방에 총을 메고 서성거리는 적의 모습이 얼핏 스치자 최달수는 풀숲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07시가 되기까지는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고지 정상까지의 거리는 백여

미터나 될까. 병커는 어디 있을까.

그 때, 안개비 속을 헤치며 총소리와 폭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발각된 모양이다. 풀잎이 간지럽게 코끝을 스쳤다. 매캐한 흙 내음이 향그러왔다.

몇 명이나 희생됐을까. 최 달수의 머리에 소대원들의 모습이 스쳐 갔다.

〈자 침착하자. 선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병커를 부숴버리기 전까지는 나 개인의 목숨이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타이르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아, 저기다. 드디어 찾았다.〉

병커는 고지 바로 밑 절벽 중턱에, 나무들로 희뿌연 살을 감춘 채 시꺼먼 구멍으로 기관포의 총신을 뺄뚱히 내밀고 있었다.

최달수는 땀이 촉촉히 배인 이마를 씻었다.

〈이제 저걸 어떻게 까부순다?〉

병커 밑 10m쯤 되는 지점까지는 어떻게든 기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단 한번에 저 시꺼먼 아가리로 수류탄을 던져 넣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실패하면 오히려 내가 죽게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로켓포를 가져오는 건데.....

절벽을 기어오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90도가 가까운 암벽을 밧줄없이 기어오르기란 불가능하다. 더구나 고지 위에는 무수한 적들이 버티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아예 고지 위로 올라가 적을 까부수며 소란을 피우다가 기회를 보아 재빨리 암벽을 타고 내려와 구멍 속으로 수류탄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 혼자이고 다른 소대원과 연락도 없다. 다른 소대원들은 어찌 됐을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 때였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흔들며 하늘 저 편으로부터 한 대의 폭격기가 나타났다. 항공지원사격은 B-29였다. B-29는 하늘을 향해 쏘아대는 적의 포화를 무시한 듯 천천히 선회하며 고지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최달수는 주먹을 쥐고 흔들며 소리쳤다. 「다 때려부숴라. 깡그리!」

폭탄이 병커 위에도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병커는 무사한 것 같았다.

한바탕 폭탄을 쏟아붓던 B-29는 최달수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금시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유유히 사라져 갔다.

「저런....., 병커를 부숴야 하는데.....」

애가 땀지만 이미 B-29는 보이지 않았다.

07시 정각.

아군의 포격이 시작됐다. 지금쯤 저 아래 돌격개시선에서는 아군들이 돌격을 개시할 것이다. 저렇게 병커가 견제한 데도.....

아군의 포격은 이제 고지 위로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다. 아득히 먼 곳에서처럼 아군의 돌격함

성과 병커의 기관포성이 들려왔다.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병커를 파괴 하지 않으면 많은 희생을 치뤄야 한다.〉

그는 일어서서 고지 뒤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전방에 대한 아군의 돌격과 지원포 사격 때문에 후방의 경계는 소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상했던 대로 후방은 몇 명 안 되는 병력만이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었다.

참호 속에 머리를 처박고 포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적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최달수는 대검을 뽑아 들었다.

〈아직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포격이 멈췄다. 참호 속에 고개를 처박고 있었던 북괴군 녀석이 고개를 들고 참호에서 기어 나오려는 순간, 최달수는 눈을 덮쳐 재빨리 대검을 목에 꽂았다. 피보라가 분수처럼 뿜어 나와 안개비로 축축히 젖은 풀밭 위로 뿌려졌다.

썩은 고목처럼 쓰러지는 적병을 내버려두고 그는 고지 위로 튀어 올랐다.

고지 위에는 여기저기 적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포연이 가득차서 행동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최달수는 적의 시체에서 수류탄을 건어 모아 철모에 받쳐 들고는 몸을 굴러 밀로 내려갔다.

병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관포화에 쓰러져 가는 아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위를 타고 병커 쪽으로 기어 갔다.

병커가 보였다. 고지 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암벽에 기대어 수류탄을 꺼내 들었다. 그의 모습을 발견한 아군이 맹렬하게 엄호사격을 해 줬다.

그가 가까스로 병커 바로 위까지 도달했을 때 적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총을 쏘았다.

팅 —.

총알이 철모를 스치고 지나갔다.

적병은 아군의 엄호사격에 의해 목이 뒤로 젖혀지며 고꾸라졌다. 최달수는 창녀의 음부 같은 병커의 구멍을 향해 수류탄을 힘차게 집어 던졌다. 그러나 수류탄은 구멍 모서리에 맞고는 다시 튕겨 나가 10m아래로 굴러 떨어져 터져 버렸다.

상황을 알아차린 고지 위의 북괴군들이 그를 향해 집중사격을 가해 왔다. 그러나 아군의 맹렬한 엄호사격에 의해 하나씩 들쭉 쓰러졌다.

최달수는 왼 다리에 예리하게 섬뜩한 통증을 느꼈다. 폭음이 울리며 철모가 날아올랐다. 최달수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수류탄을 천천히 집어 들었다.

이상스레 머리가 맑아졌다.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다. 병커의 시꺼먼 구멍이 확연히 보였다고 느낀 순간 수류탄을 집어 던졌다. 동시에 그의 바로 옆으로 또 하나의 수류탄이 떨어졌다.

콰앙 —. 콰 —.

그의 귀에 두 개의 유니즌한 폭발음이 울렸다고 느낀 순간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진공의 상태로 몰입된 느낌이었다.

아아 —, 우주의 끝이 보였다.

침수가 계속되고 있었다.

최달수는 손바닥으로 물을 퍼내다가 문득 후송병원에서의 마지막 고통을 상기해냈다. 까담 모를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석양이 바다를 벌겍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사흘, 사흘일세. 그 동안만 이 구명자켓과 남은 식량으로 견디어 내면 되네.

사흘 후면 적도 역류를 따라 북부 뉴우기니섬 근처에 도착할 수 있을 걸세. 자, 용기를 내게나.」

「이건 뭘니까?」

최달수가 건네 준 김 선장의 반지와 또 하나 누런 삼베몽치를 가리키며 선우경이 물었다.

「글쎄....., 나의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라고나 할까. 흘러간 시간의 증인이라고나 할까.....」

「왜 이걸 제게.....」

최달수는 대답대신 씨익 웃어 보였다.

선우경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웃음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최달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세상의 끝으로 헤엄쳐 갔다.

「잘 가게 꼭 살아야 해..... 어차피 구명자켓은 한 개니까, 그건 자네 몫이야.」 선우경은 이 갑작스런 사태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놀란 눈으로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며 손을 흔드는 최달수를 쳐다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에 빛나는 웃음과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웃음소리가 군가 소리로 바뀐 듯했다. 선우경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버리고 구명자켓에 몸을 의지한 채로 세월의 연륜이 울울이 배어 있는 누런 삼베몽치를 끌었다. 태극마크를 둘러싼 쇠조각이 번쩍었다. 그것은 최달수의 한 편린이었다.

선우경은 석양빛을 받아 흐물어지듯 번쩍이는 훈장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양산 103호의 유일한 생존자 선우경은 뉴우기니섬 북부 비즈마이크해에서 지나가던 영국상선에 의해 구조 되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3,700

제목 : 「공군」 제195호

1985년 10월 25일 인 쇄

1985년 10월 30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용사의 다짐

조정제 작사
최창권 작곡

썩썩하게

남 아 의 끊 는 - 피 조 국 에 - 바 처
우 령 찬 기 상 나 관 울 릴 때 - 마 다

충 성 을 다 하 리 라 는 다 짐 했 - 노 라
출 기 차 게 섯 쏫 는 새 로 했 - 용 기

눈 보 라 불 아 치 는 참 호 - 속 에 서
벅 차 고 고 될 수 목 줄 거 - 운 나 날

한 목 숨 바 칠 것 - 을 다 짐 - 했 노 라
부 모 - 형 제 지 키 는 보 람 - 에 산 다

(후렴)

전 우 여 이 세 는 승 리 만 이
우 리 의 사 명 이 요 갈 길 이 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썩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군인(軍人)의 길

나는 영광(榮光)스런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의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技)를 단다.

하나 :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코 공산적(共產敵)을 쳐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의 군율(軍律)에 있다.

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